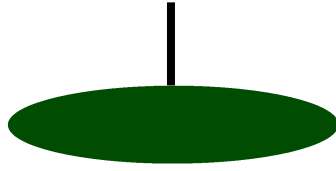


ISSN 1738-2645

문화콘텐츠연구

문화콘텐츠연구-12

동의대학교 문화콘텐츠연구소



문화콘텐츠연구

동의대학교 문화콘텐츠연구소

진리·정의·창의

■동의대학교 교육목적

동의대학교는 동의지천(東義知天)의 건학 이념에 바탕을 둔 진리·정의·창의의 교시 아래, 진리를 탐구하는 지성인·정의를 구현하는 지도자·창의를 실현하는 세계인의 양성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는다.

문화콘텐츠연구 제12집

■ 차례

- 장소마케팅PR 관점에서의 부산 APEC에 관한 고찰
– *Analytical Review of the 2005 APEC in Busan from the Place Marketing PR Perspective* - /김일철 · 3
- Translation and English Education: Korean Culture and Research Evidence/ Robert Palmer · 31
- 노인의 라이프스타일과 광고수용문화에 관한 연구/ 조정섭 · 61
- 불어의 내포문에 관한 연구(3)/ 류근중 · 101
- 막스 셸러의 지식사회학 : 그 철학적 토대와 전개/ 이을상 · 135
- 음악감상자의 사회적 역할/ 정두환 · 169
- Karl Gutzkow의 “영혼의 기사”에 나타난 인물들의 애국주의/ 김태재
· 203
- 한국인의 죽음관과 장묘문화 개선 방안/박문현 · 229

장소마케팅PR 관점에서의 부산 APEC에 관한 고찰

— *Analytical Review of the 2005 APEC in Busan
from the Place Marketing PR Perspective* —

김일철*

그 동안 지역이미지 제고에 관한 연구는 주로 브랜드들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이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장소’에 대해서도 브랜드라는 용어가 여과없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장소 마케팅의 상품 속성이 갖는 지리적, 사회적 혹은 문화적인 다차원적 속성은 보다 광범위한 장소성(placeness)에 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곧 장소는 교환이나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과는 확연히 구별되어야 할 독특한 특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기존의 장소 마케팅 혹은 마케팅 PR을 확장한 ‘장소마케팅 PR’ 개념을 설정한다. 아울러 이를 구성하는 마케팅 믹스 요소로서 종전의 4P나 혹은 4C의 논의를 넘어서는 SIVA 개념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APEC을 지역 이미지 제고의 측면에서 논의해 보면 1. 주체로서 지역 주민의 정체성 정립 및 역할의 미흡, 부산시와 중앙 정부와의 역할 분담 불명확 2. 마케팅 요

*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부교수

소로서 부산의 장소성에 관한 논의 결여와 다차원적 접근의 부족 3. 목표 대상으로서 타깃 명료성의 모호함 및 소비자 지향적 발상의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주체와 주관의 명확화 및 참여 유도에 의한 상호성 확보, 지역과 시민 정신을 담은 장소성에 관한 논의의 확대와 수렴적 노력 등을 보완하되 실천적 방안으로 목적 달성 여부를 가름할 계량적 목표의 설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계수적 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 그리고 목표와 전략을 검증 할 수 있도록 측정 가능한 결과를 구현하는 장소마케팅PR의 적용을 제안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장소마케팅PR에 관한 독립된 평가(audit) 기관의 설립이나 활용을 추천한다.

1. 시작하면서

지난 11월22일 저녁, 한 공영 방송이 좌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2005 APEC’의 결과에 대해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 방영을 시작으로 적어도 언론에 비친 APEC의 부산 개최 성과는 대단히 고무적이다. 어떤 근거로 혹은 무슨 기준으로 ‘성공’을 예단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성공이란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APEC 홍보 용역 컨설팅 보고서에는 “‘05년 APEC회의 성공개최로 ‘세계 도시 부산’의 위상과 역할 강화”라는 전제아래 1) ‘05년 APEC 개최도시 부산의 Brand 창출 원년화 2)APEC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역량 극대화 3) Dynamic Busan의 면모 부각으로 도약의 기틀 마련이라는 하위 방향이 제시돼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성과로 각기 ‘Global 홍보 강화와 투자유치’, ‘경제성장 성과 가시화’, ‘시민참여와 Boom조성’, 그리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시대의 선도적 도시화’라는 결과물이 명시되어 있다. 하나같이 서술적이고 포괄적인 표현들이라서 가히 그 달성 여부에

대한 측정이나 판정 기준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번 APEC 홍보와 관련해서 책정된 예산은 부산시의 238천만원을 포함해서 45억 원 수준에 달한다. 하지만 부산시의 홍보마스터 플랜에는 이들 투입 예산의 효과나 효율을 입증 내지는 측정 할 수 있는 어떠한 계량적 목표도 눈에 띄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개최를 시작으로 1988년 하계 올림픽, 1993년 대전 엑스포에 이어 지난 2002년 월드컵 개최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 사이에 가히 ‘컨벤션 국가(Convention Country)’라 불리우리만치 굵직한 국제행사들을 유치해 왔다. 그 때마다 행사가 끝난 뒤의 적절한 평가보다는 과잉 시설 투자와 행사 이후의 유지 보수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 등이 있었으나 곧 이어 등장하는 새로운 행사 개최의 논리에 묻혀 찾아들곤 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무한 국제 경쟁이 가속화하는 오늘의 상황에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주어진 지리적, 지형적 특징을 극대화하고 무형의 서비스를 최적화하여 경쟁력을 높여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 거점이 되는 물리적 위치를 알리려는 장소 마케팅(Place Marketing 혹은 Marketing Places)¹⁾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칠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치밀하지 못하고 전략성이 떨어짐으로써 제한된 자원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면 이는 국고의 낭비를 넘어 국제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부산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를 계

1) 에어리어 마케팅(Area Marketing)과 장소 마케팅(Place Marketing)의 구분- 전자는 전국을 동일한 성질의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전개하는 마케팅 수법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치밀한 마케팅 수법을 통틀어 일컫말며 후자는 지방정부나 기업들이 외부의 기업과 관광객, 혹은 해당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정한 장소의 이미지를 독특하게 구축하여 이를 판매하려는 다양한 방식들의 노력(신윤창)으로서 전자는 장소를 어느 곳을 대상으로 하는 목표로 삼는 반면에 후자는 어느 곳으로부의 주체로 구분할 수 있다.

기로 이러한 국제행사가 개최도시 부산을 위해 어떻게 활용되어야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장소마케팅PR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지역 이미지 제고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관련 문헌 및 ‘APEC 대비 부산시 홍보마스터 플랜’이나 혹은 주간 ‘APEC정상회의 준비현황’ 등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하였다.

2. APEC의 개요

부산 APEC에 관한 장소마케팅PR 관점에서의 논의를 위해 부산광역시 및 부산발전연구원발행의 홍보물에 기초하여 행사의 개요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공식 명칭 :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출현 배경 : 냉전체제의 종식 후 세계질서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범세계주의와 지역주의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짐. 특히,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 유럽과 북미의 지역주의 심화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고자 동아시아를 포함하는 지역주의 움직임 시작.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출범, 1993년 11월 시애틀에서 제1차 정상회의 개최 이후,

의의 : 자발적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회원국 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후생 증진과 궁극적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수립의 토대 마련

협력 목표 : 역내의 안정과 번영의 달성을 위해 역내, 세계경제의 도전에 공동 대응, 역내 재화·용역·자본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

한 무역·투자 장애 제거 등을 추진

경제 위상 : 세계GDP의 60.4\$, 교역량의 46.9%를 점하는 최대 규모의 지역협력체

부산 APEC :

- 장소 : 부산 BEXCO 및 누리마루
- 기간 : 2005년 11월13~19일
- 참가국 : 21개국
- 파급효과 : 정치 -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경제 - 부산,경남 등 동남 경제권의 활성화에 기여
사회 - 세계도시 기반의 조기 구축 등

1. 장소마케팅PR에 관한 이론적 논의

지역 이미지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이 브랜드 전략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이는 다분히 마케팅적인 발상으로 단지 지역이라는 상품을 알리거나 팔려는 평면적 사고에 머물 수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마케팅 활동의 주체로서 장소가 함유하는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의 다차원성과 또한 이들이 겨냥하는 투자가, 관광객, 협력사 등 타깃의 복합성을 간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이미지 노력이 갖는 이러한 다원적 특성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마케팅PR의 개념을 설정하고 그 틀 안에서 부산 APEC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 마케팅 개념의 진화

아마존 웹 사이트에 접속해서 '??? marketing'을 검색하면 3만7천 6

백 여 건에 달하는 도서 목록을 만날 수 있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마케팅 관련 서적 또한 이들의 번역서 말고도 다양한 수식어를 접두에 두고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마케팅’ 개념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변인은 크게 생산자 위주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나아가 상생으로 향하는 역학구조의 변화와 대량화로부터 탈 대량화에 이르는 생산 규모 및 방식의 변화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전후 대량생산을 대량소비로 연결시키기 위한 전략적 발상에서 비롯된 마케팅은 그 핵심 요소인 4P의 결정을 공급자가 하는 생산자 중심의 개념이었다. 이후 공급초과로 인한 수요부족은 심지어는 ‘고객은 왕’이라는 극단의 찬사와 더불어 마케팅 믹스를 4P에서 4C로 전환, 그 결정권을 소비자에게 넘기는 개념으로까지 발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양극화는 비선형적 쌍방향이라는 변증법적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근자에 들어서는 소위 상생(win-win)에 의한 마케팅 개념으로 진화, 코넬 대학의 Dev(2004) 교수 등은 이들 마케팅 믹스 요소를 SIVA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힌두교 신의 이름에서 비롯된 시바란 각기 해결책(Solution), 정보(Information), 가치(Value), 및 접근(Access)을 의미하는 용어의 약자로서 이를 기존의 4P 및 4C 개념과 대비해서 도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마케팅 믹스의 진화

	4P	4C	SIVA
마케팅 믹스	Product Promotion Price Place	Consumer Communication Cost Convenience	Solution Information Value Access
역학 구조	공급자 중심	소비자 중심	상생 추구

SIVA란 컴퓨터와 교통, 통신이 고도로 발달한 정보사회에 있어서 마케팅 활동이란 개인이나 조직이 자신에게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한 정보 추구 및 이를 위한 접근 방식과 그에 따르는 가치교환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4C보다 더 소비자 관점을 채용한 순환적이며 공급 사슬(supply chain)적 시각이다. 이러한 정보사회의 새로운 마케팅 믹스 개념은 앞으로 논의 할 장소마케팅PR이 갖는 주체와 객체의 상호작용성과 지역이라는 상품이 갖는 지리적, 산업적 및 문화적으로 다차원적인 복잡성을 고려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장소마케팅의 개념

1) 출현 배경

70년대 이후 전통적 제조업 중심의 서구 도시들은 탈산업화로 인한 경제 위기와 산업 재구조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윤만 보장된다면 굳이 특정 장소에 억매이지 않고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각 도시들로 하여금 자본의 유치라는 당면 과제를 안겨주게 되었다. 이러한 요인 등으로 인해 김숙진(1999)은 장소 마케팅의 출현 배경을 위와 같은 경제의 재구조화와 이후 등장하는 신보수주의의 논리에 의한 시장 합리주의와 민영화, 규제 완화 정책 그리고 앞서의 탈조직화로 비롯된 차별화 및 정체성 추구의 욕구 등 3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최재현(1998)은 교통 통신 기술의 발달과 전자 상거래 망의 구축 등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전문 서비스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기업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오늘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자원과 논시학(1999)은 글로벌화와 빠른 자본 회전력 등을 출현 배경으로 지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장소마케팅의 개념의 등장은 서구 사

회가 경제 구조 변화에 의한 발전적 과정인데 비해 1995년 이후 전면적으로 실시된 지방 자치제와 그 시작을 같이한다. 따라서 누적된 지역 경제의 활로를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지역의 기초 혹은 단체장의 선출과 관련된 정치적 색채가 짙다.

2) 개념 및 유형

70년 대 이후라는 출현 시기로 볼 때, 이러한 진화된 마케팅 개념의 연장 선상에서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 혹은 Marketing Places)’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장소마케팅이란 장소를 관리하는 개인이나 조직에 의해 추구되는 일련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으로, 지리적으로 규정된 특정한 장소의 이미지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서, 기업가와 관광객, 나아가 지역주민까지, 그 장소를 관측하는 다양한 양식(Philo and Kearns, 1993: 공자원, 노시학, 1999에서 재인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진수(2004)는 특정 장소(도시)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여, 지역의 공공과 민간의 협력 하에 기업·주민·관광객이 선호하는 이미지·제도·시설 개발을 통하여 장소상품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전략이라고 정의하며, 밖에도 유우익(1995)은 “특정 장소가 자신의 특성을 살리는 정책을 펴고 그 이미지를 부각하여 홍보함으로써 관련 산업이나 인구, 관광객 등의 고객을 유치하는 전략”으로 그리고 신혜란(1998)은 “도시에서 공공,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이 산업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 재활성화를 위해 이동하는 기업이나 주민,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자원관리 기술” 등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소마케팅은 목적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유형화가 가능한 데, Griffith(1995)는 이에 대해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 모델과 주민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 모델, 그리고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소비자 중심주의 모델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 장소마케팅PR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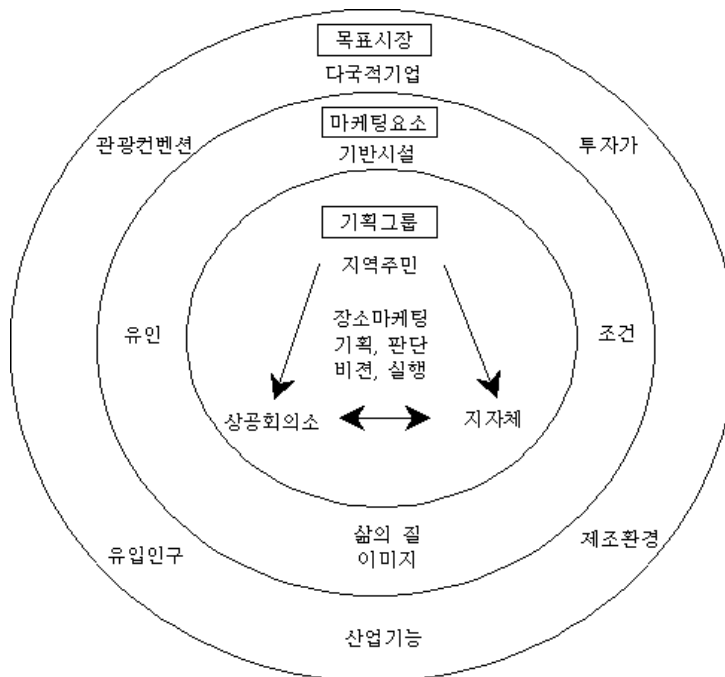
앞서의 논의를 토대로 장소 마케팅을 정의하면 “지역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지역이 갖는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소마케팅PR이란 무엇이며 왜 이러한 개념의 도입이 필요한가? 이를 위해서 우선 마케팅PR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이를 장소마케팅 개념과 연결시켜 새로운 정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MPR의 전문가로 알려진 Harris는 MPR을 “인지도를 높이거나 구매를 자극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며 조직과 공중간의 관계 창출 등의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PR의 전략과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박기철(2005)은 MPR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PR에 대한 기능적 노하우(know-how)가 아닌 기본적 노와이(know-why)로 설명하고있다. 즉, MPR이란 마케팅을 위한 PR로서 종래 CPR(Corporate PR)로 부터의 실리적 전환이라는 것이다. 결국 마케팅 PR(MPR)은 마케팅이나 커뮤니케이션 목적 달성을 위하여 PR의 전략이나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장소마케팅과 마케팅PR의 논의를 종합해서 장소마케팅PR이란 복합적인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면, “SIVA를 마케팅 믹스로 하여 장소가 함유하는 자연적, 산업적, 문화적 재화나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일체의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혹은 MPR) 전략이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다소 포괄적인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앞서 지적한 대로 장소가 갖는 인적 요소의 상호성과 물적 요소의 복합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장소마케팅PR의 구성 요소로는 재화나 서비스로서의 ‘장소’와 이를 관리하는 개인이나 조직에 해당하는 ‘마케터’ 그리고 다양한 양식이나 기술에 해당하는 ‘(마케팅)전략’과 마지막으로 마케터가 장소를

마케팅PR하려는 ‘대상’ 등으로 구분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Kotler (1993)등은 이를 각기 마케팅 요소(Marketing Factors), 기획 그룹(Planning Group) 및 목표 시장(Target Market) 등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분 하에 이들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2005 APEC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관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부산 APEC에 대한 장소마케팅PR 관점에서의 논의를 위해 이제까지의 이론적 연구를 Kotler(1993)등의 모델에 기초해서 재구성하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장소마케팅 PR의 구성



2. 부산 APEC에 대한 논의

Kotler(1993) 등은 도시(지역)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 확장이 용이하고 기후 등 자연 환경이 바람직하며 역사적 유산을 배경으로 할 때 비로소 고용 기회가 늘어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며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유입인구의 증가는 노동력과 자원을 풍부하게 하고 세수를 늘리며 사회 인프라와 서비스가 개선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장소 마케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산업, 자연, 역사 세 가지 가운데 하나는 경쟁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마케팅 요소를 바탕으로 (장소의)주체로서 기획그룹의 명확한 비전에 의한 우선순위의 설정 및 타겟 시장별 목표 수립과 적절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장소마케팅PR의 목표 달선 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서 부산 APEC을 논의 해 보기로 한다.

가. 기획 그룹으로서의 주체

방폐장 유치에서부터 가로수 조정 디자인 선정에 이르기 까지 이제 지역의 의사 결정권자는 지역주민이다. 장소마케팅에 있어서 기획의 제1 주체는 바로 그 지역의 주민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지자체인 부산시와 기업군(상공회의소)이 모여 장소마케팅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이로부터 기획과 실행이 이어진다. 그러나 이번 부산 APEC에서 지역 주민이나 기업군이 주체적 역할을 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1) 지역주민의 정체성과 역할

앞서 언급한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의 세계도시 브랜드 마케팅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도시브랜드 이미

지 상징화 방안으로 1)항만물류도시 이미지 강화 : BPA기념 항만박물관 건립, 2)영화영상도시 이미지 강화 : 유명 배우 거리지정, 3)문화관광도시 이미지 강화: 광안대로 활용 프로그램, 4)관광이미지 강화: 자갈치 프로젝트, 5)문화역사이미지 강화: 이충(귀무덤)박물관, 6)친환경 이미지 강화: 온천천의 생태공원화(을숙도), 7) IT도시(센텀시티) 이미지 강화 : 아시아태평양 ICT센터 유치 등으로 무려 7가지에 걸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전략은 역시 같은 부산발전 연구원이 작성, 부산시에서 ‘채택한 2020 비전과 전략사업 구상’안의 도시의 비전과 목표에 수렴하지만 그 범주가 넓고 산만하다. 특히 마케팅PR 측면에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단지 그 과정에서 어떤 자원이 상황 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는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마케팅PR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선별을 요한다. 정체성(identity)의 구성 역시 기본적으로는 앞서의 장소성에 기초해서 부산시가 보유한 자원(resources)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남들이 지정학적 혹은 국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항만 물류의 선두 지위를 확보했다고 해서 또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문화나 예술 도시로서의 명성을 구축했다고 해서 이를 다 쫓아가거나 글로벌 이미지의 순서를 뒤바꾸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쟁우위의 핵심 요소에 집중, 핵심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흔히들 CI(Corporate Identity)나 장소마케팅에서는 City Identity로 변용해서 적용하기도 함) 작업 정도로 생각하는 데 이 CI는 행동 규범을 나타내는 BI(Behavior Identity)나 시각적 통일을 의미하는 VI(Visual Identity)의 상위 개념으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시각적 혹은 행동적 관점보다 상위하는, 조직이 추구하는 철학적 통일성을 의미한다. 당연히 부산의 CI에는 이러한 부산시의 비전이나 임무(mission)를 내포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까지의 외적인 장소로서의 부산 마케팅 노

력을 내적인 장소로서의 장소성에 기초한 마케팅PR로의 발전적 변화와 실행이 가능하다.

2)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인 부산시와 주관부처인 외교통상부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정부가 국제행사를 통해 도시 브랜드를 높이려는 부산시에 대해 '국가행사에 왜 부산이 튀느냐'며 심심찮게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15일자 ‘외교부 어이없는 트집’ 제하의 국제신문에 난 기사의 일부다. 2004년 4월 26일, APEC 유치를 위한 1년 이상의 노력 끝에 부산시는 2005년 APEC 정상회담 개최도시로 선정되었다. APEC은 명백한 국가 행사다. 하지만 1876년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의 행사라 불릴 만큼 중요한 부산시의 APEC 정상회담 유치에는 일정한 몫과 의미가 담겨 있다. 부산시 홍보의 기본구조에 따르면 중앙정부(기획단)와 부산시 간의 글로벌, 전국 그리고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역할 분담의 그림이 담겨져 있다. 그럼에도 이번 APEC의 유치 및 운영과 홍보기회 활용 과정에서는 국가 행사로서의 중앙정부와 개최지역으로서의 지자체간에 명확한 역할분담과 한계를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지방에서 개최되는 국가 행사인 만큼 관료 조직의 특성상 그리고 예산의 지원과 배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유치 단계에서부터 각각의 목표와 기대 효과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르는 업무의 한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MECE(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전략을 고려했다라면 이러한 중복이나 공백현상은 최소화 가능했으리라고 본다. 특히 장소 마케팅의 경우 주체는 판매자(Place seller)의 관점에서 파악하면 도매상과 소매상의 역할이 확연하듯 중앙과 지방간의 선을 보다 명확하게 그을 수 있다.

이러한 물리적 역할 분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마인드에 관한 부분

이다. 이제까지 지역 이미지는 주로 브랜드 제고라는 다분히 서구적 마케팅 발상에 그 근거를 두어 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각은 단순히 이름 알리기에 급급하거나 지역의 공공성 보다는 지나친 상업성에 편중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후 장소마케팅PR의 전개를 위해서는 브랜드와 아울러 장소성이라는 동양적 정체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나. 마케팅 요소로서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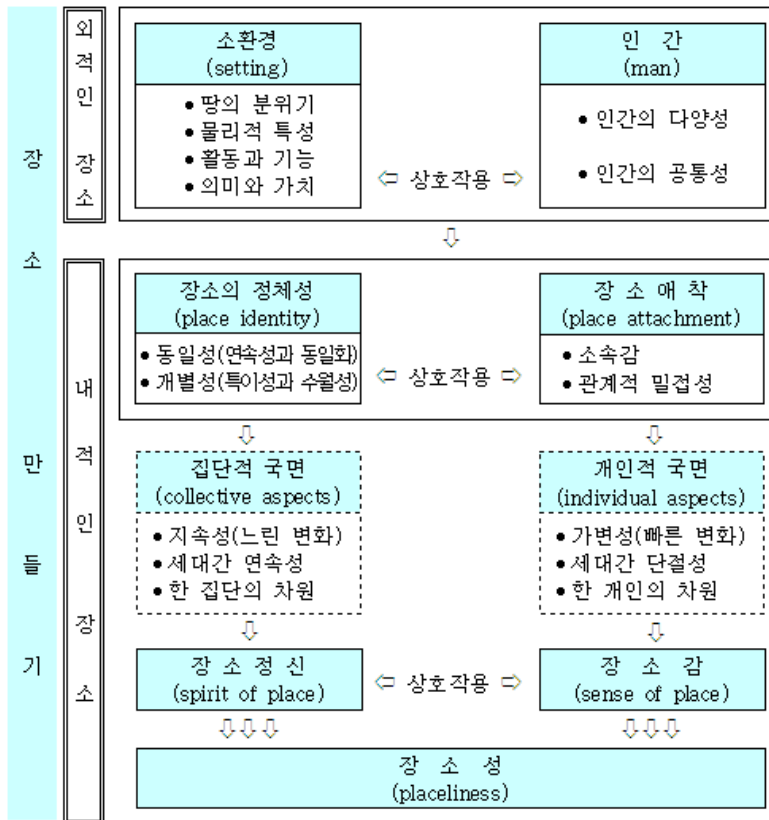
마케팅 요소로서의 지역은 기반시설과 유입조건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등으로 대변되는 지역 이미지를 구성한다. 이들을 지역 브랜드 보다는 광의의 개념인 장소성에 입각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1) 장소성에 대한 논의

이진희(2003)에 따르면 장소의 본질은 장소 그 자체 보다는 외부와 구분되는 내부의 경험에 있으며 이는 장소가 공간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물리적 모습과 행위, 의미의 독특한 체계로 설명한다. 이와 같은 ‘장소’를 마케팅에서 접근하면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와는 다른 몇 가지 특성을 띠게 되는 데 이를 테면, 목표 고객에 따라 다양한 판매 주체가 존재하며 소비자 또한 개인 수준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장소의 범주 내에는 다양한 상품이 혼재하며 때로 공급자와 소비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이르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장소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정체성(identity)수준에서 논의되는 데 장소 마케팅을 깊이 있게 다루는 영역에서는 이를 다시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가까이 있고 접근할 수 있어서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경험되거나 반대로 접근이 불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안감으로서의 ‘장소에착(place attachment)’의 정도(Guiliani,1991)나 공간구조와 지형패턴 혹은 자연조건과 같은 특수한 성격이나 특질에 관한 ‘장소 정신

(spirit of place)'으로서의 장소령(최창조,1990) 그 밖에 특정한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적인 애착과 자기 동일화를 의미하며 장소정신과 상호작용 하는 장소감(sense of place)' 그리고 이것들이 총화되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장소성(placelines)'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장소성의 형상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장소성의 형성과정



출처: 장소마케팅(이진희), p. 38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제까지 지역을 마케팅 하기 위한 마케팅 노력은 주로 브랜드 고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치중해 왔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장소성은 해당 지역의 각 개인이 갖는 장소 애착에서 비롯된 장소감과 다른 지역과 같거나 혹은 다른 정체성이 갖는 지역 구성원의 장소정신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이는 브랜드가 갖는 정체성보다 깊이 있는 상위의 개념으로 지역 브랜드에 대한 철학적, 사상적 기저를 제공한다. 향후 장소마케팅PR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위해서는 이러한 장소성의 형성과정에 대한 장소감이나 장소정신에 대한 개인적 혹은 집단적 분석을 기초로 해서 장소애착과 상호작용하는 장소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이러한 철학적 토대 위에 마케팅 혹은 마케팅PR을 전개해 감으로서 내부의 핵심 역량(core competency)을 강화하고 외부의 경쟁 지역들과의 사이에서 차별적 우위를 장악해 갈 수 있을 것이다.

2) 다차원적 접근 시각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상관없이 모든 마케팅이 전략적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1) 달성 가능한 목표(Attainable Object), 2) 실행 가능한 방법(Actionable Method) 그리고 3) 측정 가능한 결과(Measurable Result)를 담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달성 가능한 목표란 너무 높지도 혹은 낮지도 않은 적정 수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그 결과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계량화 또는 계수화 되었는가에 대한 요구다. 이러한 측정 가능한 목표 수립과 관련해서는 국제행사라는 상품의 특성상 그리고 그 주체(marketer)가 비영리의 정부 조직이라는 한계로 인해 일반 사기업에서처럼 그 투자 대 환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철저히 계량화 할 수는 없다 손 치더라도, 분야별, 항목별 그러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모두에 인용한 APEC 대비 부산시

홍보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최 상위 목표나 하위의 3개 목표 모두가 계량적 제시를 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본 연구자가 이번 부산 APEC 결과에 대한 성공적 평가에 대해서 그 것이 실패라는 반박이 아니라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성공’적 평가를 내리는 가에 대한 지적이다. 이러한 목표의 결여는 결과 분석을 어렵게 할뿐더러 이후 업무 개선의 장애가 된다. 이를테면 APEC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다룬 각종 보고서의 차이점을 규명하거나 조율할 장치를 결여한다.(황영우,2004)(이경훈,2004)

목표의 포괄적 수립은 구체적인 실행방향을 제시하는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서의 전략 부재로 이어진다. 홍보마스터 플랜이 담고 있는 기본목표 하위의 전략 단계라 할 수 있는 기본방향에는 ‘시너지 효과 창출’, ‘연계성 제고 및 차별성 확보를 동시 추구’, 복합화, 다차원화로 성과 극대화’ 등의 풍성한 언어의 잔치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에 옮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하다. 결국 이러한 언어 유희적 전략은 지엽적인 전술 곧 다양한 이벤트만을 양산하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개별화 된 전술조차도 계수화 되지 못했을 뿐더러 상호 연결성을 결여해 의도한 시너지 효과에서 멀어져 보인다는 점이다.

장소마케팅은 인문, 사회, 자연 과학의 총합이다. 산업적 측면에서의 투자 유치나 교역 증대, 자연 환경을 토대로 하는 관광 그리고 문화적 교류 증대라는 각각의 범주에서 목표를 계수화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전략적 선택으로 좁혀가되 이들 각각이 한 목소리(One voice, One look)를 낼 수 있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통합적 관리와 운영에서 지역의 전 구성원이 재정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IMC(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발상과 접근이 필요하다(Schultz & Schultz,2004). 아울러 이와 같은 IMC 시각을 도입하되 이제까지의 4P나 혹은 4C와 같은 공급

이나 수요 일방의 관점이 아닌 정보사회의 네트워크 환경에 맞는 공급(supply chain)관점에서의 해법과 정보, 가치 및 접근을 찾는 SAIVA 개념을 담은 장소마케팅PR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와 전략 하에 실행된 장소마케팅의 결과는 계량화되고 가시화 됨으로써 96%의 수준으로 승용차 2부제의 불편함을 감수한 지역 구성원들이 낮은 민도 때문이 아닌 높은 마케팅 마인드로 성공을 체감하며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다. 목표시장으로서의 대상

1) 목표 타깃의 명료성

장소마케팅PR의 관점에서 부산 APEC의 대상은 누구인가? 부산시의 APEC 홍보 마스터플랜에는 ‘시민대상’ 혹은 ‘글로벌 홍보’ 이외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현재 입국한 외국인인 501만 명 그 가운데 71.8%가 관광 목적이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일상적인 부산 방문객과 APEC과 관련한 추가(예상) 방문객을 산업, 문화, 관광, 거주 등의 목적에 따라 국가별, 업종별로 세분화한 계량적 및 내용적 목표 수립이 선행되어야만 그 실행과정에 대한 점검과 목표 달성여부의 측정이 가능하다. APEC의 공식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부산이 여러 도시들과 함께 배너로 위치하는 데 이를 열고 들어가면 아무 곳과도 링크 되지 않은 채 불과 한 페이지로만 소개되고 있다. Kotler(1993) 등은 (1) 고객은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장소에 투자 혹은 선정하는가? (2) 그러한 의사결정과정의 과외 변수와 추가 고려요인은 무엇인가? (3) 장소에 대한 영향력 있는 집단의 평가는 어떠한가? 등의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대상(target)에 대한 준비를 조언한다. 이는 앞서 논의했듯이 이제 마케팅의 믹스는 4P에서 4C를 지나 SIVA라는 상호간의 정보와 가치 추구를 지향하고 있다. 공급 사슬

의 측면에서 이들 목표 대상이 필요로 하는 해법과 이러한 해법을 추구하기 위한 정보 수집 노력이나 절차 등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하는 장소마케팅PR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장소마케팅에 있어서는 동일한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매우 다양하고 때로 상충적이기 까지 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깊이 있는 장소성 분석에 기반한 다양한 대상별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테면 문화적 전통에 기반한 관광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분야와 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생산 기지로서의 마케팅 같은 경우, 한 장소를 주체로 하는 마케팅의 충돌을 야기시킬 수도 있음으로 이들 각각의 상충하는 목표대상에 대한 총론적 일치와 각론적 분리가 요구된다. 때로 이들의 부분적 융합 프로그램 개발도 시도해 볼만하다. 이번 APEC 주 회의장과 BEXCO, 해운대 바닷가 풍광과 숙박시설 등을 연계시킨 문화산업 분야의 국제 컨벤션 가능성이 그 한 예다.

2) 소비자 지향 관점의 누락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아무 것도 두렵지 않았다.”

600만 명이라는 전국 관객 동원과 함께 어떤 영화보다도 부산을 잘 표현했다는 영화 ‘친구’의 캐치 프레이즈다. 한편, 개방 진취적인 부산 시민의 기질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관광,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기차게 역동적으로 발전한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다이나믹 부산(Dynamic Busan)’이라는 슬로건은 부산시가 지난 2003년 시민공모를 통해 자문위원회와 내외국인 선호도 조사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Anholt(2003)에 따르면 국가 브랜딩의 제 1 규칙은 얻을 수 있는 것과 얻어야만 하는 것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지역 브랜딩 곧 은유적 상징(metaphor)을 위한 슬로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마케터가 내 세우는 브랜드의 정체성은 소비자의 브랜드 이미지에 우선할 수 없다. 일정 수준, 이미지를 정체성으

로 유도하려는 노력은 가능하지만 결코 정체성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연히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는 ‘수용자적 관점’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은 부산시가 브랜드 ‘부산’을 알리기 위한 슬로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이러한 객관적 시각을 반영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향후 브랜드 부산의 구체화 과정에서는 브랜드 이미지뿐만 아니라 개성, 기능, 문화 등 다원적 요소에 관한 즉, 연상 네트워크에 의한 정체성의 심화 노력이 요구된다. 나아가 바람직하게는 이 과정에 브랜드 주체로서의 대표성 있는 지역 주민과 관련 기관의 자기 시각과 더불어 부산을 바라보는 외부의 수용자적 관점의 반영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소비자 중심주의라는 명제는 구호에 그칠 뿐 마케팅 기획과정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고객이나 소비자의 영역은 비좁고 제한적이다. 장소마케팅PR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고객(target)을 파악하고 이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초 위에서 각 고객 집단의 문제점(solution)을 도출하고 그들의 정보(information) 추구나 충족 과정(access)을 추적하며 제공하려는 노력과 이를 위해 고객이 얻게 되는 동시에 지역이 확보할 수 있는 가치(value)를 추구함으로써 투자 대비 환수(ROI)의 최적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가진단과 전략적 접근은 부산으로 하여금 상하이나 시드니, 암스테르담과 뉴욕, 칸느 등을 동시에 쫓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위한 체크 리스트를 갖게 할 것이다

3. 마치면서

본 연구는 “부산은 왜 부산을 알리려 하는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단순한 물음을 한번 더 되새기면 “부산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알려서 어떤 혜택을 바라는가?”의 물음으로 지난

2005 APEC을 돌아 봄으로써 그 해답을 찾는 과정을 지역마케팅PR이라는 틀 안에서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제행사와 관련한 국가 혹은 지역 이미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하나같이 방향성립의 취약이나 전략적 기초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남인용,2003; 임경수.한종길,2003) 이는 결국 제한된 자원의 투입과 산출이라는 생산성 문제로 귀결되며 이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장소마케팅 혹은 장소 마케팅PR 개념의 도입을 불가피하게 한다.

장소마케팅PR이란 단순한 도시 선전주의(City Boosterism)이나 이미지 작업(City Identity)을 넘어서는 포괄적이며 전략적 개념이다. 이제까지처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 관점에서 인간을 그 수혜의 대상으로 그리고 자연을 그 이용의 목표물로 삼는 서구 자본주의의 사고를 극복하고 인간과 사회와 자연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환경을 넘어 선 생명운동으로서의 승화된 시각이 필요하다(김지하,2005). 이렇듯 지금까지 마케팅이 추구해 온 장소에 대한 단순한 '마케팅'의 적용을 넘어 장소의 정신과 장소감이 주는 장소성이라는 철학적 개념에서 출발할 것을 제안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다이나믹 부산'이라는 후발의 표면적 슬로건이 국제 경쟁에서 내면의 차별적 핵심역량으로 무장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 목적을 위해 구성한 '장소마케팅PR'의 관점에서 부산 APEC을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주최자의 관점에서 국가적인 행사로서의 중앙정부와 개최지로서의 지자체 간의 정확한 역할분담의 모호함이다. 짧은 지방분권화의 연륜이나 기타 정치, 경제적 고려요인 등으로 인해 그 한계가 명확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사전에 그 한계설정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이러한 토대 위에 장소마케팅의 관점에서 장소정신과 장소감의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장소성에 의한 주최 지역의 브랜드 고지를 위한 정체성(identity)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그 동안 부산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작업들이 있어왔지만 매우 산발적이거나 한시적인 감이 없지 않다. 이는 철학적, 역사적 논의를 결핍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바탕으로 주체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철저한 장소마케팅 및 장소마케팅PR의 전략적 수용이 요구된다. 본문에서도 논의했듯이 마케팅이란 적어도 달성 가능한 목표와 실행 가능한 방법 그리고 측정 가능한 결과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부산 APEC이 설정한 기본목표- Global 홍보강화와 투자유치 경제성장 가시화, 시민참여와 Boom조성,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시대의 선도적 도시화는 슬로건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달성 여부를 규명할 계수도, 실행에 옮길 구체적인 방법론도 결여하고 있다. 당연히 그 결과의 성패 여부를 규명할 잣대를 결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전략적 마인드의 부재는 목표 대상의 모호로 나타난다. 타깃을 국내(inbound)와 해외(outbound)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Griffith(1995))가 주장하듯 산업육성이나 주민통합 혹은 이미지 제고 등의 하위 목표를 설정하여 각각에 맞는 문화의 상업적 혹은 예술적 관점을 지향하는 등의 단계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주체와 상황 및 전략적 접근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으로는 대개 전담부서나 인원의 확충, 전문 자문위원의 배치, 예산의 증액 등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러한 제시가 실질적으로 행정이나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실증적이며 연속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한다. 이에 연구자는 말미에 다음의 가칭 ‘장소 마케팅 품평회 (Place Marketing Audit)의 적용을 제안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론과 제안에 대신하고자 한다.

장소 마케팅 품평회 (Place Marketing Audit: PMA) 제안

2005년 현재 전국 235개 지자체가 투자 설명회, 특산물 축제 등의

지역 행사를 기획,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도 연간 30여 회의 국제 전시 컨벤션 행사를 비롯해서 영화제나 비엔날레, 락 페스티벌 등의 국제 행사와 더불어 자갈치, 기장멸치, 불꽃축제를 비롯 각 지역별로 다양한 장소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들 가운데 몇몇 지역에서는 지역 PR을 통한 투자유치나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곳도 있지만 상당수가 전략의 부재로 인한 국고 또는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심지어는 지난 10월 상주 자전거 축제와 같이 안전부재의 위험에 노출돼있는 상황이다. 행정자치부나 감사원 등은 이들에 대한 행정지도나 예산 감사에 치중할 뿐 마케팅과 PR 측면에서의 평가나 권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얼마 전부터 한국 생산성본부나 한국 능률협회 혹은 몇몇 대기업 부설의 경제 연구소 등이 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만족지수(Customer Satisfaction Index: CSI)조사가 실시되고는 있으나 이들은 지나치게 상업적이며 홍보 효과에만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장소마케팅 활동을 하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적절한 평가 및 시상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거나 혹은 이러한 전문 기관에 평가를 의뢰함으로써 보다 전략적이며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근자에 사단법인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가 주로 부산시 산하의 축제 행사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컨벤션과 축제 혹은 지리, 사회, 문화적 영역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평가 기준과 방법,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전문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기능은 감리 감독보다는 촉진 권장에 의미가 있는 만큼 행정 부처나 공공기관보다는 외부의 전문 연구기관이나 학술단체 등에 의뢰하는 것도 평가에 대한 공신력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1단계로는 부산시 산하 혹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 ‘장소 마케팅 품평회’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 나아가 해외 교포 지역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장소마케팅 활동의 영역을 투자 유치나

전시 컨벤션 혹은 관광이나 지역홍보를 위한 지역 축제 등의 분야로 구분해서 평가 프로그램을 적용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활동이 중앙 부처의 행정지도나 감사 활동과 엄격히 구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측면에서의 고려가 요구된다. 첫 번째는 이를 전담할 조직이나 구성 및 예산 등이 주관 혹은 평가 지자체로부터의 독립성의 보장이며 두 번째는 전문성의 확보이다. 특히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목표 대상을 중심으로 내부로부터 지역 구성원들의 참여, 외부로부터 지역에 대한 인지도나 선호도 증가 및 투자 환경, 경제 가치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분야별로 해외의 사례나 관련 기관들의 평가 기준 등을 분석, 우리나라 혹은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이를 전담할 부서나 인력 그리고 이를 자문할 외부 전문가 집단 등이 상호 연속성을 갖고 정보 교류나 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부산의 장소마케팅 및 장소 마케팅PR을 전략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장소마케팅PR을 위한 명실상부한 기획그룹의 주체로서의 지역주민의 참여다. 미국과 같은 마케팅 선진국에서는 근자에 들어서 인터널 마케팅(Internal marketing)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는 마케팅의 원리를 직원들에게 접목하는 개념으로 Ahmed(2002) 등은 “직원 만족 없이는 결코 고객만족이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이를 장소마케팅으로 환원하면 ‘지역민의 만족 혹은 지역민들에 대한 만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일본 요네자와 번의 영주 우네스기 요잔(2002)의 ‘불꽃’의 사례에서 보듯이, 장소마케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구성원들의 만족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한때 내부고객만족이라는 용어가 소개된 바 있다. 2차 고객인 최종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1차 고객인 내부 종업원의 만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당시만해도 시장에서의 주도권이 완전히 소비자에게 넘어가지 않은 상태여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기업들의 일

시적인 캠페인으로 그치고 말았다.

오늘날 인터넷의 구현은 필요한 모든 1차 정보를 마우스(word of mouse)를 통해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의사결정에 필요한 2차 정보는 점점 더 구전(word of mouth)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가고 있다.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고객관계경영(CRM)이 그 대표적인 예다. 그리고 이러한 구전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은 바로 직원(또는 지역 주민)들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이유로 해서 내부고객 만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장소마케팅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을 포함한 내부 구성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서 지적한 다양한 노력들이 외부에 대한(outbound) 전략, 전술이라면 이는 내부를 향한(inbound) 것들이다. 장소 마케팅 품평회에 참여하는 해당 지역들은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지역의 마케팅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 과정에서 지역 구성원들의 일치도(컨센서스)와 소속감(충성도)을 축적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인터널 마케팅을 기반으로 하는 성공적인 장소마케팅PR 목표를 달성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지하(2005), “생명과 평화의길”, 문학과지성사
- 공자원, 노시학(1999), “장소마케팅의 등장배경, 개념 및 유형에 관한 고찰”,
관광지리학, 제11호
- 남인용(2003), “주요 국제행사 관련 국가이미지 개선전략”, 홍보학 연구 7-
호
- 도몬 후유지 저/안춘식 역(2002), “우에스기 요잔의 인간경영”, 지식여행
- 박기철(2005), “박교수의 마케팅 특강”, 을유문화사
- 부산광역시(2004), “APEC 홍보컨설팅 용역 최종 보고서”
- 부산발전연구원(2004), “부산의 세계도시 브랜드마케팅 개발전략”, 도시환
경연구부
- 신혜란(1998), “태백, 부산, 광주의 장소마케팅 전략형성 과정에 대한 비교연
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의익(1995), “지방화시대 농어촌 지역개발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지리
학논총, 제26호
- 이경훈(2004), “2005APEC전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와 기대효과,
부산광역시 APEC준비단장
- 이진희(2003), “장소마케팅”, 대영사,
- 인포마스터(2004), “APEC대비 부산시 홍보마스터플랜 요약”
- 임경수, 한종길(2003),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브랜드 개발전략”, 도시
행정학보 16집 3호
- 최창조(1990),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할인가?”, 서해문집
- 한진수(2004), “꿈의 공장을 읽고” 서강대 알바트로스 가을호
- 황영우(2004), “APEC 부산개최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부산발
전연구원
- Ahmed, P. & Rafiq, M. (2002), “Internal Marketing”, BH

- Anholt,S.(2003),“국가브랜드, 국가 이미지”, 김유경역, 커뮤니케이션 북스
- Den,C. & Schultz,D.(2004),“A New Marketing Mix”, ARF Conference 발표, NY
- Griffith,R.(1995),“Cultural Strategies and New Mode of Urban Intervention”, Cities, Vo.24, No.4, pp.253-265
- Harris,T.(1991),“The Marketer’s Guide to Public Relations”, John Wiley & Sons, Inc.
- Kotler,P., Heider,D. & Rein,I.(1993),“Marketing Places”, The Free Press
- Philo,C. and Kearns,G.(1993),“Cultural, History, Capital: A Critical Introduction to the Selling of Place”
- Schultz, D.& Schultz,H.(2004),“IMC-The Next Generation”, McGraw-Hill

<http://www.apec2005.org>

<http://www.busancvb.org>

주제어 : 장소마케팅, MPR, 장소마케팅PR, 부산APEC,
지역이미지, 지역브랜드,

Translation and English Education : Korean Culture and Research Evidence

Robert Palmer*

Introduction

It is likely that there are very few English teachers who have not developed an individualized approach to the use of the L1 (the mother language of the students). Despite the prevalence of L1 use,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L and L1 use in the literature on instructed adult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evine, 2003,p. 343). Basically, there are two opposing positions on L1 use. Krashen and Terrill (1983) stated that the natural approach is "based on the use of the language in communicative situations without recourse to the use of the native language" (p. 9). The word "recourse" indicates the stigma attached to the use of the L1 in communicative

* 동의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foreign language classrooms. And this view of L1 use is also evident in a lot of the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iterature, especially studies dealing with input and interaction (e.g., Brooks, 1990; Ellis, 1999; Gass, 1997; Johnson, 1995). And this seems to be the prevalent view. However, there are other researchers that take an opposing view, such as Auerbach (1993), Cook (1999, 2001), Nation (1997), and Storch and Wigglesworth (2003), and argue that the L1 is a useful tool to be utilized to more quickly and efficiently develop the students' linguistic skills. Levine (2003) claims that "both sides of this debate often base their assumptions and arguments largely on intuitions about best practices, anecdotal evidence, and personal classroom experience" (p. 34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ddress this issue raised by Levine by first discussing the Korean cultural attitude to the use of Korean in English education, and then, by presenting my own research findings from a number of previously published studies to show the benefits of including Korean in the actual study materials and textbooks.

The Korean culture towards translation in English classes.

In Korea the attitude seems to be a conundrum. On the one hand, the use of liberal oral translation by the teacher is considered perfectly acceptable. On the other hand, the use of Korean in the actual textbooks and study materials seems to be greatly frowned upon. For example, when I first submitted the paper "Comparing Self Instruction Material with the Standard Form of Reading Instruction in Korea" (Palmer, 2003a) (in which I reported the results on a study showing that those who received a printed translation and study by themselves significantly outperformed those who received an oral translation from the teacher), one reviewer stated that I had missed the whole purpose of English education. He did not state exactly what that was but I assume that the purpose is to get students away from thinking in Korean. He recommended that my paper be rejected with no opportunity for resubmission. This particular paper was rejected two times by a variety of conflicting reasons given by the reviewers and only just made it in on the final submission. Another paper, "A Study of University

Conversation I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Tasks" (Palmer, 2005a), (in which I reported the results of a study showing that those who studied with Korean in the material significantly outperformed those who studied using an English only textbook) was rejected three times by two different Korea-based journals, again for a host of confusing and conflicting reasons by the reviewers. Moreover, most reviewers rejected my use of translation tests, labeling it as invalid despite the fact that other people who had submitted to exactly the same journal had used the exact same type of evaluation (e.g., Lee, 2002).

Whereas, another paper, "the effects of schemata activation and L2 glossing on reading comprehension" (Palmer, 2004) was warmly and enthusiastically accepted by the reviewers. This paper showed that those studying with L2 glosses (written explanations English of various words and phrases in the text) significantly outperformed those who received an oral overview of the passage in English before starting to read. The point is that this paper made no mention of the use of the L1, and was strangely warmly received compared to the opposition that the other two papers received.

One Korean female academic in the field of ESL upon

hearing my views looked at me in shock and stated, “You can’t say that.” Another time when I presented a paper at the 2003 KATE winter conference on the effective use of L2 glosses (printed English explanations) the Korean audience was very excited, but when I showed how using L1 glosses (translations) is even more effective, they were shocked that I would say such a thing. Another time I presented a paper (at a regional KATE conference in Changwon in 2003) based on some results of my dissertation (Palmer, 2003b) showing that those who studied with L1 glosses (printed translations of words and phrases) significantly outperformed those who received an oral translation from the teacher. The verbal opposition and disapproval was significant. The general consensus was that, despite the evidence, using L1 glosses made the students lazy. At the same time no one condemned the idea of providing oral translations to the students.

Furthermore, in all the middle school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used in schools not one word of Korean is provided despite the fact that all middle school high school textbooks have editions that have an extensive amount of Korean in them. Also, almost no university level conversation and reading textbooks have Korean in them.

Therefore, what I seek to show from reviewing my studies on this issue in this paper is that providing Korean in the materials seems to have real benefits and is an idea that should be considered.

Research

Study 1

The first study that I would like to present here (Palmer, 2003) investigated the effectiveness of two alternatives to the standard method of English reading instruction provided by Korean teachers, the standard method being this: the teachers provide a complete verbal translation of the passage, along with various other relevant explanations. In this study the standard method of reading instruction provided by a Korean instructor constituted one of the conditions ($n = 28$). Two other conditions constituted the alternatives to this method. One of these involved the students ($n = 28$) studying by themselves with L1 glosses (translations of words and phrases). The handouts for the L1 gloss subjects included the target passage along with 103 glosses, one gloss for

every 4.2 words. Another condition involved students studying with a handout that had a printed Korean translation of the passage. Each English paragraph in handout had the Korean translation directly under it along with each clause being numbered to make the translation easier to find.

There were also two different types of control groups. One control group simply read the target passage with no translation help at all ($n = 39$), and the other control group read a Korean translation of the passage with no English ($n = 35$). The reason for the second (Korean only) control group was that if the Korean-only control group did similarly on the test as those students who read the English target passage with a complete printed translation, it would indicate that this experimental group (studying the target passage with the complete translation) simply focused on the Korean section of the material without really understanding the target passage in order to do well. It would also indicate that those who studied in the standard way did well by simply remembering the oral Korean translation given by the teacher and not by understanding the actual English passage.

Another problem that had to be overcome was the issue

of evaluation. Usually multiple choice tests and written recall protocols (whereby students write down everything that they can remember about the passage usually in their own language) are used to test comprehension. But such tests would only test the students' recall of any translation they received and not their understanding of the actual English. Hence a sentence completion test based on the English reading passage was used. However, the students filled in the blanks in Korean (see Appendix 1). Korean was used to fill in the blanks and not English to avoid any writing skill interference, because this was a test of comprehension and not writing ability. Therefore, writing in English would provide a more accurate evaluation of their true comprehension. This is supported by Donin and Silva (1993) who found a significant language production effect ($p < .01$) with greater propositional recall of an L2 passage when they were allowed to produce in the L1. In addition to this, Wolf (1993) also found that students doing reading comprehension tests written in the L1 outperformed those doing the same tests written in the L2, showing that the L1 test takers could demonstrate to a greater extent their knowledge of the target passages. Also, Wolf compared multiple-choice items with fill in the

blanks items. She found that students scored higher on the multiple-choice items than on the fill in the blanks items. She postulates that this was because the multiple-choice questions provided retrieval cues, unlike the fill in the blanks items.

Also as part of my pretesting, I conducted a correlation study with one class of Engineering majors ($n = 24$). After reading the pretest passage, they were asked to write recall protocols. After finishing their recall protocols, they were given the fill-in-the-blanks tests.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was found to be .832, $p = .001$.

The pretest and posttest passages (242 and 433 words) were from the same chapter in their textbook. The pretest involved everyone reading the passage with no translation and then doing the pretest, a fill in the blanks tests. One week later each of the five conditions received their respective handouts and studied them for 17 minutes, after which came the posttest. Following that, I asked the printed translation students to indicate which parts of the printed translation they had actually used while reading.

Results of the ANCOVA revealed that the printed translation condition significantly outperformed all others

(score: 22 points out of 40). The standard reading instruction condition (15.4 points) and gloss condition (16.9 points) were very similar and significantly outperformed both of the control groups (English only: 11.9, Korean only: 9.8) (see Table 1 below). It is important to note of how poorly those who read the Korean only handouts did. Furthermore, the printed translation students, on average, only used 32% of the translation, thus indicating that they spent far more time reading the English passage and not the translation. Only one student read all of the printed translation.

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Study 1.

Condition	N	Adjusted Mean*	Actual Mean	SD
Control	39	11.94	13.21	6.35
Standard reading instruction	28	15.41	14.77	6.26
L1 glossing	28	16.94	15.49	8.84
Complete printed translation	26	21.99	21.28	8.98
Korean only	35	9.77	10.56	6.42
Total	156		14.65	8.01

***Note.** Based on the pretest scores as covariate. Max score: 40.

Study 2

The second study (Palmer, 2003b) involved 230 college freshman under five conditions; (1) L1 glosses (translations of words and phrases) ($n = 48$), (2) L2 glosses, which were explanations English of the same words and phrases as in the L1 gloss condition ($n = 53$), (3) traditional reading instruction, which involved two classes getting instruction from Korean instructors who provided a verbal translation of the passage ($n = 44$), (4) English only instruction, under which I used diagrams, lists, maps, and verbal explanations to set up the passage before they began reading ($n = 38$), and finally (5) the control, under which the students simply read the target passage with no translation help whatsoever. Under the English only instruction condition, I spoke about the structure of the passage for about three minutes, and then for the remaining seven minutes I went over the details of the passage. Then the students read the passage by themselves for fifteen minutes, thus spending a total of 25 minutes on task. All the other conditions spent 20 minutes on task.

Both the pretest and posttest passages (251 and 384

words) were from the textbook and of similar difficulty. The handouts for the L1 gloss condition (word and phrase translations) and L2 gloss conditions (printed English explanations) each had a total of 93 glosses, one per 4.13 words, along with the target passage.

The comprehension measure used was the written recall i.e., the students wrote as much as they could remember about the passage in Korean with one point awarded for every idea unit correctly recalled, which is the most common way of evaluating a written recall. The ANCOVA results revealed that the L1 gloss condition significantly outperformed all the other conditions (score: 21.5 points). The traditional instruction (17.8 points) and L2 gloss (16.9 points) conditions showed similar results and significantly outperformed the English only instruction condition (12.8 points) and the control (11.8 points), which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See Table 2 below.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for Study 2.

Condition	N	*Mean	SD
Control	47	11.784 (12.027)	6.220

L1 glossing	48	21.544 (21.276)	7.700
L2 glossing	53	16.917 (16.741)	6.846
Traditional	44	17.835 (18.034)	6.380
English-only instruction	38	12.841 (12.895)	5.426

***Note.** The numbers outside the parentheses indicate adjusted means, with the pretest scores as the covariate, and the numbers inside the parentheses indicate the actual means. Max score: 108 idea units.

Study 3

The third study, part of my dissertation (Palmer, 2003b), involved 20 first-year engineering students each reading two passages (384 and 322 words) on two different occasions individually in my office. Each occasion was followed by a post passage test and then a stimulated recall interview in which I explored how they used the glosses to understand the passage. Ten of them read the first passage with L1 glosses (translations of words) and the other ten read with L2 glosses (English explanations). Following that, the condition was reversed whereby those who had read the first passage with L1 glosses then read the second passage with L2 glosses and vice versa. I

discovered that they found 30% of the L2 glosses that they used incomprehensible (134). Amazingly, in 50% (68) of these despite there being no unknown words, they still could not understand the gloss. They were, however, able to get 60% (40) of these later during the stimulated recall interview when given enough time. In 21 instances they misread a key word in the gloss but failed to realize their mistake, such as in the case of reading "crush" as "crash." In a further 16 instances, they ascribed the wrong meaning to a word of multiple meanings, such as in the case of "certain" thinking that it meant the "certain" in "a certain man" rather than "definite." In 48 instances the students could understand the L2 gloss but could not give a concise translation in Korean but rather a Korean paraphrase of the L2 gloss, showing that despite a degree of comprehension, the meaning that they got from the gloss was unwieldy and thus probably difficult to remember. And on the two post passage tests, the L1 gloss condition significantly outperformed the L2 gloss condition each time. This demonstrates that low-level students, despite at least six years of English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cannot learn very much at all from all English materials, even when those English materials are written in a

simplified manner.

Study 4

The fourth study examined effectiveness of the communicative approach as embodied in the textbook "Interchange" (N = 288). In this study four first-year conversation classes, each taught by their regular foreign instructor in the usual way using the "Interchange" textbook (n = 85) were compared with students working with the same "Interchange" material (focused on present continuous usage compared with the simple present) under five other conditions; (1) students working in pairs (n = 60), and (2) students working individually (n = 37), on specially devised tasks which I call "reconstruction" tasks (see appendix), (3) students studying with a translation of the textbook (n = 32) , (4) students writing a Korean translation of the textbook passage (n = 42) , and (5) students simply reading the textbook passage (the control) (n = 32). The pretest (about one-week before), immediate posttest and four-week delay test involved the translation of 20 Korean sentences (similar to the textbook sentences) into

English. Two evaluations, with two raters on a four point scale, were carried out on each test; one on how well the students dealt with the form of the verb (the lesson focus) and the other on how well the students communicated the sentence's intent.

To test to see how closely the students' written form correlated with their spoken grammar I had one class of English majors ($n = 26$), who did not take part in the study, do the written test and then I had them one by one come to my office from 5 to 7 days later and do the same test orally. Their responses were recorded on tape and later transcribed and evaluated. No false starts were evaluated but only their final unprompted sentence production. The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was found to be .874, showing a fairly high correlation. This can be taken as indicating that the written tests were a good approximation of the students' spoken grammar.

As for procedure, the foreign instructors generally followed the same pattern starting with a brief grammatical overview of the lesson followed by the students working in pairs on the activities and verbally communicating. The students working on the

reconstruction tasks in pairs received one booklet per pair. They first studied one section which had English on one side and Korean on the other, following which they turned to the back section of the booklet and did the reconstruction task for that section together (see Appendix 2). The other "reconstruction task" students did this individually.

On both the immediate and four-week delayed posttests the "reconstruction" task students, under both pair and individual conditions, significantly outperformed the control group and those who studied under an instructor on both communicative effect and verb form evaluations. Those who studied under an instructor generally failed to outperform the control students. The best class under an instructor significantly outperformed the control groups only on the immediate posttests. Those who studied the textbook with a translation also significantly outperformed the instructors' students on all evaluations. Those who wrote a translation of the textbook significantly outperformed the instructors' students only on the communicative effect evaluation, not on the verb form evaluation. See Table 3 below.

Table 3.

Means of the Communicative Effect and the Verb Form Evaluations.

(1)	N	*Communi- cat. effect -posttest	*Communi- cat. effect -Delayed (4 wk)	*Verb form -Immediate posttest	*Verb form -Delayed (4 wk)
1	85	29.27	23.75	28.20	18.07
2	26	34.41	24.20	39.59	19.47
3	60	40.92	30.82	43.17	27.52
4	37	40.11	29.98	41.95	24.31
5	32	37.87	27.24	36.36	22.24
6	42	36.12	29.62	31.02	21.31
7	32	26.63	23.85	24.76	17.66

***Note.** (1) Description of conditions: 1. The total of all those who studied in the conventional communicative way. 2. The best performing conventional class. 3. Those who worked on the reconstruction tasks in pairs. 4. Those who worked on the reconstruction tasks individually.

5. Those who studied the text with a translation. 6. Those who wrote a translation for the text.

7. Those who only looked at the textbook.

*Adjusted means according pretest scores analyzed with an ANCOVA. Maximum score: 80.

Study 5

In the following study, on reading and vocabulary development (Palmer, 2005), 53 students (44 English

major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electronic dictionaries, glosses and control). For the vocabulary pretest, the students were asked to translate the list of 31 words from the passage into Korean. The words were in sentences that provided context. Next, for the reading comprehension pretest, the students read the target passage (355 words and a grade level of 10.3) with no glosses or dictionary use and translate it into Korean. The passage was divided up into 26 idea units worth one point each if correctly recalled. Half-points could also be awarded. The passage was slightly altered to provide enough context to make it possible for most of the target words to be guessed. Two raters evaluated the tests and discussed major differences. Usually, for studies like this, a written recall is required whereby the students put aside the reading passage and write as much as they can remember in their L1, but Rashkovsky (1999) points out that a weakness with written recalls is that something can be comprehended but not remembered. And Lomicka (1998), citing important sources, used a spoken translation to evaluate reading comprehension. Furthermore, Elinor (1997) foun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subjects' performance" when comparing oral translation

with conventional comprehension tests but the translation scores were "significantly and consistently higher than the test scores" (p. 13) thus revealing more comprehension than the conventional tests showed.

One week after the pretest, each student read the passage again under his/her assigned condition for seven minutes, but were not required to do any evaluation after reading. The students were exposed to the passage in this way five times during the semester always under the same condition with about 10 days between each reading. The idea was to mimic an extensive reading situation under which students receive repeated exposures to words and phrases, and decipher unknown items through context. Three weeks after reading the passage for the last time, they did the posttest which was exactly the same as the pretest. Others, such as Fotos and Ellis (1991), Fotos (1994) and Lee (2002) have all done the same thing, which was accepted by the editorial review boards of TESOL Quarterly and English Teaching.

The ANCOVA of the reading comprehension scores revealed that the gloss condition significantly outperformed both the control by 5.88 points (43.5% higher, $p < .001$) and the electronic dictionary condition by 3.59 points

(22.7% higher, $p = .002$). The electronic dictionary condition also outperformed the control by 2.29 points (14.5% higher, $p = .040$). The ANCOVA of the vocabulary scores revealed that the gloss condition significantly outperformed the control by 4.66 points (29% higher, $p < .001$) but did not significantly outperform the electronic dictionary condition. The gloss group score was 1.88 points higher (10%, $p = .057$). The electronic dictionary condition also significantly outperformed the control by 2.70 points (16.8% higher, $p = .008$). See Table 4 below. Interestingly,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control group's vocabulary gain (23.1%) (pretest score: 15.24; actual posttest score: 18.75) was very similar to the gain in content words (23.9%) reported by Paribakht and Wesche (1997) in their extensive reading study (pretest score: 48.9; posttest score: 60.6) (p.188), thus indicating a degree of validity to this study.

TABLE 4.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for Study 5.

Condition	N	comprehension Means* (SD)	Vocabulary Means*(SD)
Control	20	13.507 (3.68)	16.073 (4.87)
Glosses	21	19.385 (5.38)	20.731 (6.12)

Electronic Dict	12	15.795 (3.90)	18.850 (4.17)
Total	53		

***Note.** Adjusted based on the pretest scores.

Comprehension max score: 26. Vocab max score:31

Conclusion

Results of the first study indicate that those who studied with a complete printed translation showed a much deeper understanding of the English than those who studied from a teacher providing an oral translation. Results of the second study back up those of the first study by showing that those who studied with printed translation help significantly outperformed those who received a complete oral translation even though the evaluation measure was a written recall thus favoring those who received a complete oral translation. The third study showed the problems and lack of learning that low-level students exhibit with all English materials, even materials designed to help them understand. The fourth study shows how Korean in the materials can promote the acquisition of important grammar features needed for effective communication. And finally,

both the fourth and fifth studies indicate that the learning gain through printed translation is not just immediate short-term, but rather leads to significant gains in learning over several weeks. Based on these results I feel that it would be beneficial to English education if the local education culture were to change and allow the use of printed translations in textbooks. The rationale for Korean teachers to provide oral translations would be greatly reduced, and thus it would prompt them to speak more in English because they would not have the fear that the students did not understand the passage.

Bibliography

- Auerbach, E.R. (1993). We can English at only in the ESL classroom. *TESOL Quarterly*, 8, 2-5.
- Brooks, F.B. (1990). Foreign language learning: a social interaction perspective. In B. VanPatten & J.F. Lee (Eds.), *Second language acquisition/foreign language learning* (pp. 153-169). Clevendon, UK: Multilingual Matters.
- Cook, V. (1999). Going beyond the native speaker in language teaching. *TESOL Quarterly*, 33, 185-209.
- Donin, J., & Silva, M.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first- and second- language reading comprehension. *Language Learning*, 43, 373-401.
- Elinor, S. (1997). Reading Native and Foreign Language Texts and Tests: The Case of Arabic and Hebrew Native Speakers Reading L1 and English FL Texts and Tests. *ED412746*.
- Ellis, R. (1999). *Learning a second language through interac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 Fotos, S. (1994). Integrating grammar instruction and communicative language use through grammar consciousness-raising tasks. *TESOL Quarterly*, 28,

323-352.

- Fotos, S. & Ellis, R. (1991). Communicating about grammar: A task-based approach. *TESOL Quarterly*, 25, 605-628.
- Gass, S.M. (1997). *Input, interaction, and the second language learner*. Mahwah, NJ: Earlbaum.
- Johnson, K.E. (1999). *Understanding communication in second language classroo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rashen, S., & Terrell, T.D. (1983). *The natural approach*. Oxford, UK: Pergamon.
- Lee, H. (2002). Communicative output as a mode of focus on form. *English Teaching*, 57, 171-192.
- Levine, G. (2003). Student and instructor beliefs and attitudes about target language use, first language use, and anxiety. *Modern Language Journal*, 87, 344-364.
- Lomicka, L. (1998). "Two glossed or not to gloss": An investigation of reading comprehension online.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1, 41-50.
- Nation, P. (1997). L1 and L2 used in the classroom: A systematic approach. *TESL Reporter*, 30, 19-27.

- Palmer, R. (2003a). Comparing self-instruction material with the standard form of reading instruction in Korea. *English Teaching*, 58, 185-204.
- _____. (2003b). A comparison of the effect of glossed self-instruction reading materials and traditional teacher fronted instruction.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03). *UMI 3078586*.
- _____. (2004). The effects of schemata activation and L2 glossing on reading comprehension. *English Language Teaching*, 16, 49-71.
- _____. (2005a). A study of university conversation i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tasks. *English Language Teaching*, 17, 57-82.
- _____. (2005b). The effectiveness of electronic dictionaries and glosses. Paper presented at the 13th Korea TESOL International Conference – "From concept to context: Trends and challenges" held on October 15-16, 2005.
- Storch, N., & Wigglesworth, G. (2003). Is There a Role for the Use of the L1 in an L2 Setting? *TESOL Quarterly*, 37 (4), 760-770.
- Paribakht, T. & Wesche, M. (1997). Vocabulary

enhancement activities and reading for meaning in second language vocabulary acquisition. In J. Coady & T. Huckin (Eds.), *Second Language Vocabulary Acquisition* (pp. 174-200).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Rashkovsky, A. (1999). The foreign language glossed reader: authentic literary text as comprehensible input.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nnessee, Knoxville, 1999) *UMI 9944283*.

Wolf, D. (1993). A comparison of assessment tasks used to measure reading comprehension. *Modern Language Journal*, 77, 473-89.

Appendices

Appendix 1

Part of a fill-in-the-blanks test

The two religions that originated _____ -(여기서 어떤 종교를 얘기하는지 쓰세요)- _____ - believe that

_____.

Each life is spent in _____. After we "die" _____, we will be born again _____. This belief is often called

_____.

Many of those who believe in _____ believe that we were not

_____.

Appendix 2

Examples of reconstruction tasks

<u>Section 1 exercise</u> 1. ___ you liv ___ ___ home now? 2. No, I'm ___ living ___ home now. 3. ___ she still work ___ ___ Seattle? 4. No, she ___ work ___ ___ Seattle. 5. ___ they go ___ ___ (“a” 쓰지 마세요.) college ___ ___. 6. No, they ___ go ___ ___ college ___ year.	<u>제1부분</u> 1. 당신은 지금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2. 저는 지금 당장 집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3. 그녀는 아직도 시애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4. 그녀는 시애틀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그들은 올해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6. 그들은 올해 대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u>Section 2 exercise</u> 1. Where ___ you work ___ ___ month? 2. I' work ___ ___ Japan. 3. What ___ she do ___ ___ s. 4. She ___ teach ___ ___ university. 5. W ___ they visit ___ ___ week. 6. They ___ visit ___ their parents ___ week.	<u>제2부분</u> 1. 당신은 이번 달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2. 저는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3. 그녀는 요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 그녀는 어떤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5. 그들은 이번 주 누구를 방문하고 있습니까? 6. 그들은 그들의 부모님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culture in Korea concerning the use of translation in English education. Then this paper reviews five studies conducted by the author. The first and second study indicate that students studying with printed translations provided outperformed those receiving an oral translation. The third study, a qualitative study, demonstrates the lack of educational benefits lower-level students get from all English passages even when they are adapted. The fourth study indicates that students studying conversation with the aid of the translations learned considerably more than those who studied into conventional way. Both the fourth and fifth studies show the possible long-term benefits of studying with printed translations provided. 109

Keywords : translation, English education, glosses, university education

노인의 라이프스타일과 광고수용문화에 관한 연구

조 경 섭*

[국문요약]

본 연구는 노인시장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수립의 일환으로 노인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노인의 정의를 이루는 다양한 문헌들을 고찰하였으며, 노인의 라이프스타일과 광고수용문화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및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의 주 관심분야는 남녀 모두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가시간을 주로 자신들의 건강관리에 이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인들의 주 관심 분야인 건강을 주제로 하는 광고는 보다 높은 주목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광고의 경우 여자 노인에 대한 광고가 효율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둘째, 노인들에게 매체는 주로 제품 구매에 영향을 주는 정보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을 구매한 경험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들은 전통적 매체에 보다 강할 것이라는 일반적 예측과는 달리 라디오나 잡지 매체보다 인터넷과 위성/케이블 매체에 비교적 높은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들의 광고 및 모델에 대한 선호도는 남녀 모두에서 제약광

*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조교수

고가 높은 기억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선호하는 광고모델은 중견 연
기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또 선호하는 광고유형은 전통/인간적
인 유대감을 주제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I. 서론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소득
증가를 통한 생활수준의 향상은 인간의 수명을 높여 노인 인구를 증가
시켰을 뿐만 아니라, 저 출산의 풍조는 노인층을 더욱 두텁게 만들고
있다. 최근 노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의 한 특성은 노인들의 자신에 대한
투자를 높여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러한 노인 소비
자를 겨냥하여 소위 ‘실버 마케팅’의 비중을 높여 나가고 있다.

실버 마케팅은 말 그대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말한다. 세
대 별로 시장을 세분화시켜 나가는 제너레이션 마케팅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고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세분화 한 시장에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쳐 나가는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고령화 현상으로 일어나는 수요의 증가와 시장의 성장은 실로 엄청나다
할 수 있다. 많은 기업이 노인용품을 생산할 정도로 실버시장이 확대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버마켓의 크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더욱 확대되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확대되는 노인 시장에 대해 다양한 기법의 마케팅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실버마케팅의 한 수단으로 효(孝)
마케팅을 들 수 있다. 모 이동통신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쓸 수 있
는 휴대전화 상품 ‘효’를 판매하였다. ‘효(孝)’는 만 60세 이상 노인분
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기본요금은 일반요금보다 저렴하지만, 통

화료는 일반요금보다 다소 비싼 특징을 갖는다. 휴대전화 단말기는 액정화면의 글자크기가 일반 단말기보다 크고 번호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번호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보이스 다이얼링 기능’이 들어 있다. 긴급 상황에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곧바로 119로 연결되는 특성도 가지고 있어, 노인들에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실버마케팅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 어떤 자동차 회사는 신차 고객들을 대상으로 ‘부모님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이벤트’를 실시하는가 하면, 신차 구입고객들은 부모님들이 한방병원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검진권을 받도록 하였다. 또 인터넷 쇼핑몰업체는 ‘추석 맞기 실버용품 특별 제안전’을 열어, 안마의자, 성인용 기저귀, 미끄럼방지 욕실매트 등 노인용품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할인행사를 하였다. 이처럼 최근 광고나 방송을 통해 노인층이 주목받으면서 노인들의 구매 영향력이 커져 노인 마케팅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동아일보, 2002.08.27)

또 최근에는 대학에서도 실버마케팅 연구소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들 연구소들은 노인복지, 실버산업, 그리고 노인 교육 분야 연구 및 컨설팅 등 주로 노인들을 주 타겟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을 주 소비자로 보는 시각의 강화를 통해 마케팅 효율성에 일조하고자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시도 되었다.

첫째, 노인에 관련된 다양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노인의 개념 및 현황, 노인시장에 대한 특수한 상황을 정립해 보고,

둘째, 노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의 특징과 매체이용현황, 그리고 광고유형별 선호도 분석 등을 통해 노인 시장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일조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에 대한 정의 및 현황

1) 노인의 정의

유기상(1997)은 실버란 노인의 흰머리를 미화시켜 표현한 단어로 중년층과 노년층을 지칭하는 뜻으로 정의하고 있다. 원용희와 윤기열(2000)은 실버계층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나타내고 있으나 광의의 의미에서는 노후를 대비하는 연령계층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서 보고 있다. 또 박종원과 박경란(1995)은 55세 이상의 노인은 무려 전체인구의 26%를 차지할 전망치를 내보이며, 55세 이상을 노년층으로 식별하고 있다. 이성림과 이기춘(1991) 60세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숙자(1996)는 55세 이상을 신 노년층으로 부르고 있다. 이 층은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누진화 된 퇴직금제도 등으로 노년기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극복한 세대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특징이다. 이민표(1992)는 노인을 자녀의 경제력에 의해 부양되는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형태의 노년층에서 노후생활 패턴이 소비욕구를 가진 집단으로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의훈(1998)은 55세를 갓 넘어서는 계층을 새로운 노인계층(New Sliver)으로 주목하고 이들은 전 세대보다 사회적 활동경험이 풍부하고 지식수준도 높으며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왕성한 소비성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시장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장인협(2002)은 노인을 생리적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유 유지기능과 사회적 역할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실버세대로 정의하고 있다.

Breen(1960)은 노인의 정의에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노화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노인을 첫째, 생리적 생물학적인 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 둘째,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생물학적인 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 셋째,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회(1972)

는 노인을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장인협과 최성재(1988)는 생리적,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유지기능과 사회적 역할기능의 약화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大道安次郎(1970)은 노인을 주요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보고 사회적 활동에서 퇴직 또는 가정에서 주부의 지위와 역할을 이양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사회적 역할에서만 노인을 보았고 사회적 지위가 불분명한 사람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특히 여성에게는 적용상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최순남(1984)은 개인 스스로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노성자각(老性自覺)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노인을 정의하며 일반적으로 시각 및 청각의 쇠퇴, 치아탈락, 성욕감퇴, 피로감 등의 신체적 징후와 자녀의 성장과 일반인으로부터 할아버지나 할머니라고 불리울 때 노성(老性)을 자각하게 되며, 개인의 주관으로서 객관성이 결여 된다고 보고 있다. 김성순(1990)은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뜻하고,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5% 내외는 고령사회(Aged Society)라 본다. 우리나라 통계청(1991)의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중은 1985년 166만 명으로 전 인구의 4%였으나 1990년에는 5%인 214만 명, 2000년에는 6.8%인 316만 명, 2021년에는 13.1%인 660만 명으로 늘어나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의 도래가 예상되고 있다.

2) 노인의 특성과 현황

장명옥과 이기춘(1972)은 노화현상은 얼굴, 체격, 감각기관, 신경계통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며 기능적인 변화로써 수면의 질이나 양이

감소하고 불면증과 소화기능의 쇠퇴를 가져오며 피로를 빨리 느끼며 혈액순환이 느리고 불규칙하게 되며, 또한 호흡작용의 효율성이 감소하고 유기체의 생리적인 적응능력이 감소되어 체온의 통제나 피로회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Rutgers와 Schiffman(1980)의 연구결과, 노인은 자신의 실제연령보다 젊은 연령층에 속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청소년기에게도 마찬가지로 인지연령¹⁾이 역연령²⁾보다 높게 나타났다.

Hurlock(1975)은 노인의 감각기능, 운동능력, 지능의 변화에서 노인은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통각에 쇠퇴현상이 일어나고 힘이나 속도와 같은 운동능력의 쇠퇴로 인해 새로운 기술습득능력이 줄어들고 학습력, 추리력, 창조력, 회상력에 감퇴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Rokowski 등(1983)은 노화에 대한 성인층의 태도와 과거, 현재, 미래의 부모에 대한 평가간의 관계연구에서 부모의 건강상태가 젊은 층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 건강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서 생활만족, 사회적 역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Birren(1964)은 지각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생물학적 노화로 외부의 자극과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체계의 활동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감각 및 지각기능이 저하는 70세 이전까지는 순수한 생물학적 노화보다는 질병이나 기타 특수한 상황의 영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Schaie와 Lavovief(1974)의 연구는 노인의 지능은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저하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이는 횡단적 연구에 의한 것이고 종단적 연구결과는 어휘능력, 추리능력, 공간지각능력에서

1) 개인 스스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연령 즉 느끼는 연령

2) 생존년수 혹은 출생부터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자 행동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이용

연령증가에 의해 차이가 없음을 보이고 있다. 또 윤진(1985)은 지능은 교육수준, 생활경험, 준거집단,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주장한다. Rosow(1974)는 생활주기 상 노년기로의 전이는 주로 노년기의 역할전이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노년기 역할에로의 전이가 통과의식이 없고 사회적 손실과 역할의 불연속성 때문에 노령기 에로의 사회화가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재석(1966)은 한국의 가족을 연구하면서 장남만이 가계를 계승하고 차남 이하의 아들은 분가하여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직계가족(Stem family)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의 실태에 대한 정황을 제시하고 있다. 권규식(1973)은 우리나라의 핵가족화의 추세는 1966년 66.8%이던 것이 1975년에는 70.7%로 현저히 증가, 우리사회가 점차 핵가족화 되어 감에 따라 자유결혼, 소가족, 기혼자녀와 부모 별거, 양계제, 군배상속, 독립생계, 부모부양 책임 면책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세대 간 인간적, 사회적 유대의 단절로 심각한 노인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영하(1975)는 간호가 필요한 노인의 증가로 의보성 노인이나 병환이 있어 재택치료나 입원치료가 요구되는 노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厚生省統計情報部(1985)의 보고에 의하면, 65세 이상은 자식과 동거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85년에 64.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Hodon 등(1986)은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과 사회에서의 노인의 권위와 지위의 하락은 노인을 소외시키고 외적인 상태로 이끌어가는 노인이 경제적 빈곤을 가중시키고 있어 노인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궐립조사연구소(1984)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절반정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후에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되어 있는 정년 퇴직노인도 절반이 경제적 어려움을 심하게 겪고 있음이 밝혀졌다. 하

상락과 김성이(1986)는 노인의 수입원은 금품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직접수입원과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지만 직접적인 지출을 줄임으로서 수입이 되는 간접수입원이 있다. 직접수입원에는 자신의 노동, 퇴직연금, 재산수입, 공적부조(公的扶助), 자녀 및 친척의 보조가 있으며 간접수입원에는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경노우대제도에 의한 할인혜택이 있다. 김성순(1984)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퇴직으로 인한 수입의 격감,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및 수준 저하,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 취업곤란 또는 불능, 저임금 및 직업불안정, 질병, 사고로 인한 취업 장애 등 때문이라고 한다.

2. 라이프스타일과 실버시장의 특성

1) 라이프스타일

이명식(1992)의 연구를 통하여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용어가 언제, 어떻게 생성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나 자연계와 철학계에서 “스타일”이라는 용어로 16세기경부터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Engel(1968) 등은 라이프스타일은 사람의 생활 또는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유형인데 그것은 소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적특성이며 개인의 문화, 사회계급, 준거집단, 가족 등의 영향을 받아 습득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Kotlor(1997) 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은 자신의 활동, 관심, 의견 등으로 표현되는 것으로서, 한 개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며 이는 자신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전체적 인간”이라고 설명한다.

채서일(1999)은 라이프스타일은 크게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거시적 분석은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회나 집단의 전체적인 라이프스타일 동향의 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미시적 분

석은 라이프스타일의 이해를 통해 사회를 세분화하는데 그 주요 취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Plummer(1974)는 마케팅이나 소비자행동 측면에서의 라이프스타일 분석은 거시적 분석보다 미시적 분석이 우선적으로 요청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Anderson(1994) 등은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미시적 분석 연구에 인구 통계적 변인에 심리적 변인인 AIO(Activities, Interests, Opinions)가 주로 이용된다고 보고 있으며, Solomon(1999)은 VALS(Values and Lifestyle)와 LOV(List of Values)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문규와 김나문(2002) AIO방법은 라이프스타일 측정에 있어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제일기획(1998)은 IMF시기의 소비자는 관성소비시대를 겪었으며 앞으로는 지성소비시대로 변화되는 방향으로 라이프스타일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Kahle(1986) 등은 VALS 프로그램이 LOV 접근법보다 소비자의 행동에 대한 높은 예측력 지적한다고 주장한다. 또 권숙희(1993)는 VALS에 의한 라이프스타일 접근법은 환경요인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보다 소비자만족을 극대화하는데 충분한 Segment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한 데이터를 창출한다고 한다.

2) 노인소비자 행동

노인의 수명이 연장되어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자 자연히 노인세분시장의 규모와 특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어 당시 400억불에 해당하는 노인시장의 특별수요를 충족시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려는 마케팅의 새로운 노력이 시작되었다.(Gidlow, 1961) Reinecke(1964)는 노인시장에 대한 연구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된 것이 아니고 노인시장이 독특한 것이 아니어서 다른 소비 집단과 구별하여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반면에

Samli(1967)는 노인들의 독특한 인구 통계적 세분시장이 존재함을 밝히는 실증연구를 발표하였다. Coldstein(1968)은 1950년에서 1960년까지의 자료를 통해 노인시장이 구매하는 재화에서 독특한 구매패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Block(1974)은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소득이 낮고 사회적 활동이 적고 심리적 불안이 큰 노인계층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Kotlor(1976)는 고령화 소비자들은 역연령(歷年齡)보다는 다른 연령, 즉 인지된 연령에 의해 자신을 인지하고 이것에 의해 행동하는 성향이 크다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Mason과 Smith (1974)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쇼핑행동과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천에 대한 조사에서 노인들이 가정 내에서 쇼핑을 하는 서비스(통신판매)에 의존하는 경우가 약간 있으며, 정보원으로 신문이나 과거경험을 이용하며, 특별한 구매를 위해서라기보다 쇼핑을 생활의 한 양식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Bernhardt와 Kinnear(1975)은 노인소비자의 구매행동, 신용카드사용, 매체습관, 여가활동에 대한 조사에서 노인들이 젊은 층보다 할인점을 덜 이용하고 전통적인 백화점을 더 이용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를 덜 이용하며, 35세 이하의 연령층보다 신문을 덜 읽지만 35~64세의 연령층보다는 덜 보는 것으로, 젊은 층보다 FM방송을 덜 듣고 주간 TV를 더 시청하고, 독서, 스포츠관람, 영화, 외식, 종교행사에 덜 참석하는 것을 밝혀냈다. Tongren(1975)은 노인소득과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조사결과, 노인의 소득이 60년대보다 2배로 증가하였고 이는 투자소득, 재산소득의 증가와 또한 사적연금의 액수와 수혜범위 확대로 노년층의 수입이 증대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Martin(1976)은 패션구매자의 여러 연령계층간의 차이분석결과 노인계층은 다른 연령층보다 대체 안 선택이 적고 구매 전에 선유성향의 형성이 낮고 마케팅 정보획득에서 신문과 외판원에 주로 의존하고 있음을 밝혔다. Towle과 Martin(1976)은 노인계층은 동질적이라는 이전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품고 노인들의 사이

코 그래픽 및 구매자료 분석을 통해 노인계층을 여러 범주로 세분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즉 노인은 젊은 층과 다르고 세분계층을 저축자, 계획자, 상표 충성자, 정보 추구자, 경제적 구매자, 후발자, 허세적 구매자로 구분하였다.

3. 실버시장의 마케팅 전략

1) 노인소비자의 광고정보처리 연구

Mason과 Beadon(1978)은 노인은 다른 연령층보다 운동, 여가 레크리에이션 등 여러 이유로 쇼핑을 하고 마케팅 정보원으로 친구, 개인경험, 가격비교, 매스컴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Desphands와 Krishman(1979)은 쇼핑경험과 관련된 의사결정 룰(Rule)을 보수적 룰, 상표의식 룰, 판매압력회피 룰, 정보회피 룰로 구분하였다. 예산한계를 무시해 계획보다 더 많은 품목을 구매할 우려가 많고 구매 시 세부적 정보를 무시해 구매 후 후회가 큰 현명하지 못한 구매를 유도할 탄력적 룰, 이와는 반대로 신중한 사전 구매활동을 필요로 하는 상표의식 룰, 판매압력회피 룰은 사전에 상당히 치밀한 구매 전 활동을 하고 있어 구매 후 불만족이 적게 나타나는 룰 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Schiffman(1971; 1972; 1973)은 그의 연구를 통해, 내부정보 탐색과 외부정보 탐색이 노인의 제품구매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결과 내외정보 탐색이 모두 노인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새로운 구매의도 행동과 위험인지간의 관계에서 위험인지가 높을수록 구매의도가 낮고, 신제품과 관련된 사회적 영향변수와 일반적인 사회적 영향변수와의 관계가 높고 특히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노인이 사회적으로 격리된 노인보다 더 혁신적임을 발견하였다.

Phillips와 Sternthal(1977)은 연령과 관련된 요인들이 노인의 정보처

리 행동을 행하는 방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이런 차이는 65세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령화에 나타나는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변화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French와 Crask(1977)는 설득가능성과 미디어 소구간의 관계연구에서 노인은 상이한 미디어로 나온 광고원천에 대한 신뢰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광고는 일반적으로 노인의 구매행동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Dawson과 Spangenberg(1987)는 30대 미만과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인들은 젊은이들보다 TV시청을 많이 하지만 TV광고의 평가에서는 더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Dowd 등(1981)은 노화가 자동적인 과정이 아니고 노인은 새로운 생활영역으로 전이됨으로써 자신과 환경간의 상호교호작용이 일어나는 사회화가 젊은 이와 마찬가지로 발생한다고 하였다. Smith와 Moschis(1981)는 노인의 사회화에 대한 연구에서 고령과 건강상태가 광고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그리고 인지적 연령이 광고에 대한 긍정적인 상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광고에 대한 활동수준이 낮고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광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Stafford(1966)는 사회적 통합이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상표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사회적 통합이 노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Lawther(1978)는 노인의 구매행동에서 사회적 통합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즉 사회적 통합정도가 클수록 마케터가 주도하는 정보원을 사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2) 실버시장의 마케팅 전략

1980년대 중반부터 실버마켓, 실버산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인수, 1999) McCann(1974)은 노인들은 정년퇴직 후 소득의 감소로 인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가격, 구매결정, 제품정보에 대해

민감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노인들은 소득변화에 대해 젊은이 보다 두 배 정도 민감하다고 하였으며 이는 주로 소득감소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Visvabharathy와 Rink(1983)는 노인은 건강, 기동성, 시력 등의 문제로 구매행동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노인은 눈이 나빠져 포장에 적힌 여러 정보를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글씨를 크게 하고 노인은 식품에서 양을 적게 하고 취급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노인에게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몸이 약해 쇼핑할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오르내리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편주문이나 이동상점, 배달 등이 선호되고 있다. 또 상점건물이 노인이 쇼핑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다. 각종 휴식시설, 의자, 문, 계단 등에서 노인의 사용성이 고려되어야한다. Gelb(1978)는 노인의 신체적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 제품보다 서비스가 중시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가정 안전, 자동차 유지 및 수리, 정원관리, 여행, 외식 등 서비스 부분의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Towle과 Martin(1976)의 노인들의 상표충성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상표충성자의 비율이 극히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Schiffman(1972)은 제품의 혁신성에 대한 노인의 수용은 인지된 위험의 양에 반비례한다는 연구와 단순히 재미있어서 혹은 한번 사용해 보는 것으로 새로운 제품을 구매해보는 구매가 많다는 연구도 있어 일반화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Phillips와 Sternthal(1977)은 노인은 정보가 빨리 제시되거나 그것이 노인이 아닌 다른 계층에 맞도록 속도가 정해졌거나, 관련 없는 정보가 뒤섞여 제공되거나, 메시지 이슈에 대해 경험이 없는 경우 학습능력이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Lambert(1979)는 신용카드의 이용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반 정도 밖에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노인은 노인에 대한 할인을 요구하고 가격표가 너무 작거나 흐려서 읽을 수 없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Cooper와 Moaoulis (1986)는 생활만족을 마케팅교환이론의 기본골격으로 생각할 때 마케터의 의사결정 능력은 크게 향상된다고 주장한

다. 또 생활만족영역을 파악하는데 있어 활동은 중요한 요소가 되며 교환과정은 대부분의 활동의 중심이 된다고 보고, 가치의 교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생활의 만족이 더해진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생활만족의 영역을 대부분의 사회학적, 심리학적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얻고, 생활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자기이미지를 갖고, 행복하고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목표달성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Sherman 등(1988)은 인지연령이 역연령보다 중요한 연령관계변수이고, 인지연령이 55-64세의 노인들에서 생활만족과 관계가 있으며, 이는 또 소비자 혁신성 혹은 모험성과 직접관계가 있으나 여자와는 관계가 없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어 Sherman와 Schiffman(1989)은 생활만족은 역연령(chronological age)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활만족과 인지연령은 역관계임을 입증한 바 있다.

Carmone 등(1981)은 노인과 관련된 제품을 기술적 범주, 신체적 제약범주, 그리고 개인적 욕구범주로 구분하고 제품평가에서 이용되는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기술적 범주를 가정용품, 의복, 커뮤니케이션, 식품, 건강과 안전, 주택과 설계, 레크리에이션, 교통, 카달로그와 매뉴얼로 분류하였다. 노인이 노화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신체적 범주를 시력, 청력, 말하기, 소화력, 파지력, 들어 올리는 힘, 다리근육의 약화, 이동력, 반응력의 약화로 분류하고, 개인적 욕구범주를 커뮤니케이션, 식품과 요리준비, 사회적 교류, 개인위생, 가정유지, 레크리에이션, 안락과 안전욕구로 분류하였다. 제품의 평가기준으로 신체적 한계를 보완해 주는 것, 사회적 지원서비스로 대체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것, 심리적 사회적 의존성을 높이는 것, 가용성소비자에게 비용분의 수혜비율이 낮은 것, 많은 노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 잠재력을 들고 있다. 연구조사결과 기술적 범주나 개인적 욕구범주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신체적 범주에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가장 높

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평가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Gilly와 Zeithaml(1985)은 감지기, 전자자금이체기, 자동현금출납기 같은 소비자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에서 노인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이런 새로운 혁신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낮고 그런 혁신에 대한 정보원이 주로 매스미디어이고 친구나 이웃이 그다음이며 가족은 낮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Zeithaml(1984)은 서비스에 대한 정보획득은 개인적 원천과 구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 이유는 서비스를 광범위한 지역으로 유통시키기가 힘들어 자연히 그것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방송이나 신문과 같은 대량매체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서비스의 무형성 때문에 대량매체가 서비스와 관련된 경험을 전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Schiffman(1971)은 노인이 서비스에 대한 정보획득에서 겪는 어려움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노출이 줄어들고 특히 개인 상호간의 접촉에 의한 정보는 퇴직, 부부 중 한쪽의 사망이나 자식의 출가로 커지게 된다. 또 노인은 제품에 관한 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제품판단의 기초를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또 자기가 과거에 소비했던 때 형성됐던 정보 즉, 내부탐색을 많이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Guseman(1981)은 서비스의 무형성, 정보부족, 보증결여로 서비스는 제품에 비해 위험인지가 높다고 보고, 노인을 다루는데 있어 이런 점을 유의해야 되는데 노인은 젊은이들보다 의사결정에 있어 조심성이 많다고 주장한다. 특히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 확실성과 방향성이 적으며, 노인은 반응이 옳다고 확신이 될 때까지 반응을 하지 않기에 불확실한 문제해결에서 실수를 하기 쉽다고 본다. Zeithaml(1984)은 노인은 위험인지가 높아 이를 줄이기 위해 상표충성에 크게 의존하게 되며, 상표충성을 하게 되면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알게 되어 고객은 개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였다. 노인은 그들에게 특별한 대우와 서비스를 해주는 소매상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Schiffman과 Kanuk(1983)은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혁신수용은 제품의 수용보다 느리다고 주장한다.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인지가 높고 서비스가 제공하는 편익을 쉽게 전달하기도 힘들고, 또 서비스 자체의 복잡성 때문에 이런 혁신수용의 완만성이 나타나는 것이며, 노인들은 제품의 혁신 수용성에서 후기 수용자(late adopter)인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노인은 위험 인지가 높을수록 제품을 시용(試用)하려는 경향이 낮아진다고 보고 있다. Schiffman(1971)은 노인의 특정욕구를 제품이 충족시키거나 제품의 편익이 뚜렷하게 인식되면 노인들은 이를 시용(試用)하려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Zeithaml(1984)은 서비스 생산에 있어 소비자가 참여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서비스에 대한 불만의 일부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서비스 생산에 참여 도가 높을수록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적어지게 된다. 그러나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쇠퇴로 인해 서비스 생산 참여가 그리 높지 않으므로, 그들은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자신에게 돌리는 경우가 적다는 것이다. Bernhart(1981)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45%가 서비스 제공자에게로 불만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노인들이 그들의 불만을 서비스 제공자에게로 돌리고 있음에도 불평을 덜 하는 이유는 불평을 해봤자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이 고생만 한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Ⅲ. 연구문제의 정의

1. 노인의 라이프스타일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은 독특한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명식(1992)은 라이프스타일의 세 가지 요인인 역할과 관심, 시간사용 활용, 구매 및 소비행위와 보도매체에 관한 노출패턴 등을 이용한 한국인의

독특한 문화와 사고방식을 분류하여 신용카드 시장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박성연(1996)은 라이프스타일의 특성을 소비자들의 환경관련 인식과 연계하여 라이프스타일 문항을 의, 식, 주 관련 항목과 소비생활, 여가생활 등 5가지 차원의 항목들을 이용하여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Golleub와 Javitz(1988)는 은퇴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을 측정한 대규모의 조사로 노년층의 차이점을 기술하였다. Moschis(1996)는 노년층의 생각, 태도, 행동적 특성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상의 특성을 논하고 이에 따른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세분화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의 특성을 연구하면서 특히, 그들이 갖는 주 관심분야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여가시간의 정도와 그 시간에 갖는 주요한 여가활동,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방법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노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의 현황은 어떠한가?

- 1-1: 노인의 주 관심분야는 무엇일까?
- 1-2: 노인들이 이용하는 주 교통수단 현황은 어떠한가?
- 1-3: 노인들의 여가시간 현황은 어떠한가?
- 1-4: 노인들이 여가시간에 갖는 주 활동은 무엇인가?
- 1-5: 노인들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2. 노인의 매체이용 현황

노인들은 매체를 이용함에 있어 주로 과거에 이용하던 TV, 라디오, 신문 등과 같은 전통적인 매체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러한 매체들을 통하여 광고에 대한 정보를 접촉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Harris와 Feinberg(1977)는 노인들에 대한 촉진문제는 주로 광고에 집

중되어 왔으며, 광고에서 노인의 등장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5% 미만이며, 그 묘사도 대개는 건강하지 못하고 수동적이고 고집스런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Schreiber와 Boy(1980)는 TV 광고가 구매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69%,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측이 30% 가량 된다고 하며, 잡지광고에서 특히 여자노인을 TV광고보다 더욱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한다. 또 노인은 TV시청을 많이 하는데 주로 아침방송을 많이 시청하고 라디오도 FM보다 AM방송을 더 청취하며, 신문도 반 이상이 구독하고 잡지도 가정용 잡지나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잡지는 덜 본다고 한다. 본 연구는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광고 매체의 현황을 분석해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 노인들이 이용하는 광고매체의 이용 특성은 어떠한가?

- 2-1: 노인들의 TV 매체에 대한 이용 특성은 어떠한가?
- 2-2: 노인들의 라디오 매체에 대한 이용 특성은 어떠한가?
- 2-3: 노인들의 신문 매체에 대한 이용 특성은 어떠한가?
- 2-4: 노인들의 잡지 매체에 대한 이용 특성은 어떠한가?
- 2-5: 노인들의 케이블/위성에 대한 이용 특성은 어떠한가?
- 2-6: 노인들의 인터넷 매체에 대한 이용 특성은 어떠한가?

3. 광고 및 모델 선호도

노인들의 광고 및 모델에 대한 선호도는 대체적으로 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젊은 층은 그들이 좋아하는 신세대 모델을 통해 동일시 관점에서 광고효과를 갖는 맥락과 같이 노인층도 그들이 예전에 알고 있던 익숙한 모델들을 통해 광고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뿐만 아니라 광고의 내용면에서도 그들과 친

숙한 주제를 다루는 광고에 보다 높은 광고효과를 보이게 될 것이다. 나아가 광고 제품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주로 사용하거나 있거나, 사용해야 되는 제품군에 더욱 깊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들의 광고 및 모델에 대한 선호도 현황을 분석해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3: 노인들의 광고 및 모델 선호도 현황은 어떠한가?

- 3-1: 노인들이 선호하는 광고 모델의 현황은 어떠한가?
- 3-2: 노인들이 선호하는 광고 브랜드의 현황은 어떠한가?
- 3-3: 노인들이 선호하는 광고 유형의 현황은 어떠한가?

IV.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2005)의 조사분석국 조사검증부에서 발간한 Medea & Consumer Research의 내용을 가공하여 이용하였다. 본 조사는 2005년 5월 16일에서 29일까지 14일간 13세에서 64세 이하의 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로서 다단계 비례확률표집(Multi-St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들 자료 중 50세 이상으로 되어있는 구간의 자료를 주제별로 선별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하였다.

1. 라이프스타일의 분석결과

먼저 노인들의 주 관심분야에 대해 성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자 537명, 여자 558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결과는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들의 주 관심분야는 남녀 모두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평가를 받

은 관심분야는 친구/이성친구 항목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장 외로움을 겪고 있는 연령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의외적인 결과로 판단된다. 사업항목에서는 남녀 간에 가장 큰 분포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현재 노인연령층에서 성역할에 대한 관념이 강했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기타 결혼에 대한 항목이나, 몸매/체중/외모 항목, 능력개발 항목에서도 적기는 하지만 응답인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노인 마케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풀이된다.

<표 1> 노인들의 주 관심분야 (성별 분석)

항목 \ 성별	남자 50대 이상	여자 50대 이상
표본수	537명	558명
건강	47.9	54.7
자녀양육	4.7	7.0
재산증식	5.4	4.1
직장에서의 일	3.7	1.1
사업	9.5	2.9
취직	1.1	0.4
노후	16.6	14.9
결혼	0.9	1.4
가족관계	6.0	5.9
몸매/체중/외모	0.6	0.4
친구/이성친구	0.2	0.2
능력개발	0.4	0.4
주택	-	1.8
부부	0.7	0.7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조사결과는 남자 400명,

여자 171명의 응답을 대상으로 <표 2>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조사결과, 남자의 경우는 대부분이 승용차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 응답자의 경우에는 ‘걸어 다닌다’와 ‘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하철/전철을 주로 이용하는 응답자는 남녀 모두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토바이를 이용한다는 응답자도 미미하지만 존재하며 남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노인의 주이용 교통수단

성별 항목	남자 50대 이상	여자 50대 이상
표본수	400명	171명
승용차	52.5	25.1
버스	13.8	31.0
걸어다님	17.8	42.7
지하철/전철	10.3	11.1
통근(스쿨)버스	1.0	0.6
택시	1.5	3.5
자전거	5.3	0.6
오토바이	3.5	0.6

노인들의 여가시간은 평일과 주말/일요일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남자와 여자 노인 간에는 조금 다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의 경우에는 평일과 일요일에 2시간 30분여의 차이를 보인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평일과 일요일에 한 시간 안팎의 비교적 적은 시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남자에 비해 여자 노인의 경우, 평일과 주말의 여가시간 차이는 적어 일주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의 주 여가활동 분포에 대한 결과가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노인의 여가활동은 남녀 모두에서 ‘등산’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인 여가활동은 ‘PC이용’인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교해 보면, 노인들은 여가시간을 자신들의 건강관리에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자 노인들의 다음 여가 행동으로는 ‘낚시’와 ‘수면(낮잠)’으로 나타났고, 여자 노인의 경우에는 ‘독서’와 ‘조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등산’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투자한다는 점에서는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반면에 노래부르기 같은 항목에서는 생각보다 낮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선택한 여가활동의 또 다른 특징은 젊은 층에 비해 투자비용이 저렴하다는 데에 있었다. 이는 또한 노인 마케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단서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노인의 여가시간 분포

항목 \ 성별	남자 50대 이상	여자 50대 이상
평일	4시간 00분	4시간 47분
토요일	4시간 46분	5시간 04분
일요일	6시간 24분	5시간 27분

<표 4> 노인의 주 여가활동 분포

항목 \ 성별	남자 50대 이상	여자 50대 이상
TV시청	26.1	36.4
PC(게임, 인터넷 등)	2.8	2.7
등산	23.5	13.6
독서	3.7	5.6

수면(낮잠)	4.3	2.7
영화	0.9	0.4
헬스(기구운동)	2.2	3.6
음악감상	0.7	0.5
가정용 TV게임	0.9	1.1
낚시	5.0	0.2
신문읽기	3.5	2.3
조깅	3.5	4.7
축구	0.7	-
노래부르기	0.4	3.0
수영	0.4	2.7

이번에는 노인들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스트레스는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항목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는 그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항목으로 실버 마케팅에 직결되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결과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자들은 대화(28.7%)를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남자들은 술을 마신다(26.1%)를 선택하였다. 또 여자들은 다음 대안으로 그냥 참는다(16.5%)와 충분히 잔다(13.1%)를 선택한 반면, 남자들은 운동/스포츠(15.1%)와 흡연(11.2%)을 선택한다고 응답하였다. 노인들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이할 만한 결과는 쇼핑항목에 대한 결과이다. 여자들은 쇼핑항목에 5.6%의 분포를 보인 반면, 남자들은 스트레스 해소방법으로 쇼핑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는 노인 마케팅에 커다란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노인의 스트레스 해소법

항목 \ 성별	남자 50대 이상	여자 50대 이상
대화	7.6	28.7
술마신다	26.1	2.9
충분히 잔다	10.2	13.1
운동/스포츠	15.1	6.3
그냥 참는다	9.5	16.5
게임	1.3	0.7
흡연	11.2	0.4
기타 취미 열중	3.5	3.0
여행/드라이브	3.5	2.3
쇼핑	-	5.6
음식먹기	0.6	1.4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자들은 대화(28.7%)를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남자들은 술을 마신다(26.1%)를 선택하였다. 또 여자들은 다음 대안으로 그냥 참는다(16.5%)와 충분히 잔다(13.1%)를 선택한 반면, 남자들은 운동/스포츠(15.1%)와 흡연(11.2%)을 선택한다고 응답하였다. 노인들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이할 만한 결과는 쇼핑항목에 대한 결과이다. 여자들은 쇼핑항목에 5.6%의 분포를 보인 반면, 남자들은 스트레스 해소방법으로 쇼핑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는 노인 마케팅에 커다란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노인의 매체이용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

노인들은 매체를 이용함에 있어 주로 과거에 이용하던 TV, 라디오,

신문 등과 같은 전통적인 매체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매체를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케이블/위성의 6가지 매체로 분류하여 다음의 7가지 항목을 통해 6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먼저, TV와 라디오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TV의 경우 남녀 모두에서 대체적으로 모든 항목에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TV는 구입 할 때 도움이 된다’는 항목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TV 매체가 제품 구매에 영향을 주는 정보원의 역할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특이하게 남자의 경우 ‘광고 때문에 제품을 산 적이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라디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TV에 비해 낮은 평가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디오도 TV와 마찬가지로 구매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원의 역할을 하는 편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으며, 반면에 광고 때문에 제품을 구매한 경험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노인들의 매체별 광고 특성 비교 - TV, 라디오

매체/성 별 항목	TV (50대 이상)		라디오 (50대 이상)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구입할 때 도움이 된다	4.3	4.5	3.0	2.8
사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다	4.1	4.4	2.8	2.6
재미있다	4.0	4.3	2.9	2.7
감각적이다	4.1	4.4	2.8	2.6
화제거리를 만든다	4.0	4.4	2.8	2.7
기억에 오래 남는다	4.0	4.4	2.8	2.6
광고 때문에 제품을 산 적이 있다	3.6	4.0	2.5	2.4

신문의 경우에는 TV 보다는 낮은 평가치를 보였지만, 라디오나 잡지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보다 높은 평가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신문 역시, 구매할 때 도움이 된다는 구매 정보원의 역할을 하는데 가장 높은 평가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실제 구매행동에 연결되었느냐는 물음에는 가장 낮은 평가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지의 경우에는 전통적 4대 매체인 TV, 라디오, 신문, 잡지 중 가장 낮은 평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반면에 구매할 때 도움이 된다는 정보원 역할의 평가와 구매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와의 차이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잡지의 신뢰가 높다고 보다는 관심이 적은 매체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좁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7> 노인들의 매체별 광고 특성 비교 - 신문, 잡지

매체/성 별 항목	신문 (50대 이상)		잡지 (50대 이상)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구입할 때 도움이 된다	3.5	3.2	2.7	2.9
사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다	3.3	2.9	2.6	2.8
재미있다	3.1	2.8	2.6	2.8
감각적이다	3.2	2.8	2.7	2.9
화제거리를 만든다	3.2	3.0	2.6	2.8
기억에 오래 남는다	3.2	2.9	2.5	2.7
광고 때문에 제품을 산 적이 있다	2.9	2.7	2.3	2.6

마지막으로 인터넷과 위성/케이블 매체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노인들은 전통적 매체에 보다 강할 것이라는 일반적 예측과는 달리 라디오

나 잡지 매체보다 인터넷과 위성/케이블 매체에 비교적 높은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성/케이블에 대한 평가는 거의 3.0대에 머물러 있어 라디오나 잡지의 평균보다 상회하는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는 남자의 경우는 라디오 매체와 비슷한 평균을 보인 반면, 여자의 경우는 잡지보다 낮은 평가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노인들의 매체별 광고 특성 비교 - 인터넷, 위성/케이블

매 체 / 성 별 항목	인터넷 (50대 이상)		케이블/위성 (50대 이상)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구입할 때 도움이 된다	3.1	2.8	3.1	3.2
사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다	2.9	2.6	3.1	3.2
재미있다	2.9	2.5	3.0	3.0
감각적이다	3.0	2.6	3.0	3.1
화제거리를 만든다	2.9	2.6	2.9	3.0
기억에 오래 남는다	2.8	2.5	2.9	3.0
광고 때문에 제품을 산 적이 있다	2.6	2.4	2.7	2.9

3. 노인의 광고 및 모델 선호도 분석 결과

노인들의 광고 및 모델에 대한 선호도는 대체적으로 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노인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광고와 선호하는 광고모델, 그리고 선호하는 광고 유형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먼저 가장 기억에 남는 광고에 대해 조사 한 결과가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일반적인 남자의 경우 휴대폰과 가전에서 가장 많은 기

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자 노인의 경우에는 이가탄(4위)과 인사돌(7위), 그리고 트라스트(10위)와 같은 제약광고가 기억의 상위권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여자의 경우에서도 휴대폰, 가전, 아파트 광고가 기억의 우선순위를 차지한 반면, 여자 노인의 경우에는 이가탄(2위), 인사돌(7위)과 같은 제약광고가 높은 기억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노인들의 광고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와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상관관계가 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표 9> 노인들의 기억에 가장 남는 광고 현황

	남자 전체		남자 50대 이상		여자 전체		여자 50대 이상	
1	애니콜	15.8	애니콜	6.5	애니콜	12.2	애니콜	5.0
2	BC카드	3.2	박카스	4.8	하이마트	4.0	이가탄	4.5
3	박카스	2.9	BC카드	3.5	BC카드	3.9	하이마트	4.1
4	스카이	2.4	이가탄	3.4	맥심	3.1	BC카드	3.8
5	하이마트	2.3	자이	3.0	휘센	2.3	맥심	2.7
6	르노 삼성	1.8	하이마트	2.0	스카이	2.2	지펠	2.7
7	KTF	1.8	인사돌	2.0	지펠	2.1	인사돌	2.2
8	자이	1.7	르노 삼성	1.9	KTF	2.0	쿠쿠	2.2
9	휘센	1.5	공익광고	1.7	디오스	1.9	휘센	2.0
10	싸이언	1.5	푸르지오 /트라스트 /SK주유소 /휘센	1.5	푸르지오	1.7	KTF	1.6

다음은 노인들이 선호하는 광고모델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표 10>과 같이 나타냈다. 10대와 20대에서 선호하는 광고모델은 전지현, 김태희, 문근영인데 반해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이영애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이한 사항은 노인층에 와서도 이영애의 선호도는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1위부터 10위까지의 선호도 조사에서는 젊은 층에서는 볼 수 없었던 최불암, 고두심, 김혜자, 김자옥과 같은 중견 연기자들이 10위권 내에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서도 선호하는 광고모델 역시 노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깊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표 10> 노인들이 선호하는 광고 모델 현황

	남자 50대 이상		여자 50대 이상	
1	이영애	12.5	이영애	10.0
2	이효리	7.1	고두심	6.1
3	최불암	2.4	김희애	3.9
4	안성기	2.4	이효리	3.6
5	김희애	2.2	김혜자	3.4
6	고두심	2.2	안성기	3.0
7	장동건	2.0	김자옥	3.0
8	최민식	1.9	비	2.9
9	배용준	1.9	이미연	2.7
10	김남주	1.9	김남주	2.7

<표 11> 노인들의 광고 유형별 선호도 현황

항목 \ 성별	남자 전체	남자 50대 이상	여자 전체	여자 50대 이상
응답자수(명)	3042	537	2958	558
유머	16.9	15.0	16.9	15.2
전통/인간적 유대감	13.7	17.5	14.8	16.3
유아/어린이 등장	10.1	10.6	14.2	14.7
일반 소비자 등장	8.2	10.8	9.0	9.6
동물 등장	6.2	6.8	7.3	7.0
애니메이션/만화	6.2	4.4	7.1	5.6
저명인사 등장	3.6	5.1	2.7	4.9
유명 연예인 등장	9.4	8.6	9.8	8.7
외국 스타 등장	6.6	4.4	4.7	3.7
성적인 느낌 강조	3.8	3.1	1.4	1.4
비교 광고	3.0	3.6	2.2	3.0
이미지 강조	3.5	3.4	2.7	3.2
제품 내용 강조	3.3	3.8	2.8	3.8
호기심 자극	5.4	3.0	4.4	2.8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선호하는 광고를 유형별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11>과 같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유모어 광고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인층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광고의 유형이 전통/인간적인 유대감을 주제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노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결과이다. 또 성적인 주제를 다룬 광고에서는 표본 전체의 성향에 비해 노인층의 선호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기타 항목에서는 별다른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V. 결 론

실버마케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 따라 본 연구는 노인시장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에 일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시장에 진입하려는 마케팅 전략의 구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먼저, 노인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노인의 정의를 이루는 다양한 문헌들을 고찰하였으며, 나아가 노인의 라이프스타일과 마케팅 전략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개념을 정립,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또 조사부분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노인들의 라이프스타일 현황 중, 노인의 주 관심분야와 교통수단 현황, 여가시간 및 여가시간에 갖는 주 활동, 그리고 노인들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둘째는 노인의 매체이용 현황, 특히 TV, 라디오, 신문, 잡지, 케이블/위성, 인터넷 매체에 대한 이용 특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광고 및 모델 선호도 대해 조사하였다. 특히 노인들이 선호하는 광고 모델과 광고 브랜드의 현황, 그리고 광고 유형의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및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의 주 관심분야는 남녀 모두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관심분야는 친구/이성친구 항목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남자의 경우는 대부분이 승용차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 응답자의 경우에는 '걸어 다닌다'와 '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들의 여가시간은 평일과 주말/일요일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었다. 노인들은 여가시간을 자신들의 건강관리에 이용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인들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에서 발견되는 특이할 만한 결과는 쇼핑항목에 대한 결과이다. 여자들은 쇼핑항목에 5.6%의 분포를 보인 반면, 남자들은 스트레스 해소방법으로 쇼핑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노인들의 주 관심 분야인 건강을 주제로 하는 광고는 보다 높은 주목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광고의 경우 여자 노인에 대한 광고가 효율적일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노인들은 매체를 이용함에 있어 TV 매체가 제품 구매에 영향을 주는 정보원의 역할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디오의 경우는 광고 때문에 제품을 구매한 경험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구매할 때 도움이 된다는 구매 정보원의 역할을 하지만, 실제 구매행동에 연결되는 경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잡지는 전통적 4대 매체인 TV, 라디오, 신문, 잡지 중 가장 낮은 평가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 노인들은 전통적 매체에 보다 강할 것이라는 일반적 예측과는 달리 라디오나 잡지 매체보다 인터넷과 위성/케이블 매체에 비교적 높은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는 잡지보다는 인터넷 매체나 위성/케이블 매체의 활용을 검토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노인들의 광고 및 모델에 대한 선호도는 남녀 모두에서 제약광고가 높은 기억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노인들이 선호하는 광고모델은 이영애의 선호도가 1위를 지키고 있었으며, 최불암, 고두심, 김혜자, 김자옥과 같은 중견 연기자들이 10위권 내에 포진하고 있었다. 또 노인들이 선호하는 광고는 전통/인간적인 유대감을 주제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노인들의 광고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나 광고모델의 선호도, 광고 테마 역시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상관관계가 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광고 전략은 실버마케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출판한 자료를 재구성하여 사용함으로써, 노인의 연령을 50대 이상으로 한정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보다 구체적인 노인의 세분화된 특성을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는 보다 세분화된 노인층을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설문을 통해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노인층의 특성분석을 통해 보다 확대되어가는 노인시장의 진입에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규식 (1973), “핵가족화와 노인문제”, 「성곡논총」, 제4집, p. 625.
- 김성순 (1990), 「고령화 사회와 복지행정」, 홍익제, pp. 18-19.
- 동아일보, 2002.08.27
- 원용희와 윤기열 (2000), 실버서비스 산업의 이해, 서울백산출판사
- 유기상 (1997), 실버산업을 잡아라, 서울: 글사랑.
- 윤진 (1985), “성인, 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p. 92.
- 이의훈 (1998), 55세 이상 소비자 시장의 전망 및 시장공략을 위한 마케팅전략.
- 이인수 (1999), 실버산업을 잡아라, 서울: 글사랑
- 장명옥과 이기춘 (1972), “인간발달”,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225-231.
- 장인협 (2002), 노인복지학, 서울대출판부
- 장인협과 최성재 (1988),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국, p. 44.
- 제일기획 (1998), “1998한국인의 소비행동과 라이프스타일”, 1998. 10.
- 제일기획사보
- 최순남 (1984),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홍익제, p. 25.
- 최재석 (1966), “한국가족연구”, 서울:민중서관, p. 144.
- 통계청 (1991), 「1990년 인구주택 총조사」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4),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pp. 156-157.
- 한국사회복지협회 (1972), 「한국사회복지연감」, p. 109.
- 大道安次郎 (1970), 「老人福祉學の展開」, 京都書房, p. 60.
- 厚生省統計情報部 (1985), “厚生行政基礎調査”.
- 권숙희 (1993), “소비자행동의 라이프스타일분석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경영경제, 제10권, pp. 37-53.
- 김성순 (1984), “산업사회에 있어서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 학위논문, p. 48.

- 박성연 (1996),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특성”, 마케팅연구, 11(1), pp. 19-34.
- 박종원과 박경란 (1995), 통합적 관념에서 본 노인소비자 행동: 외출복 구매의사 결정과정의 특수성, 경영학 연구, 24(3), pp. 353-385.
- 이명식 (1992),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체계적 고찰과 확장된 이론적 틀, 마케팅연구, 24(4), pp. 197-212.
- 이문규와 김나문 (2002), 국내인터넷 이용자의 시장세분화 연구, 소비자학 연구, 13(4), pp. 1-34.
- 이민표 (1992), 노인소비자 연구방향에 대한 고찰, 대전보전 논문집, 13, pp. 373-398.
- 이성림과 이기춘 (1991), 노인 소비자 문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1), pp. 177-183.
- 이숙자 (1996), 노인상품의 신문광고 모델에 대한 노년층 구매자의 반응,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pp. 35-39.
- 이영하 (1975), “한국사회에 있어서 노인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방안”, 공주사대논문집, 제13집, p. 201.
- 채서일 (1999), 체계적 분석의 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연구, 한국소비자학회지, pp. 25-27.
- 하상락과 김성이 (1986), “정년퇴직인의 생활실태”, 한국정년퇴직인협회, p. 47.
- Anderson, E. W., Formell, C. & Lehmann, D. R. (1994), "Customer Satisfaction, Market Share and Profitability: Finding from Sweden", Journal of Marketing, 58(july), pp. 53-66.
- Bernhart, K. L. (1981), "Consumer Problems and Complaint Action of Older Americans: A National View", Journal of Retailing, 57(Fall), pp. 107-123.
- Bernhardt, K. L. & Kinnear, T. C. (1975), "Profiling the Senior Citizen market, in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3. ed, B. B. Aderson,

- Cincinnati :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pp. 449-452.
- Block, J. E. (1974), "The Aged Consumer and the Market place: A Critical Review", *Marquette Business Review*, 18, pp. 73-81.
- Breen, L. Z. (1960),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60, pp. 147-148.
- Carmone, F. J., Krauser, C. K. & Baker, G. T. (1981), "The Mature Consumer And Technology",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XI, pp. 553-557.
- Coldstein, S. (1968), "The Aged Segment of the Market, 1950 and 1960", *Journal of Marketing* 32, pp. 62-68.
- Cooper, P. D. & Moaoulis, G. (1986), "Life Satisfaction: a Tool to Serve the Growing Elderly Market", *AMA Educators Proceedings*, No.52. AMA. p. 327.
- Dawson, S. & Spangenberg, E. (1987), "Television and the Elderly : Chronological Age as a predictor of viewing Havits and attitudes towards Advertising,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14, p. 568.
- Desphands, R. & Krishman, S. (1979), "The use of Buying Decision Rules by The Elderly : Public Policy Implications of Perceived post purchase Dissatisfaction", in *AMA Educators' Conference proceedings*, ed, N. Bechwithetal, Chicago: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pp. 583-588.
- Dowd, J., Sisson, R. & Kern, D (1981), "Socialization to Violence Among the Aged", *Journal of Gerontology*, 36, (3), pp. 350-361.
- Engel, J. F., Kollat, D. T. & Blackwell, R. D. (1968), *Consumer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French, W. A. & Crask, M. R. (1977), "The Credibility of media Advertising for the Elderly", in *AMA Educators Conference Proceedings*, eds, B.A. Greenberg and D.N. Bellinger, Chicago: AMA,

pp. 74-77.

Gelb, B. D. (1978), "Exploring the Gray Market Segment", MSU Business Topics, 1, pp.41-46.

Gidlow, E. (1961), "The Senior market", Sales Management, October, pp. 35-39, 108-111.

Gilly, M. C. & Zeithaml, V. A. (1985), "The Elderly Consumer and Adoption of Technologi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12. Dec, pp. 353-357.

Golleub, J. & Javitz, H. (1988), "SIV. Way to Age", American Demographics, 11, pp. 28-57.

Guseman, D. S. (1981), "Risk Perception and Risk Reduction in Consumer Services", in Marketing of service, James A. Donnelly and William R. George, eds., Chicago: AMA, pp. 200-204.

Harris, A. J. & Feinberg, J. F. (1977), "Television and Aging-Is What You See What You Get?", The Gerontologist, Vol. 17. pp. 464-468.

Hodon, R .C., Burkhauser, R. V. & Myers, D. A. (1986), "Income Transitions at Older Stage of Life", The Gerontologist, Vol. 26. No. 3, p. 292.

Hurlock, E. B. (1975), Development Psychology, 4th ed. New York, McGraw-Hill, pp. 310-368.

Kahle, L. R., Sharon, E. .B. & Homer, P. (1986). "Alternative measurement Approaches to Consumer Values: The List of Values(LOV) and Values and Lifestyle(VAL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3(Dec.), pp. 405-409.

Kotlor, P. (1997), Marketing Management, Analysis, Planning, Implementation and Control, 9th ed, Prentice-Hall. Inc.

----- (1976), "Marketing Management": Analysis, Planning and Control, 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p. 147.

- Lambert, Z. V. (1979), "An Investigation of Older Consumers's Unmet Needs and Wants at the Retail Level", *Journal of Retailing*, Vol. 4. pp. 35-57.
- Lawther, K. (1978), "Social integration and the Elderly Consumer : Unfairness Awareness, Complaint Actions and Information Usage", *AMA Educator's conference Proceedings*, ed, S.C. Jain, Chicago: AMA, pp. 341-345.
- Martin, C. R. (1976), "A Transgeneration Comparison : The Elderly Fashion Consumer", in the *Elderly Consumer*, ed. F. E. Waddell, Columbia, MD: the human Ecology Center, Antioch College, pp. 251-259.
- Mason, J. B. & Beadon, W. O. (1978), "Profiling the Shopping Behavior of Elderly consumers", *The Gerontologist*, pp. 454-461.
- Mason, J. B. & Smith, B. E. (1974), "An Exploratory note on the shopping Behavior of the Low Income Senior Citizen", *Journal of Consumer Affaires*, 8, pp. 204-210.
- McCann, J. (1974), "Market Segment Response to the Marketing Decision Variabl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1, pp. 339-412.
- Moschis, G. P. (1996), *Gerontographics: Life-Stage Segmentation for Marketing Strategy Development*, Quorum Books.
- Phillips, L. W. & Sternthal, B. (1977), "Age Differences in Information processing: A Perspective on the Aged Consume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4, pp. 444-457.
- Plummer, J. T. (1974), "The Concept and Application of Lifestyle Segmentation", *Journal of Advertising*, pp. 5-15.
- Reinecke, J. (1964), "The older Market-Fact or Fiction?", *Journal of Marketing*. 28, pp. 60-64.
- Rokowski, W., Barber, C. E. & Seelbach, W. C. (1983), "Perceptions

- of parental Health Statue and Attitudes toward Aging", Family Relations, Vol.32, (Jan.), pp. 93-99.
- Rosow, L. (1974), Socialization to old Age, Berkeley, C.A.: Univ. of California Press. p. 27.
- Rutgers, B. B., & Schiffman, L. G. (1980), "Cognitive Age: A Nonchronological Age variable",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AMA, Vol. VIII, pp. 602-603.
- Samli, A. C. (1967), "the Elusive Senior Citizens Market", Dimensions (Nov.), pp. 7-16.
- Schaie, K. W. & Lavovief, G. (1974), "Generational Versus Ontogenetic Components of Change in Adult Cognitive Behavior: A Fourteen Year Cross-Sequential Study", Development Psychology 10, pp. 305-320.
- Schiffman, L. G. (1971), "Sources of Information for the Elderly",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11(Oct.), pp. 33-55.
- (1972), "Perceived Risk in New Product Trial by Elderly Consumer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9, pp. 106-108.
- (1973), "Social interaction pattern of the elderly Consumer", In AMA Combined Conference proceedings, eds, B.W. Becker and H.Becker, Chicago: AMA, pp. 445-451.
- Schiffman, L. G. & Kanuk, L. L. (1983), Consumer Behavior,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Schreiber, E. S. & Boy, D. A. (1980), "How The Elderly Perceive Television Commercials", Journal of Communication, Vol.4. pp. 61-70.
- Sherman, E. & Schiffman, L. G. (1989), "Elderly Life Satisfaction and Marketing Responsibilities : the 1990s-Elderly", AMA Educators Proceedings, Winter. AMA, p. 277.

- Sherman, E., Schiffman, L. G. & Dillon, W. R. (1988), "Age/Gender Segment and Quality of Life Differences", AMA, Educators Proceedings, AMA, Winter. pp. 319-320.
- Smith, R .B. & Moschis, G. P. (1981), "Consumer Socialization of the Elderly : an Exploratory Study",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XI, pp. 548-552.
- Solomon, M. R. (1999), *Consumer Behavior: Buying, Having, and Being*, (4th, ed.), Prentice Hall: Upper Saddle River, NJ.
- Stafford, J. E. (1966), "Effects of group Influence on consumer brand preferenc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 pp. 68-75.
- Tongren, H. N. (1975), "Consumer Credit and Over 65 Age Group", *Journal of Consumer Credit Management*, (Spring) pp. 117-123.
- Towle, J. G. & Martin, C. R. (1976), "The Elderly Consumer : One Segment or Many? "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IX, pp. 463-468.
- Visvabharathy, J. & Rink, D. R. (1983), "Selected Public Policy Issues Regarding the Elderly", *AMA Educational Proceedings*, pp. 396-398.
- Zeithaml, V. A. (1984), "How Consumer Evaluation Processes Differ between Goods and Services", in *Service Marketing*, Christopher Lovelock,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pp. 191-198.

불어의 내포문에 관한 연구(3)

류근중*

1. 서 론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 가운데 가장 큰 형태소는 문장이다. 그러나 문장에 따라서는 길이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존재한다. 길이가 긴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정과 수식이라는 언어적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첨가됨으로써 길이가 길어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긴 문장 가운데 두 문장이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을 이룬 복문에서 내포문의 통사적 특성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내포문의 종류, 구조, 내포동사의 법과 시제 등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내포문의 종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통사적 특징은 그 범위가 다양하고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3회의 고찰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불어의 내포문에 관한 연구(1)」¹⁾에서는 내포변형과 보어절에 관한 사항으로 내포 변형의 여러 가지 유형 그리고 보어절의 종류와 그에 따른

* 동의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1) 류근중, 동의논집 42집 참조.

보어절의 구조 및 보어절의 통사적 특성을 고찰할 것이다. 「불어의 내포문에 관한 연구(2)」에서는 내포문 가운데 간접 의문절, 부정법절, 관계절을 고찰하고 「불어의 내포문에 관한 연구(3)」에서는 상황절에 대한 통사적 특성을 고찰할 것이다.

특히 본문에 인용되는 예문은 Grevisse, Maurice(1986)의 *le bon usage* 와 Béchade, Hervé-D.(1986)의 *Syntax du français moderne et contemporain*, 그리고 Togeby, Knud(1985)의 *Grammaire française volume V: La structure de la proposition + index*에서 본 논문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예문을 인용하고자 한다.

2. 상황절(La proposition circonstancielle)

일명 부사절이라 불리어지는 상황절은 문장 가운데 동사의 임의적이며 부사적인 보어의 역할을 하는 절을 말하며 다양한 접속사에 의하여 이끌린다. 이 상황절은 의미에 따라 시간절, 원인절, 방법절, 결과절, 목적절, 양보절 그리고 가정절이라는 7개의 범주로 나누어지며 여기서 각 범주별 통사적 특성을 고찰하기로 한다.

2.1 시간절(La proposition de temps)

2.1.1 시간절의 유형

상황절 가운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절이 시간절이다. 불어에서 시간절은 주로 *comme*, *lorsque*, *quand* 등의 접속사에 의해 이끌리는 시간절과 *après que*, *dès que*, *pendant que*, *à l'instant où*, *au moment où*, *le jour où* 등과 같은 관용구로 이루어진 시간절로 구성된다.

종속절로서의 시간절은 다른 행위와 관련해서 모문이 위치한 때를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시간절은 모문이 이 시간절과 관련해서 선행적, 동시적 혹은 후행적 행위를 명시적으로 나타낸다. 그러므로 선행적 행위와 후행적 행위는 모문을 중심으로 서로 반대편에 위치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간절을 이끄는 접속사의 의미에 따라 시간절의 사실보다 모문의 사실이 선행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시간절, 두 사실이 동시적임을 나타내는 시간절, 모문의 사실이 시간절의 사실보다 후행적임을 나타내는 시간절, 두 사실이 동시적이거나 후행적 사실을 나타내는 시간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문의 사실이 시간절의 사실보다 선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시간절은 *avant que*, *d'ici à ce que*, *d'ici que*, *jusqu'à ce que* 등이 있으며 같은 의미로 *en attendant que*가 사용된다. 그러나 *en attendant que*는 시간절을 이끄는 접속사구로 굳어진 것이 아니라 *gérondif*와 보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que*가 합해진 것으로 분석된다.²⁾ 그리고 *avant que*의 경우 허사의 *ne*가 동반될 수 있다.

- (1) a. J'aurais failli mourir avant que le sort se change de m'éliminer.
- b. Il va t'attendre jusqu'à ce que tu aies terminé tes achats.
- c. Je veux les garder en attendant qu'il arrive.

두 절의 사실이 동시적인 것임을 나타내는 시간절은 *comme*, *pendant que*, *tandis que*, *en même temps que*, *tant que*, *alors que* 등이 있다. *alors que*는 「~하는 동안」이란 시간절이면서도 대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와는 반대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외에도 관계사(*relatif*) *que*나 *où*와 결합하는 *au moment où*, *le jour où*, *à l'instant où*, *au moment que*와 *cependant que*, *durant que* 등이 있다. 더욱이 *quand*이나 *lorsque*의 경우는 동시성과 마찬가지로 후행성에도

2) Grevisse, Maurice(1986), *Le bon usage*, P.1652.

사용되는 시간절을 이끈다.³⁾

- (2) a. Alors que les invités se disperseront en ordre régulier,
Anne Desbaresde s'éclipsera.
- b. Tout le monde le croit heureux, tandis qu'il est rongé de
soucis et de remords.
- c. J'allais mener la Douloire, tant que Clarius serait malade.

모문의 사실이 시간에 의해 나타내는 사실 보다 후행하는 시간절의 경우는 après que, dès que, aussitôt que, depuis que, une fois que 등을 들 수 있다.

- (3) a. Il a parlé après que j'ai eu fini.
- b. Dès qu'il sera arrivé, vous m'avertirez.
- c. Depuis que je le connais, je n'ai cessé de l'estimer.

2.1.2 시간절의 법

시간절에서 동사의 법은 만일 모문이 내포문과 관련해서 동시적 혹은 후행적 사실이라면 직설법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après que 다음에는 접속법을 사용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 (4) a. Quand nous aurons fini, nous partirons.
- b. Comme il me donnait cet avis, la cloche sonna le déjeuner.
- c. J'ai répondu que nous le ferions dès qu'elle le voudrait.
- d. Trois semaines après que cette phrase ait été écrite, un
fabriquant de masques me dit...

3) Ibid., P. 1654.

반면에 모문의 사실이 내포문보다 선행적 사실이면 접속법이 사용된다. 이는 실제의 사실(fait réel)이 아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가상적 사실(fait envisagé)이기 때문이다.

- (5) a. Il grelottait dans la nuit tiède en attendant que la grille s'ouvrît.
- b. J'irai le voir avant qu'il parte.
- c. Je verrai cet instant jusqu'à ce que je meure.

2.1.3 시간절의 동가 수단

모문과 내포문 간의 서로 다른 시간적 관계는 시간절을 대체하는 언어적 수단에 의하여 나타낼 수 있다. 그 예로 병치(juxtaposition)와 등위(coordination), 부정법, 분사법을 들 수 있다.

만일 모문이 내포문과 동시적 혹은 후행적 사실을 나타낼 때 이 병치와 등위를 이용하게 되는데, 두 절 사이에 동시성이 존재한다면 두 절은 모문-내포문 순으로 나란히 놓인다.

- (7) a. Junito retombe sur le sol comme un petit coussin, rattrape le chat du même mouvement.
(=En même temps qu'il rattrape le chat...)
- b. Les eaux se gonflaient et redescendaient lentement.
(= En même temps qu'elles redescendaient)

반대로 모문의 사실이 내포문의 사실보다 후행적이면 내포문+모문의 순서로 놓인다. 그리고 등위는 시간적 연속을 강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구문들은 après que, dès que 등의 내포문으로 바꾸어 나타낼 수

있다.

부정법 동사가 전치사를 동반하여 시간절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모문의 사실이 내포문의 사실보다 선행할 때는 *avant de*와 결합하고, 모문의 사실이 내포문의 사실보다 후행할 때는 *après* 다음에 부정법 과거와 함께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전치사 *à, de*와 함께 부정법 동사는 드물게 모문의 사실과 내포문의 사실이 동시적임을 나타낸다. 이때 부정법 동사의 주어는 모문의 주어와 같음을 전제로 한다.⁴⁾

- (8) a. Je ne savais pourtant pas ce qu'était le vrai malheur avant de connaître nos banlieues froides.
- b. Le lendemain, ça prend du côté de Niozelle après avoir tourné sur Oraison.
- c. A se plonger, pour compter les paliers, elle n'apercevait qu'un puits noir et profond.

분사법과 *gérondif*가 시간절을 대신할 수 있다. 분사법은 동시적 혹은 후행적 시간절을 대치할 수 있다. 분사법 현재를 통하여 동시성을 나타낼 수 있고, 분사법 과거를 통하여 후행성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시간부사를 사용함으로써 시간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다. *gérondif*는 동시성만을 나타낸다.

- (9) a. Et essuyant les larmes de sang qui sillonnaient ses joues, Ernie se détournait de la jeune fille.
- b. Pas plus tôt rentré chez moi, le sommeil m'assomme comme un coup de masse.
- c. Blâmez si vous voulez, mais décemment, et tout en criant vive le roi!

4) Béchade, Hervé-D.(1986), *Syntax du français moderne et contemporain*, P.269.

명사나 형용사가 삽입되면 동시성을 나타내는 시간절을 대신할 수 있다.

- (10) a. Pierre comprit que le rêve qu'il avait eu, enfant, et qui n'avait pas cessé de le hanter depuis, était prémonitoire.
 b. Elle n'était plus là mais n'en retenait pas moins dans sa couche celui qui, vivante, l'avait fuie.

2.2 원인절(La proposition de cause)

원인절은 모문과 관련해서 parce que, puisque와 더불어 대립절을 형성함으로써 반대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불어에서 감정의 원인을 표현할 때는 일반적으로 동사 다음에 que나 de ce que 가 따른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원인절과 비슷하지만 우리는 이 절을 원인절의 범주에 넣지 않고 보어절(complétive)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2.2.1 원인절의 유형

원인절은 인정 원인절과 불인정 원인절이라는 두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정 원인절은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실을 나타내는 절이고 불인정 원인절은 부정 원인절과 가정 원인절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정 원인절은 à cause que, attendu que, d'autant que, du fait que, du moment que, en ce que, étant donné que, sous prétexte que, vu que 등이 사용되나 가장 흔히 사용되는 접속사는 comme, parce que, puisque 등이다.

- (11) a. Du moment que leurs corps étaient là, leurs âmes étaient encore là.
 b. Comme il n'arrivait pas et que j'avais du temps, je me suis relevé.
 c. Puisqu'il est assuré que les hommes ne se passent point de récompense, tel serait mon sauvage bonheur.

원인절에서 parce que, puisque 그리고 유사한 가치를 갖는 접속사구 사이에는 뉘앙스에 따라 원인의 개념을 나눌 수 있다. parce que는 모문에서 이야기된 것 즉 모문의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을 나타내고, puisque는 반대로 모문이 제공할 설명을 필요로 하는 내포문을 이끌어서 모문에서 표현된 행위의 동기가 어느 정도 결과적인 것을 나타낸다.

부정이나 가정적 원인을 나타내는 절을 이끄는 이 접속사들은 앞서 고찰한 인정 원인절을 이끄는 접속사보다 수적으로 많지 않다. 부정 원인절로 쓰이는 접속사는 non (pas) que가 parce que를 강조하는데 쓰이는 mais와 더불어 “...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기 때문이다.”로 흔히 사용되는 구문이다.

가정 원인절은 soit que... soit que..., que...ou (que), que...ou non이 있으며 각기 양자택일을 나타는 표현들이다.

- (12) a. Il m'est toujours plus pénible qu'à quiconque de m'ex primer par le pronom JE; non qu'il faille voir là quelque signe particulier de mon orgueil, mais parce que ce mot JE résume pour moi la structure du monde.
 b. Soit que la foi qui crée soit tarie en moi, soit que la réalité ne se forme que dans la mémoire, les fleurs qu'on me montre aujourd'hui pour la

première fois ne me semblent pas de vraies fleurs.

2.2.2 원인절의 범

원인이 확실하게 나타내질 때, 다시 말하면 인정 원인절 다음에서 시간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설법이 사용된다. 그러나 원인이 거짓이거나 양자택일, 즉 부정되거나 가정된 원인을 나타낼 때는 접속법이 쓰인다.⁵⁾

- (13) a. Elle pleure, insensée, parce qu'elle a vécu! Et parce qu'elle vit.
 b. Puisque vous le voyez souvent, assurez-le que je l'aime beaucoup.
 c. Non qu'il ait été suffisant; mais il a été indispensable.

대부분의 원인절은 모문 다음에 놓인다. 왜냐하면 모문에 포함된 명시적인 질문에 답을 주기 때문이다. 반대로 puisque는 반대로 접속사의 의미(~이니까)에 비추어 명시적 질문이 놓이게 되기 때문에 내포문이 모문 앞에 놓이고, 문체적 가치를 중요시 되는 경우에는 순서가 유동적이다. 그러나 comme가 이끄는 원인절 만은 문장의 맨 앞에 놓이는 것이 규칙인 듯하다.⁶⁾

- (14) a. Elle me plaît, parce qu'elle me rappelle cette loi: on a rien sans peine.
 b. Puisque j'ai vécu jusqu'au jour d'aujourd'hui, y a pas de

5) Ibid., P.273.

6) Ibid., P.273.

raison que ça ne continue pas.

c. Comme on ne les voyait plus venir, on allait manger sans eux.

2.2.3. 원인절의 등가 수단

원인절의 경우는 시간절의 경우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원인절의 내용을 대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병치와 등위, 부정법, 분사법, 형용사와 명사 그리고 관계절 등이다.

병치와 등위는 명백한 종속현상과 관계되며 연속된 절은 원인의 논리적 관계만을 야기한다. 그리고 명시적 등위 접속사 *car*, *en effet*는 제2의 절을 이끌며 원인의 가치를 강조해준다.

(15) a. La pauvreté n'a jamais été un malheur pour moi: la lumière y répandait ses richesses.

b. Mais peut-être est-il temps que je m'arrête, car je m'aperçois que "ce que je crois" commence à ressembler un peu trop à ce que j'espère.

부정법이 원인절을 대신할 때는 여러 가지 전치사나 전치사구를 동반한다. 전치사 *à*, *de*, *pour*와 전치사구 *faute de*, *à force de*, *sous prétexte de*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때 모문의 주어와 내포문의 주어는 같다.

(16) a. D'avoir tordu le long de sentier les brins de genêt qui me frôlaient les mains, mes doigts sont restés âcres et verts.

b. Faute d'y être passés, ils ne peuvent pas savoir à quoi ils condamnent les accusés.

분사법을 이용하여 원인절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분사법 현재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gérondif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 (17) a. Etant la maîtresse du procureur Maillard, il vous suffisait,
pour me sauver, de lui dire la vérité.
b. En voulant bien que je t'aime, tu me donnais l'infini...

동격명사와 동격 형용사가 원인을 나타낼 수 있고 관계절도 원인절의 기능을 가지다. 이때 관계절은 늘 직설법이다.⁷⁾

- (18) a. Mais rebelles à la forme vide, les poètes le furent, par excès, à toute forme.
b. Le colonel, qui avait horreur des conflits, voulut en profiter pour parler d'autre chose.

2.3 방법절(la proposition de manière)

방법 절은 comment~?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사용되는 절을 말한다. 방법절은 나타내는 개념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2.3.1 방법절의 형태

방법절은 comment에 대한 대답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그 대표적인 형태로 de manière que, de façon que, de sorte que, comme, ainsi

7) Ibid., P. 275.

que, de même que, à mesure que, au fure et à mesure que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de manière que, de façon que, de sorte que는 결과를 나타내고 comme, ainsi que, de même que는 비교(comparaison) 혹은 합치(conformité)를 나타내며 à mesure que, au fure et à mesure que는 조화(proportion)을 나타낸다.⁸⁾ 그리고 sans que는 방법이나 결과를 나타낸다.

- (19) a. Il a partagé les gâteaux de manière que tout le monde est satisfait.
b. Il vous a traité comme il aurait traité son fils.
c. Il reculait à mesure que j'avancais.

2.3.2 방법절의 법

방법절의 법은 나타내는 의미에 따라 직설법과 접속법이 사용된다. 결과(conséquence)를 나타내는 de manière que, de façon que, de sorte que는 결과가 실현될 경우는 직설법이 사용되고 실현되지 않은 결과는 접속법이 사용된다.⁹⁾ 그러나 de manière à ce que, de façons à ce que 는 접속법이 사용된다.

- (20) a. Il a partagé les gâteaux de manière que tout le monde est satisfait.
b. Il a partagé les gâteaux de manière que tout le monde soit satisfait.
c. Elle plaçait son éventail de façon à ce qu'il pût le

8) Grevisse Maurice(1986), Op.Cit., PP. 1661~1664.

9) Ibid., P. 1661.

prendre.

비교(comparaison)나 합치(conformité)를 나타내는 comme, ainsi que, de même que는 직설법이 사용된다.

- (21) a. Ce n'est pas facile ainsi que je l'ai dit plus haut.
 b. J'ai planté des arbres, de même que mon père l'avait fait il y a vingt ans.
 c. Il vous a traité comme vous vous y attendiez.

조화(proportion)를 나타내는 à mesure que, au fure et à mesure que는 항상 직설법이 사용되고 방법과 결과를 나타내는 sans que는 접속법이 사용된다.

- (22) a. Il reculait à mesure que j'avancais.
 b. Les dents lui poussèrent sans qu'il pleurât une seule fois.
 c. On le relâcha bientôt non sans qu'il ait protesté.

2.3.3 방법절의 등가 수단

방법절을 나타내는 다른 수단으로 그리 많지는 않지만 절의 맨 앞에 형용사나 부사를 앞세운 두 절의 병치에 의한 방법과 동사나 형용사 그리고 비교급의 보어를 통하여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 (23) a. Tel il était à quatorze ans, tel il serait nonagénaire.
 b. Je ne suis pour toi qu'un renard semblable à cent mille renards.
 c. Je connaîtrai un bruit de pas qui sera différent de tous les autres.

2.4 결과절(La proposition de conséquence)

결과절은 주절에서 표명된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는 절로 정의될 수 있다. 결과절은 원인절과 대립적 관계에 있으므로 혼동의 여지가 없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결과절과 목적절은 경계를 분명히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결과와 목적의 개념들은 어느 정도 같은 영역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가령 “J'insiste pour que tu sois présent.”라는 문장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거나 목적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두 영역을 공유한다 할 수 있다.

2.4.1 결과절의 유형

대체로 결과절은 방법(manière)과 세기(intensité)를 표현하는 결과절로 구분할 수 있다. 의미적으로 방법을 나타내는 접속사구로는 de façon/de manière (à ce) que, de/en sorte que, sans que, si bien que 등이 있으며 대부분 tel에 의하여 한정될 수 있고 때로는 que에 의해서만 이끌린다.

- (24) a. Il a mangé goulûment, de sorte qu'il a été malade.
 b. Il a mangé goulûment, si bien qu'il a été malade.
 c. Les commandes pleuvaient à l'abbaye que c'était une bénédiction.

세기 표현의 결과절은 주절에서 세기의 상관어를 개입시키는 경우로 2가지 형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에 의한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관용구에 의한 형태가 그것이다.

세기표현의 접속사는 동사, 명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를 수식하는 세기의 부사에 의하여 주절에 나타난다. si... que, tant (de)... que, tellement (de)... que 등을 들 수 있다. si... que는 형용사와 부사를 동반하고, tant (de)... que는 동사와 명사를 동반하며, tellement (de)... que는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를 동반한다.

- (25) a. Pour l'instant, le vent souffle si fort qu'il couvre la rumeur
des vagues.
b. J'ai tant rêvé de toi que tu perds ta réalité.
c. Tu as tellement ri que tu nous as fait chavirer.

관용구에 의한 결과절은 pour que와 au point que에 의하여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해준다. pour que는 부사 assez, suffisamment, trop (de) 등과 같이 사용될 수 있으며 au point que는 tel을 동반할 수 있다.

- (26) a. Avais-je une chance our devenir une femme assez jolie pour
qu'on l'aimât?
b. Ma roue est trop large pour que je puisse seulement
pénétrer dans la cour.
c. Je manque de sommeil et de solitude à un point tel que je
ne les comprends plus.

2.4.2 결과절의 법

결과절에서 직설법과 접속법의 다음의 몇 가지 기준에 의하여 사용된다. 우선, 직설법은 접속사적 요소가 주절에 표시된 원인의 결과가 성취되었음을 인정할 때 사용된다. 그리고 종속절에 표시된 결과는 확

실하거나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세기와 방법의 결과절에서 두루 직설법이 사용된다.

세기(intensité) 표현의 경우 si, tant, tel, tellement과 같은 상관어나 au point que와 같은 관용구 등에 의하여 결과절의 출현을 예고하며 직설법이 사용된다. 방법(manière)의 결과절에서는 결과의 실현 여부에 의하여 법의 사용이 달라진다. 가령 de manière que, de façon que, de sorte que 등이 만일 결과가 실현된 경우는 직설법이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접속법이 사용된다.¹⁰⁾ 이때는 목적의 개념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 (27) a. Il y avait une locomotive si bonne qu'elle s'arrêtait pour
laisser passer.
- b. Il me méprise tellement que jamais je n'oserai lui parler
d'une chose pareille.
- c. Il a partagé les gâteaux de manière que tout le monde est
satisfait.
- d. Il a partagé les gâteaux de manière que tout le monde soit
satisfait.

결과절에서 접속법이 사용되는 경우는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실현되지 못한 결과나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는 결과를 나타낼 때이다.

우선 실현되지 못한 결과의 경우, pour que가 동반되는 세기의 결과절은 접속법이 사용된다. 또한 주절이 의문문이나 부정문으로서 원인으로 하여금 결과실현을 유도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도 접속법이 사용된다.

- (28) a. Est-il assez grand deuil pour que vous reveniez?
- b. Il est trop délicat pour qu'on puisse le travailler.

10) Grevisse, Maurice(1986), Op.Cit. P.1661.

- c. Notre civilisation est-elle donc si solide que vous ne craigniez pas d'ébranler ses piliers?

마음속으로 바라는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주절이 부정문으로 되어 있거나 falloir 또는 suffire 동사 다음에 오는 접속사구 pour que 다음에서 접속법이 쓰이고, 종속 접속사가 세기를 나타내든가 혹은 종속절이 우발성(éventualité)을 나타내는 경우도 접속법이 사용된다.

2.4.3 결과절의 등가 수단

결과를 나타내는 또 다른 수단은 두 절의 병치나 등위 접속사에 의한 등위에 의한 방법 등이 있고 부정법과 관계절에 의해서도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 (29) a. On s'arrange pour les faire travailler tout le temps et alors ils ne peuvent pas en profiter.
b. Trop timide pour aller toucher aux arrosoirs, il avisa un plantoir.
c. Il n'est point d'architecte qui puisse dire...

2.5 목적절(La proposition de but)

2.5.1 목적절의 유형

목적절은 주절에 의하여 표현된 행위가 어떤 의도 속에서 성취될 때, 우리가 달성하기를 바라든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결과를 담는

절이다. 요컨대 행위를 야기하는 원하는 결과나 혹은 거부된 결과 즉 바라지 않는 결과를 담는 절이다.

바람직한 결과를 담는 목적절은 *afin que, en sorte que, pour que* 등이 있으며, 바라지 않는 결과를 담는 절로는 *de crainte que, de peur que, par crainte(peur) que* 등이 있으나 명령문이나 의문문 다음에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¹¹⁾

- (30) a. Ils les piétinent afin que leurs pieds mêmes partagent leur bonheur.
 b. J'ai pris un imperméable de peur qu'il ne pleuve.
 c. Fuyez, qu'à ses soupçons il ne vous sacrifie.

특히 바라지 않는 결과를 담는 위의 절에는 허사의 *ne*가 동반되는 경향이 있다.

목적절은 늘 우리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 결과는 마음속으로 그리는 불확실한 것이므로 접속법이 유일한 시제로 사용된다.

이 목적절은 부정법에 의해서도 나타낼 수 있는데 *afin de, de(par) crainte de, de(par) peur de* 등의 전치사 다음의 부정법에 의한 것과 *aller, sortir, venir, envoyer*, 등의 운동동사 다음에 오는 부정법이 목적을 나타낸다.

- (31) a. Il but ensuite une tasse de camomille afin de faciliter sa digestion.
 b. Viens jouer avec moi, lui proposa le petit prince.
 c. Elle est sortie rencontrer son ami.

11) Béchade, Hervé-D.(1986), Op., Cit., P. 293.

2.5.2 목적절의 등가 수단

목적절은 부정법과 관계절에 의하여 나타낼 수 있는데 부정법을 사용하는 경우 *afin de*, *de crainte de*, *de peur de*, *pour*, *en vue de*와 같이 전치사를 동반하는 경우와 운동동사 다음에 전치사 없이 사용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목적절은 관계절에 의해서도 나타낼 수 있다.

- (32) a. Je me hâte afin d'arriver à l'heure.
 b. Je l'ai envoyé acheter du pain.
 c. Je voulais une situation pittoresque, et une maison où je fusse seul.

2.6 양보절 (La proposition de concession)

양보절은 모문이 나타내는 행위에 반대될 수 있는 이유, 다시 말하면 대립적 행위를 나타낼 때 이 내포문을 양보절이라 하며 모문과 내포문의 사실 사이에는 어떤 예견되는 논리적 관계를 갖지 않는다.¹²⁾ 이 양보절은 접속사 또는 접속사구에 의하여 이끌린다. 이 절은 양보의 정도에 따라 다음의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2.6.1 양보절의 유형

2.6.1.1 진정한 의미의 양보절

진정한 양보절은 양보절을 이끄는 도구에 따라 두 가지 종류의 양보

12) cf. Grevisse, Maurice(1986), *Le bon usage*, P. 1667. Dubois, Jean et alii(1973), *Dictionnaire de linguistique*, P. 110.

절이 존재한다. 하나는 접속사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사구, 형용사구, 부정 관계절 등을 통한 것이다.

접속사에 의한 양보절에서 양보가 의심스럽지 않은 사실과 관계될 때 bien que, encore que, quoique, malgré que가 쓰이며 de ce que는 양보절 과 원인절의 동시적 가치를 지닌다.

- (33) a. On lui donna un pourboire, bien qu'il ne le méritât pas.
 b. Et qui savait voir la terre aboutir à des fruits, point ne l'émeut l'échec quoiqu'il ait tout perdu.
 c. De ce que Proust a écrit d'admirables pages sur la jalousie, je me garderai de conclure que Proust, [...], était jaloux.

양보가 만일 가정에 가까운 사실과 관계될 때는 alors même que, même si, quand, quand (bien) même가 사용된다. 또한 양자택일을 나타내는 양보절은 soit que... soit que, soit que... ou (que), que... ou+négation이 사용된다.

- (34) a. Tout écrit possède un sens, même si ce sens est fort loin de celui que l'auteur avait voulu y mettre.
 b. On devrait tenir pour une impolitesse de décrire aux autres un mal de tête, une nausée, [...], quand même ce serait en termes choisis.
 c. Soit que je me repose ou que je me promène.

만일 양보가 형용사나 부사와 관련될 때 부사 또는 부사적 가치를 지닌 요소와 결합된 관용구 pour... que, quelque... que, si... que, tout... que 등에 의하여 나타내진다. 그러나 양보가 si에 의해서만 이끌릴 때는 주어가 도치된다.

- (35) a. Aux visage non plus, pour peu que les deux versants se
vaillent, il ne semble manquer rien d'essentiel.
b. Mais elle ne m'écoute pas, toute attentive qu'elle est au
manège d'un homme qui passe à plusieurs reprises devant
nous.
c. La poésie involontaire, si banale, si imparfaite, si grossière
soit-elle, est faite des rapports entre la vie et le monde.

aussi...que의 경우는 오늘날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20세기에는
si...que와 같은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었다.¹³⁾

- (36) a. Si mince qu'il puisse être, un cheveu fait de l'ombre.
b. Si mal que nous connaissons l'histoire des Tcheou, nous
savons donc que dès -771 leur pouvoir s'affirma.
c. Une part de sa vie, aussi petite qu'on la suppose, n'importe!

양보가 실사(substantif)와 관계될 때는 quel que, quelque...que 등의
부정형용사와 함께 사용된다.

- (37) a. Quelle que soit la méfiance qu'éprouve tout historien envers
les célèbres "dates fatidiques" [...], c'est cependant bien...
b. Quelque distrait que soit notre ami Paganel, on ne peut
supposer que ses distractions aient été jusqu'à apprendre
une langue pour une autre.

끝으로 대명사와 관계된 양보절은 대명사나 부정 관계 부사와 결합
된 표현에 의하여 이끌린다. 따라서 qui que, quoi que, où que, d'où

13) Grevisse, Maurice(1986), Op.Cit. P.1670.

que 등이 여기에 속하는 표현들이다.

2.6.1.2 대립적 혹은 제한적 가치를 갖는 양보절

우선 대립적 혹은 제한적 가치의 양보절이 존재한다. 우선 대립적 혹은 반대적 가치의 양보절은 시간을 나타내며 모문과 내포문 사이의 동시성을 설명하는 접속 도구 즉 접속사나 접속사구를 통해서 나타낸다. 따라서 *alors que*, *lorsque*, *lors même que*, *maintenant que*, *pendant que*, *quand*, *tandis que* 등이 이 유형의 양보절이며, 절대적 대립을 나타내는 접속 도구 *au lieu que*, *(bien) loin que*와 완화된 단순 대립을 나타내는 *si*도 이유형의 양보절을 이끈다.¹⁴⁾ 또한 *sans que*는 대립적 가치의 양보절을 이끌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양보절을 이끌 수도 있다.

- (38) a. Elle m'en voulait. Mais de quoi? Sans doute d'être encore vivant alors que son fils, mon camarade, était mort.
 b. Maintenant que nous arrivons au royaume, croyez-vous que je resterai en dehors?
 c. L'espérance cherche des secours hors d'elle, au lieu que la foi se jette dans l'aventure forte d'elle seule.

제한적 가치의 양보절은 간직(*réserve*)이나 배제를 나타내는 접속 도구인 *à moins que*, *excepté que/si*, *sauf que/si*, *si ce n'est que*, *sinon que* 등이 있다. 이 제한적 가치의 양보절 가운데 어떤 것들은 양보개념 뿐만 아니라 가정적 개념도 통합하고 있다.¹⁵⁾

- (39) a. A moins qu'on ne voulut attendre que l'Angélus carillonnait

14) Béchade, Hervé-D.(1986), Op., Cit., P. 276.

15) Ibid., P.277.

- à Saint-Jean de Brigues.
- b. C'est pourquoi encore cette épidémie ne m'apprend, sinon qu'il faut la combattre à vos côtés.
- c. Aussi très peu de gens ont-ils eu à se plaindre de moi sauf s'ils sont grossièrement venus se jeter dans mon chemin.

2.6.2 양보절의 법(mode)

종속절에 의하여 나타내는 사실의 확신성 여부에 따라 직설법¹⁶⁾과 접속법이 나누어진다. 우선, 접속사가 단순히 대답이나 제한을 나타낼 때나 종속절 속에 표현된 사실이 원인이나 의혹을 나타내지 않을 때는 직설법이 사용된다.

반대로 양보절에서 흔히 사용되는 법은 접속법이다. 접속사가 마음속으로 생각되거나 해석되는 사실이란 개념을 이끄는 때는 접속법이 사용된다. 따라서 à moins que, sans que 등은 접속법이 사용되고, au lieu que는 경우에 따라 접속법이 사용된다. 그러나 (bien) loin que는 사실에 대한 모든 확신을 인정치 않으므로 늘 접속법이 뒤따른다.

- (40) a. Le danseur ne revenait généralement pas pour la danse suivante alors qu'on ne revoyait pas Flora de la soirée.
- b. Je ne savais rien d'elle [la société des hommes], sinon que j'y logeais.
- c. Le lecteur d'un grand roman, d'une grande biographie, vit une grande aventure sans que sa sérénité en soit troublée.

진정한 의미의 양보절의 경우에 법 또한 직설법과 접속법이 사용된

16) 본고에서 직설법은 조건법을 포함한다. 특히 조건절 이외의 경우에 조건법이 직설법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조건법을 포함한 직설법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가정적 혹은 가능한 사실을 나타는 양보절에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alors même que, même si, quand, quand (bien) même* 등이 여기에 속한다.

- (41) a. *Alors même que vous insisteriez, je ne communiquerais pas ce document.*
- b. *Même s'il le savait, il ne le dirait pas.*
- c. *Quand (bien même) vous insisteriez, encore, je n'accepterais pas.*

진정한 의미의 양보절 가운데 접속법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을 이끄는 접속사와 더불어 나타난다. 가령 *bien que, encore que, en dépit que, quoique* 등이 여기에 속한다. 특히 *malgré que*의 경우는 위대한 작가들 가운데 필히 접속법이 사용되었다.¹⁷⁾

- (42) a. *Bien qu'il soit malade, il est sorti.*
- b. *Il occupe un poste important, encore il soit jeune.*
- c. *Quoiqu'il fasse mauvais, je sortirai.*

2.6.3 양보절의 등가 수단

위에서 언급한 양보절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 양보절과 같은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 그 실례를 보면 우선, 두 절을 병치시키거나 등위 접속사를 사용하는 등위에 의한 방법이 있다.

- (43) a. *Serions-nous muets et cois comme des cailloux, notre passivité même serait une action.*

17) Béchade, Hervé-D.(1986), Op., Cit., P. 281.

- b. Je n'ai rien bu hier soir, pourtant j'ai un mauvais goût dans la bouche.

둘째로, au lieu de, loin de, sans이 선행하는 부정법과 분사법을 사용하여 양보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 (44) a. Il s'agit d'une autre crainte qui, loin d'être fondée sur des instincts racistes de refus, vient au contraire d'instincts tendres et possessifs.
b. Les mots détruisent, les mots prédisent; enchaînés ou sans suite, rien ne sert de les nier.

셋째로,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에 의하여 양보절을 대신할 수 있다.

2. 7 가정절(La proposition d'hypothèse)

2.7.1 가정절의 형태

불어에서 가정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si 하나뿐이고 관용구를 사용하여 각종 가정을 나타낸다. 이 관용구는 à moins que, pour peu que, pourvu que, moyennant que(문어) 등과 조건이 양자택일 때 사용하는 soit que ... soit que, soit que ... ou que, suivant que..., selon que ..., en attendant que, supposé que, à supposer que, dans la mesure où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된다.

- (45) a. Si j'étais riche, j'achèterais une voiture.
b. Il se peut que l'on pleure à moins que l'on ne rie.
c. Soit qu'il parte, soit qu'il reste, moi je partirai.

가정절은 조건절(proposition de condition)이라는 용어와 병행하여 사용되는데, Béchade, Hervé-D. (1986)는 조건 절이라는 용어가 전체 용법의 일부로서 조건적 혹은 가정적 기지의 사실에 관련된 언술의 중요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조건 절보다는 가정 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임을 밝히고 있다. 18)

2.7.2. 가정절의 법과 시제.

가정절에 사용되는 법과 시제는 가정의 여러 양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2.7.2.1 현재나 미래에 대한 가정

우선 가정이 현재나 미래와 관련된 것이라면 두 가지 유형의 가정이 가능하다. 하나는 현재나 미래에 실현 가능한 가정이 하나이고, 현재나 미래에 대한 상상적 가정이 다른 하나이다.

우선, 가정이 현재에 대한 가정이 실현 가능할 때 주절과 마찬가지로 가정절인 종속절에서 직설법 현재가 사용되고 주절에 명령법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미래에 대한 가정이 실현 가능한 경우라면 가정절에서 직설법 현재가 사용되며 주절에서 직설법 미래나 경우에 따라서는 명령법도 가능하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현재는 현실화가 가능한 힘(force) 덕분에 가정에 준 확실성을 제공한다. 또한 주절에 사용되는 미래는 뒷받침되는 예측을 나타낸다.

(46) a. Moi je vais y penser tout le temps si je fais tuer des hommes.

b. Si vous voulez venir avec nous, [...], hâtez-vous d'aller

18) Ibid., P. 303.

vous mettre en tenue.

- c. Si tonton se remet avec une autre dame, il ne viendra plus
jouer au piquet à la maison.

반대로 가정이 현재와 관계되며 실현 불가능한 상상적인 것이라면 종속절에 반과거를 사용하고 주절에는 조건법 현재를 사용한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가정이 실현될 수도 있는 경우도 종속절에 직설법 반과거, 주절에 조건법 현재가 사용된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상상적 가정 가운데 주절에 직설법 현재나 미래 그리고 명령법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구어와 관계있다. 그리고 가정절에 반과거, 주절에 조건법 과거와 결합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과거에 실현되지 못한 우발성을 나타낸다.¹⁹⁾

- (47) a. Si j'étais plus jeune, les plis seraient moins marqués.
b. Si nous voulions, rien ne nous serait impossible.
c. Bien sûre, mais si tu étais libre, on ne t'aurait rien dit.

2.7.2.2. 과거에 대한 가정.

가정이 실현되지 못한 과거의 사실에 대한 것이라면 종속절에 직설법 대과거, 주절에 조건법 과거가 사용된다. 대과거는 전적으로 완료상을 나타내고 조건법은 과거의 과거에 실현되지 못한 우발적 가치를 지닌 채 대과거에 대응한다.

- (48) a. Si tu avais admis cette opinion, tu aurais eu tort.
b. Si j'avais décidé comme la plupart des hommes, non
seulement je me serais cru leur supérieur, mais je l'aurais
été.

19) Ibid., P. 305.

과거에 대한 가정 표현은 직설법과 접속법의 시제의 결합을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종속절에 직설법 반과거나 대과거가 사용되고 주절에 반과거가 사용될 때는 반복적 가치를 강조하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종속절에 대과거가 사용되고 주절에 반과거가 사용될 때는 실효성 있는 결과의 가치를 지닌다. 또한 종속절에 직설법 대과거, 주절에 조건법 현재가 사용될 때는 결과가 현재에 머물 때 사용된다.

- (49) a. Si Gabrielle le désirait, nous dînions.
 b. Si tu n'avais pas été si nerveux, je lui faisais sauter la cervelle.
 c. Si je n'avais pas toujours bien appris mes leçons, je n'aurais pas ma position de sous-préfet.

2.7.3. 가정절의 등가 수단

가정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으로 두 절을 병치시키는 방법, 부정법 및 분사법을 사용하는 방법, 분리형용사나 관계절을 사용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가정절을 대신할 수 있다.

- (50) a. Reparaissait-il à la maison, mon père le grondait.
 b. Ainsi conçue, la beauté n'a jamais asservi aucun homme.
 c. Mort avant la drôle de guerre, Giraudoux eût échappé aux tartinades [...].

3.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각종 상황절의 유형과 그 유형에 따른 상황절의 형태 및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상황절에 나타나는 동사들의 법과 시제가 다양하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순수한 상황절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상황절의 내용을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상황절의 종류별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간절과 관련하여 모문의 행위와 시간절의 행위의 선후관계에 의하여 시간절의 시제가 결정되며 다양한 형태의 시간절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절의 법은 일반적으로 직설법이 사용되지만 모문의 행위가 시간절의 행위보다 선행할 때 접속법이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제의 사실이 아닌 가상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원인절의 경우 원인은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실을 나타내는 경우와 부정되거나 가정된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원인절을 구분할 수 있으며 원인절의 법은 원인의 인정 여부에 의하여 원인이 인정된 원인절에서 직설법이, 부정되거나 가정된 원인절에서 접속법이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방법절은 결과, 비교, 합치, 조화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방법절에서 사용되는 법은 실현된 결과의 경우 직설법이 사용되고 실현되지 않은 결과에서 접속법이 사용된다. 또한 비교나 합치를 나타내는 방법절에서는 직설법이 사용되고 조화를 나타내는 방법절에서는 접속법이 사용된다.

결과절은 방법과 세기를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결과절에서 법은 직설법과 접속법이 사용된다. 직설법은 주절에 표시된 원인의 결과

가 성취되었을 때 사용되고 결과가 실현되지 못한 경우에는 접속법이 사용된다.

목적절과 관련해서 바람직한 결과를 담는 목적절과 바라지 않는 결과를 담는 목적절로 구분할 수 있고 바라지 않는 결과를 담는 목적절은 허사의 ne를 동반한다. 목적절에서 법은 유일하게 접속법이 사용된다.

양보절에서는 순수한 의미의 양보절과 대립적 혹은 제한적 가치를 갖는 양보절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양보절에서 법은 대체로 접속법이 사용되나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가능한 사실을 나타낼 때는 직설법도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가정절은 현재나 미래에 대한 가정과 과거에 대한 가정이 존재한다. 가정절에서의 법은 가정절에서 반과거나 현재가, 주절에 조건법 현재나 직설법 미래가 사용된다. 만일 가정이 실현 가능한 경우에는 직설법 현재가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과거가 사용된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가정은 가정절에 직설법 대과거와 주절에 조건법 과거를 사용하며 실현되지 못한 과거의 사실을 나타낸다.

Bibliographie

- Béchade, Hervé-D.(1986), *Syntax du français moderne et contemporain*, P.U.F., Paris.
- Bidois, George le et Robert le Bidois(1971), *Syntaxe du français moderne*, A. et J. Picard, Paris.
- Delaveau, Annie et Françoise Kerleroux(1985), *Problèmes et exercices de syntaxe française*, Armand Colin, Paris.
- Charaudeau, Patrick(1992), *Grammaire du sens et de l'expression*, Hachette, Paris,
- Dubois, Jean(1965), *Grammaire structurale du français: nom et pronom*, Larousse, Paris.
- _____ (1969), *Grammaire structurale du français: la phrase et les transformations*, Larousse, Paris.
- Dubois, Jean et Françoise Dubois-Charlier(1970), *Éléments de linguistique française: syntaxe*, Larousse, Paris.
- Dubois, Jean et G. Jouannon(1956), *Grammaire et Exercices de français*, Larousse, Paris.
- Dubois, Jean et René Lagane(1973), *La nouvelle grammaire du français*, Larousse, Paris.
- Dubois, Jean et alii(1973), *Dictionnaire de linguistique*, Larousse, Paris,
- Goffic, Pierre Le(1993), *Grammaire de la phrase française*, Hachette, Paris.

- Grevisse, Maurice(1986), *Le bon usage*, Duculot, Paris-Gembloux.
- Gross, Maurice(1968), *Grammaire transformationnelle du français*, Larousse, Paris.
- _____ (1975), *Méthodes en syntaxe*, Hermann, Paris.
- Gueron, Jacqueline et Thelma Sowley(1982), *Grammaire transformationnelle théorie et méthodologies*, Université Paris-VIII, Paris.
- Huot, Hélène(1981), *Constructions infinitives du français*, Droz, Genève.
- Kayne, R.-S.(1975), *Syntaxe du français: le cycle transformationnel*, Seuil, Paris.
- Mel'čuk Igor(1993), *Cours de Morphologie Générale* volume 1, P.U.M. Montréal.
- Picabia, Lélia(1975), *Eléments de grammaire générative applications au français*, Armand Colin, Paris.
- Ruwet, Nicolas(1967), *Introduction à la grammaire générative*, Plon, Paris.
- _____ (1982), *Grammaire des insultes et autres études*, Seuil, Paris.
- Togebly, Knud(1985), *Grammaire française volume V: La structure de la proposition + index*, Alademisk Forlog, Copenhagen.
- Wagner, R.L. et J. Pinchon(1962), *Grammaire du français classique et moderne*, Hachette, Paris.
- Wartburg, Walter von et Paul Zumthor(1973), *Précis de syntaxe du français contemporain*, Franke Berne, Berne.

[Résumé]

Etude sur les phrases enchâssées en français (3)

Ryu, Keun-jung

Cette étude a pour but de trouver les caractéristiques syntaxiques des propositions circonstancielles. Pour ce faire, dans le chapitre 2.1, nous avons examiné les caractéristiques des propositions de temps, puis dans le chapitre 2.2, les caractéristiques des propositions de cause, dans le chapitre 2.3, les caractéristiques des propositions de manière, dans le chapitre 2.4, les caractéristiques des propositions de conséquence, dans le chapitre 2.5, les caractéristiques des propositions de but, dans le chapitre 2.6, les caractéristiques des propositions de concession et enfin dans le chapitre 2.7, nous avons recherché les caractéristiques des propositions d'hypothèse.

Dans cette étude, nous pouvons remarquer les caractéristiques syntaxiques suivantes.

Nous pouvons vérifier que chaque proposition circonstancielle a en commun d'autres expressions équivalentes.

En ce qui concerne la proposition de temps, on utilise l'indicatif sauf avec la locution après que. Le temps se décide selon la relation entre la proposition principale et la proposition subordonnée.

Dans la proposition de cause, on emploie l'indicatif dans le cas où les subordonnants introduisent une cause admise et le subjonctif après les subordonnants introduisant une cause niée ou envisagée.

Dans la proposition de manière, on peut vérifier emploi de l'indicatif lorsque la conséquence est réalisée et le subjonctif si elle ne l'est pas.

En ce qui concerne la proposition de conséquence, on peut la classer selon que les subordonnants expriment la manière et l'intensité. On peut aussi vérifier que l'indicatif est employé si le subordonnant exprime l'intensité et la manière et le subjonctif si le subordonnant exprime la conséquence non acquise et la conséquence voulue.

Pour la proposition de but, on vérifie que le subjonctif est seulement employé.

Pour la proposition de concession, on peut classer la proposition concessive à valeur adversative ou restrictive et la proposition concessive vraie. On peut aussi vérifier que l'indicatif et le subjonctif sont employés concurremment selon le subordonnant.

Enfin, en ce qui concerne la proposition d'hypothèse, il y a deux sortes d'hypothèses; hypothèse concernant le présent ou l'avenir et l'hypothèse concernant le passé. Dans la proposition d'hypothèse concernant le présent ou l'avenir, on emploie le présent si l'hypothèse est supposée réalisée et l'imparfait si l'hypothèse est imaginaire. Et puis dans la proposition hypothétique concernant le passé, on emploie le plus-que-parfait.

mots-clés: but, caractéristique, cause, concession, conséquence, hypothèse, manière, mode. proposition, temps, subjonctif, subordonnant

막스 셸러의 지식사회학: 그 철학적 토대와 전개

이을상*

1. 머리말: 지식사회학이란?

지식사회학(Wissenssoziologie)이란 —그 개념 정의에 따르면— “지식의 사회적 피제약성”¹⁾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식사회학은 20세기 초 독일에서 형성되었으며, “여러 관점 중에서 하나의 관점이 하필이면 왜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며, 또한 과거와 동시대의 다른 형식과는 다르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사회적 문제들에 관한 각자의 견해가 그의 사회적 생활조건에 의존한다는 “의존성”을 확인하려는 것이고, 나아가 이 의존성에 근거하여 “왜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견해와 관점을 갖는가?”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식사회학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막스 셸러(Max Scheler, 1874-1928)이다. 셸러는 1924년에 쓴 “지식사회학의 문제들”(Probleme einer Soziologie des Wissens)이라는 장편논문에서 “지식사회학”(Soziologie des Wissens)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

* 동의대 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교수

1)M. Scheler, “Probleme einer Soziologie des Wissens”, *Die Wissensformen und die Gesellschaft*, 3판, 전집 8권, Bern, 1980, S. 17 참조.

하였는데, 이것은 예루살렘(W. Jerusalem)의 “인식사회학”(Soziologie des Erkenntnis)을 고쳐 부른 것이다. 어쨌든 셸러는 지식사회학이라는 이름 아래서 지식의 생산-분배-소비에 관한 체계적인 경험적 연구를 정초하려 했다. 이에 대한 연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수한 세계관이나 선입견이 갖는 사회적 피제약성의 폭로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지식의 사회적 피제약성이 드러남으로써 우리는 기존의 알고 있었던 것이 부분적 진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이 고백을 통해 또한 진리에 대한 올바른 통찰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인간의 지식이 사회적으로 제약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20세기 초에 형성된 독일 지식사회학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 아니다. (지식의) 사회적 피제약성이 지식사회학의 문제의식으로 주형되기 전에 이미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들이 전통적인 윤리적-종교적 계율의 배후에 있는 그 사회-경제적-정치적 요인을 통찰한 것에서 우리는 지식사회학의 발생사적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압데라의 프로타고라스(Protagoras of Abdera)가 말한 인간척도론(“인간은 만물의 기준이다”)은 사회적 규범이나 법, 관념 등이 인간 스스로 만든 것이며, 따라서 상대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음을 역설한다. 그러나 이 명제는 유감스럽게도 진리의 본성에 대한 성찰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고, 이로써 지식의 사회적 피제약성을 주장한 소피스트들의 견해는 소크라테스(Socrates), 플라톤(Platon),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가 확립한 장엄한 철학체계에 의해 철저하게 억압되고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환상”을 구별하려는 비판적 지식인은 언제나 있었다. 이런 지적 전통은 근세에 와서 베이컨(F. Bacon)의 “우상론”에서 부활되었고, 18세기 말에는 프랑스 계몽사상가들에 의해 “이데올로기”(Ideologie)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이와 함께 “이데올로기 비판”이 하나의 학적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 이데올로기 비판이란 인간의 의

식이 사회적으로 제약되어 있음을 밝히고, 이 의식이 사회적-정치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폭로하는 것이다. 이런 이데올로기 비판과 더불어 지식사회학의 근본명제인 “인간의 관념은 그가 살고 있는 사회의 필연적 산물”이라는 명제도²⁾ 또한 형성된다.

그렇다고 하여 이데올로기 비판이 곧 지식사회학은 아니다. 양자는 물론 등 근원적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적으로 엄밀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 먼저 양자는 모두 근대 부르주아지사회의 성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중세 봉건사회에서 근대 자본주의사회로 이행하는 시기에 신흥 부르주아지들은 자신들의 사회적-정치적 기반을 굳히기 위해 새로운 세계관을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생성시켰고, 이 이데올로기가 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데올로기 비판”은 비판한다. 여기서 이데올로기 비판은 다만 인식론적으로 고찰되고 있을 따름인데, 이것은 만하임(K. Mannheim)에 의하면 한갓 “이해심리학적”(interessenpsychologisch)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³⁾ 이 말은 이데올로기 개념이 “거짓말”이나 “간계”를 의미하는데 지나지 않고, 아직 “사회적으로 필연적인 현상”(gesellschaftlich notwendigen Schein)으로는 확대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데올로기 비판은 지식사회학의 문제제기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이해심리학적 차원의 이데올로기 개념을 사회적으로 필연적인 현상으로 고양시킨 것은 맑스(K. Marx)의 공적이다. 맑스는 프랑스 계몽사상가들이 제기한 “이데올로기-권력”이라는 문제설정을 “이데올로기-계급사회-계급지배”라는 테마로 확대시켜 이른바 “상부구조-하부구조”론을 제출한다. 이에 따르면 상부구조에는 정치적-종교적 관념뿐만 아니

2) Th. W. Adorno, "Beitrag zur Ideologienlehre", *Köl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Jahrg. 6, Heft 3/4, 1954/5, S. 363.

3) K. Mannheim, *Ideologie und Utopie*(5 판), Frankfurt/Main, 1969, S. 55.

라 도덕, 법률, 예술, 언어, (철학적-과학적) 지식 등 모든 문화적 소산과 정신적 산물, 계급의식 또는 개인의식을 특징짓는 모든 심리적 상태와 행위들이 속하고, 이에 대해 하부구조인 생산관계는 모든 법률적-정치적-이데올로기적 사회관계 및 사회생활의 모든 과정을 규정하는 토대로 정식화된다. 여기서 지식과 사회적 존재 간에는 명실 공히 하나의 “결정관계”가 성립하는데, 이 결정관계가 지식사회학을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맑스가 지식사회학—물론 맑스가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지만, 지식사회학의 문제제기는 실질적으로 맑스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⁴⁾—을 확립함에 있어서 근거한 방법론은 “실증주의”(Positivismus)이다. 맑스에게 실증주의란 부르주아지 관념론을 비판하는 이론적 무기이고, 자본주의사회에서 소외된 인간을 해방시키는 과학적 방법이다. 그렇지만 맑스의 이데올로기 비판이 루카치(G. Lukács)에게 계승되면서 실증주의적 태도는 반실증주의로 바뀌는데, 루카치에 의하면 실증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차이를 무시하는 기계론적 접근방법으로 부르주아지 학문의 전형적 특징이기 때문이다. 맑스주의를 속화시킨 주된 원인이 바로 이 실증주의에 있다는 것이 루카치의 진단이다. 이런 반실증주의적 태도는 비맑스주의적-부르주아지적 지식사회학, 즉 막스 셸러와 만하임의 지식사회학 전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고 하여 셸러와 만하임에 의해 형성된 지식사회학이 루카치의 노선을 따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셸러와 만하임의 부르주아지적 지식사회학은 맑스주의와 대결하면서 지식의 사회적 피제약성에 대한 통찰에서 당시의 학문적 위기상황을 세계관의 혼란으로 진단하고, 이 위기 극복을 위한 적합한 수단을 이데올로기 비판과 문화적 종합, 교육엘리트의 역할 등에서 찾는다. 이 점에서 셸러와 만하임은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지만, 만하임이 —자신의 “동태적” 지식사회학과는 반대로—

4) 전태국, 『지식사회학』,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2001, 287쪽 참조.

셸러의 지식사회학을 “정태적”이라고 규정한 것에서 보듯이,⁵⁾ 이후 행보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 즉 만하임이 실천적-정치적 이데올로기 비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맑스주의에 맞선 것과 달리, 셸러는 지식사회학을 다만 자신이 구상한 “철학적 인간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초로 삼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셸러의 거대한 철학체계에서 볼 때 지식사회학은 새로운 형이상학 수립을 방해하는 모든 지적 흐름을 격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셸러의 지식사회학이 높이 평가되는 까닭은 사고와 사회의 관계에서 역사적-사회적 조건으로부터 독립적인 가치와 정신의 세계를 논증하려 한 노력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셸러의 실증주의 비판의 기준과 지식사회학의 인식론적 전제인 “현상학적 방법”, 셸러 지식사회학의 핵심인 지식유형론과 사고유형론, 셸러에 있어서 지식사회학과 철학적 인간학의 관계에 관해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2. 반실증주의의 논거로서 “현상학”과 지식사회학의 인식론적 전제로서 현상학적 방법

지식사회학이 근대 자본주의적 시민사회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은 이미 말했다. 그렇다면 이런 지식사회학이 왜 하필이면 20세기 초에, 그것도 독일에서 생겨났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에서 출발해 보자. 그것은 당시 독일의 국가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당시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시민계층”의 형성이 순조롭지

5) K. Mannheim,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London: R.K.P., 1952), 전태국, 위의 책, 307쪽에서 재인용.

6) 이런 의미에서 셸러의 철학적 인간학은 “초인간학”(Meta-Anthropologie)이라 불린다.

못했지만, 비스마르크(O. Bismarck) 이후로 추진되어 온 국가 관료들에 의한 이른바 “위로부터 개혁”이 성공함으로써 일약 유럽의 신흥 산업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그러나 대량생산에 따른 소비시장의 확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독일은 불가피하게 제국주의의 길을 걷게 되고, 이런 역사적-사회적 현실은 독일 지식인들로 하여금 “합리주의적 이성”에 대한 회의를 증폭시키는 결과(즉 “이성의 도구화”)를 가져왔다. 이런 와중에 전통적으로 이성에 근거하여 안정을 구가해 온 세계관의 붕괴와 함께 정치적 사회세력간의 분열은 실증주의적-감각주의적인 과학주의의 대두와 함께 곧 이념적 분열을 초래했고, 이념적 분열은 곧 서구문명에 대한 전반적인 위기로 파악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것이 독일이 20세기 초에 처한 지적 상황인데, 이런 시대적 위기를 일찍이 후설(Ed. Husserl)은 “학문의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로부터 인간성의 근본적인 생활위기도 나온다고 진단한다. 그 원인을 실증주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즉 “19세기 후반 이후로 근대인의 모든 세계관은 실증과학에 의해 규정되고, 실증과학으로 이룩된 ‘번영’에 현혹되고 있는데, 이런 독단적인 생각은 진정한 인간성을 결정하는 기준의 문제와는 무관한 물음으로의 전향을 의미한다. 단순한 사실과학만이 단순한 사실적 인간을 결정한다.”⁷⁾ 이에 따르면 실증과학이 주관적인 것을 모두 제거해 버렸으며, 이로써 실증주의가 학문의 이념을 단순한 사실과학(Tatsachenwissenschaft)으로 환원시켜 버렸다는 것이 비판의 요체이다. 이런 실증주의 비판은 다시금 셸러에게로 이어지는데, 후설과 같은 맥락에서 셸러는 당시의 서구 산업화의 전형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쿵트(A. Comte)와 스펜서(H. Spencer)의 실증주의를 들고, 이런 실증주의적 원리가 인간 지식이 갖는 근원적인 생명성의 기원을 인식하지

7) Ed. Husserl,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e Phänomenologie*, 전집, Husserliana VI, Haag, 1962, S. 3-4.

못하는 한계로 인해 인간 지식의 욕구를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와 형이상학적 본질에 관해서도 잘못된 인식으로 인도했다고 비판한다.

종래의 통일성을 추구해 온 서구의 세계관은 19세기 말부터 해체되기 시작하는데, 이런 절대적 의미의 세계관이 와해되기 시작한 원인을 셸러를 비롯한 지식사회학자들은 모두 실증주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실증주의는 근대적 사고의 근본 속성을 상징하는 말인데, 이런 실증주의적 사고의 특징은 자기 사상의 외부에 있는 초인식적 인식근거(예를 들어 칸트의 "물 자체" 개념)를 배제함으로써 사고의 자기 완결성을 주장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런 사고의 자기 완결성은 다른 의미에서 사고의 폐쇄성을 의미하고, 사고의 폐쇄성은 지식산출자의 사회적 존재에 대한 자기 물음으로서 주관성에 대한 탐구와 특징한 지식의 사회적 존재 의의 등에 관한 문제는 폐기시켜 버린다.

이런 실증주의가 지닌 사고의 폐쇄성이 다른 아닌 지식사회학의 형성을 불러온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세계관이나 사고형식은 언제나 역사적-문화적 세계에 대해 통일적 의미를 갖고 있는 바, 이들이 사회적 측면으로 외재화할 때 지식산출과 관련된 인간적 주체의 매개기능을 주체의 자기반성을 통해 해명하려는 것이 지식사회학의 관점이다. 이 관점을 보다 구체화할 때, 지식사회학의 근거에는 세 개의 동기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성의 자기 동일성을 회의하는 “역사적” 관점에서 시대의 “전체적” 인식상황을 사회적 국면으로 외재화시켜 “비판”한다는 세 동기가 그것인데, 이때 비판이 반실증주의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셸러에 있어서 이런 반실증주의의 태도를 가능하게 해 주는 논거는 무엇인가? 단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현상학”(Phänomenologie)이다. 현상학이란 독일관념론이 붕괴된 이후 후설에 의해 고안된 인식비판이론이지만, 셸러는 칸트의 “형식주의” 비판을 통해 마침내 현상학에 이른다. 즉 근대 계몽주의의 완성자로서 칸트는 종래의 합리론적

전통과 경험론적 전통을 인식론적으로 형식과 내용의 결합으로 종합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는데, 먼저 『순수이성비판』이 “선천적 종합판단”의 형식에 뉴턴(I. Newton)의 고전물리학을 포섭시켰다면, 『실천이성비판』은 무제약적 “정언명령”의 형식에 개인의 욕구를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하나의 단순한 원리적(선천적) 형식에서 근대 과학과 실천의 모든 영역을 포섭시켜 탐구하려 한 칸트의 입장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이 “형식주의”이다. 칸트의 형식주의는 셀러에 의하면 “강철과 청동으로 이루어져 있고”,⁸⁾ 그런 까닭에 칸트 철학을 내재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의해서는 결코 분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난공불락의 형식주의라 할지라도 관점을 바꿔서 보면, 이미 확립된 형식적 개념에 근거하여 실질내용을 재구성하려는 시도에 불과한 것이다. 이 점에서 본다면 칸트의 윤리학은 당시의 프러시아적 에토스를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칸트의 형식주의에 항거한 셀러로서는 실천의 영역에서 기존의 형식에 가치를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가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또한 가치 현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태도결정에 가장 유효한 방법이 다름 아닌 현상학이었다. 현상학은 “사상 그 자체로”(zur Sache Selbst)라는 모토가 말해 주듯이, 근세의 관념론에 의해 부당하게 취급되어 온 “객관”으로 다시금 전회할 것을 요구한다.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의식과 의식의 형식 및 기능을 향하는 반면에, 현상학의 “객관으로 전회”는 모든 철학함의 출발점인 동시에 확고한 정위점(Orientierungspunkt)을 “현상”(Phänomenon)에 둔다. 현상이란 우리의 의식에 주어지는 직접적인 소여(所與, Gegebenheit)의 총체

8) M. Scheler, *Der Formalismus in der Ethik und die Materiale Wertethik*(이을상 외 옮김, 『윤리학에 있어서 형식주의와 실질적 가치윤리학』, 서울: 서광사, 1998), 40쪽.

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소여하는 것으로서 현상은 —실재하는 것의 측면에서 보자면— 실재의 “나타남”(Erscheinung)이고, 그것은 사상(事象, Sache)의 본질성을 의미한다. 현상학에서 현상과 본질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의 사상(事象)은 실재하는 현존재(Dasein)를 소유함으로써 시간-공간적인 인과관계 속에서 “지금-여기”에 실존하는 것이다. 이런 현존재의 계기들을 배제함으로써 우리는 사상의 구체적인 본질(즉 “그렇게 있음”, So-Sein)을 소유하게 되는데, 셸러에 의하면 이런 사상의 본질을 증류하는 “장치”가 곧 현상학이다.⁹⁾ 따라서 셸러에게 현상학은 하나의 인식비판이론이라기보다 “방법”으로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방법으로서 현상학은 (현상학적) 경험에서 근원적으로 “직관”하는 방식이다. 이때 직관이란 단순한 감각적 지각과 달리, 근원적 방식에 의해 본래적인 존재자 자신에게로 향하는 감지(感知, Wahr-Nehmung), 즉 지각이다. 이 점에서 셸러는 후설의 전통에 서 있다. 후설에 의하면 직관이란 우리에게 존재와 존재의 원리적 형식을 매개하는 근원적 방식이고, 이를 “본질직관”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것이 학적으로 확정되고 전달될 수 있기 위해 후설은 직관의 내용을 현상학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후설이 인식론적 비판에 천착하는 반면에, 셸러는 후설의 현상학을 계승하여 다만 “가치파악”에 적용했을 따름이다. 그리하여 셸러의 현상학적 방법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세계 그 자체와 가장 강렬하고 생생한 그리고 직접적인 결합”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런 맥락에서 셸러는 또한 자신의 현상학을 “근본적인 경험주의와 실증주의”라고 부른다.¹⁰⁾

9) H. Spiegelberg, *The Phenomenological Movement* 1권, the Hague: M. Nijhoff, 1960, p. 240 참조.

10) M. Scheler, “Phänomenologie und Erkenntnistheorie”, *Schriften aus dem Nachlaß* Bd. 1, 전집 10권, Bonn, 1986, S. 380 und 381.

그러나 셸러가 실증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콩트의 실증주의와 같은 것은 아니다. 비록 셸러가 (현상학적) “환원”이라든지 “직관”이라는 실증주의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셸러의 현상은 콩트의 “감각적 소여”와는 전혀 다른 본질적 존재를 가리킨다. 이런 본질을 직관하는 방식인 셸러의 경험주의도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수”로부터 하나의 법칙을 도출하는 귀납법이 아니다. 종래의 경험주의 및 실증주의와 달리, 셸러의 현상학은 현상학적 환원(직관)을 통해 하나의 사상을 있는 그대로 직관, 즉 무매개적으로 본질을 간취하는 것이다. 이 본질직관의 내용을 셸러는 “현상학적 사실” 또는 “순수사실”이라 부른다.¹¹⁾ 현상학적 사실은 —현상학적 방법이 다른 방법(경험주의와 실증주의)과 구별되듯이— 다른 사실, 즉 “자연적 사실”이나 “과학적 사실”과 구별될 때 가장 분명해진다. 먼저 자연적 사실이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 의한 소박한 신념으로부터 도출된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른다고 믿는 프톨레마이오스적 관념이 이에 속한다. 이런 견해는 우리의 감각에 근거하여 확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과학적 세계관에 의해 단호히 배격된다. 또한 과학적 사실은 자연적 영역으로부터 고도의 상징적 추상화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천문학에 관한 코페르니쿠스적 구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매우 인위적이고, 현상학적 사실은 이런 인위적 조작을 배격한다. 바로 이 점이 셸러가 실증주의를 비판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자연적 사실이나 과학적 사실과 구별되는 현상학적 사실은 우리 체험 속에 소여된 직관적 내용을 가리킨다. 셸러에 의하면 이 직관적 내용에서 “순수사실”, “본질”, “선천성” 등은 동일한 것이다. 그것은 모두 귀납적 경험에 선행하여 주어지는 “무엇”(Washeit)의 가장 근원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말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칸트적 의미에서

11) M. Scheler, “Lehre von den Drei Tatsachen”, *Schriften aus dem Nachlaß* Bd. 1, 전집 10권, Bonn, 1986, S. 443 참조.

오성의 구성물과도 전혀 다른 것이다. 이와 같이 셸러의 현상학적 방법은 우리 지식이 근거하는 전제비판을 통해 “사실 그 자체”를 지향하려는 것인데, 이런 전제 비판이 셸러 지식사회학의 인식론적 토대가 된다.

3. 지식의 사회적 피제약성 : 지식과 사고의 성격에 관한 셸러의 입장

현상학적 사실을 확정지은 다음, 셸러의 학문적 관심은 점차로 지식 일반의 문제를 향하는데, 이와 함께 셸러의 지식사회학도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셸러는 먼저 콩트의 3단계 법칙과 맑스의 상부구조-하부구조 도식에 대항하여 특정한 세계관과 이론이 생성되고 보급되는 사회적 조건에 관한 일종의 형이상학적 이론을 전개한다. 이로써 사고와 사회의 관계에서 역사적-사회적 조건으로부터 독립적인 정신의 영역을 증명하려는 노력에 의해 셸러의 지식사회학은 주형된다. 이하에서 우리는 먼저 콩트의 3단계 법칙과 관련하여 셸러의 “지식유형론”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맑스의 상부구조-하부구조의 도식과 관련하여 셸러의 “사고유형론”을 살펴볼 것이며, 끝으로 “이데올로기와 진리”의 문제에 관해 언급할 것이다.

가. 지식유형론

셸러는 콩트의 3단계 법칙과 대결하면서 자신의 “지식유형론”을 확립한다. 콩트의 3단계 법칙이란 인류의 정신적 진보과정이 최초의 종교(신학)적 단계에서 형이상학적 단계를 거쳐 최종적인 단계로서 실증적 단계에 이른다는 이른바 지식이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단계를 말한다. 그러나 셸러에 의하면 이런 콩트류의 지식발전단계설은 유럽 중심의 편

협한 시야에 불과한 것이고, 이런 유럽중심주의는 결국 실증적 사고에 입각한 자연과학이 한갓 자연의 인식과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셸러는 후설이 제기한 “유럽학문의 위기”를 간파했던 것이다.

콩트의 오류는 종교와 형이상학이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점차로 해체되고 사멸한다고 본 점이다. 셸러에 의하면 여기서 콩트는 근대 시민사회의 발흥과 더불어 생겨난 인류의 한 작은 집단의 종교적-형이상학적인 현대사적 퇴폐(Dekadenz)—즉 근대 자본주의 시대에 부르주아지들의 퇴폐—를 종교적-형이상학적 정신 일반의 사멸과정으로 오해한 것이다.¹²⁾ 이런 오해는 셸러의 입장에서 볼 때 현상학을 몰랐기 때문에 생겨난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에 대해 현상학적 방법에 기초한 셸러는 종교적-신학적 인식과 사고, 형이상학적 인식과 사고 및 실증적 인식과 사고는 지식발전의 역사적 단계가 아니라 인간정신의 본질 그 자체와 함께 주어지는 본질적-지속적인 정신태도와 인식의 형태라고 본다.

물론 셸러는 콩트가 지식의 형태를 세 개—종교적 지식, 형이상학적 지식, 실증적 지식—로 구분한 것을 수용한다.¹³⁾ 그러나 역사적 발전단계설은 부정한다. 이와 같이 지식의 역사적 발전단계설이 부정됨으로써 종교적 지식과 형이상학적 지식, 실증적 지식은 모두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형태로서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세 개의 지식유형의 배후에는 동기(충동), 지식의 사회적 기능, 이 지식유형에 전형적인 지도적 인물, 이 인물과 관련된 지식의 전달 형태, 사회적 기원 등이 작용하고

12) M. Scheler, “Probleme einer Soziologie des Wissens”, S. 68 참조.

13) 셸러는 세 개의 지식형태를 다른 말로 형이상학 또는 구체의 지식, 본질 또는 교양의 지식, 지배 또는 성취의 지식으로 구별한다. M. Scheler, 위의 책, S. 29. 그리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M. Scheler, “Die Formen des Wissens und die Bildung” *Philosophische Weltanschauung*, in *Späte Schriften*, 전집 제9권, Bern, 1976, S. 77 이하 참조.

있는데, 바로 이들 지식의 배후요소들에 대한 탐구가 셸러에 있어서 지식사회학의 과제인 것이다(다음 <표> 참조).¹⁴⁾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 지 양 식	동기(충박)	지식습득의 원 천 과 그 방법	이념형적 지도자	사회형식	사회 적 기원
종 교	구원을 통 한 자기유 지	신과의 접촉 을 통한 구 원	카 리 스 마 적 지도자, “신 성한 사람”, 성직자, 종교 인	교회 종파 공동체	계 급
형 이 상 학	세계와 사 물 에 대 한 의심	본 질 직 관 을 통한 지혜	현명한 사람, 현자	학교	직 업
실 증 과 학	자 연 과 사 회에 대한 통제의 욕 구	실험, 연역, 귀납을 통해 만들어 지는 수학적 상징 의 세계상	연구자-학자	국 제 적 과 학 공 화국	신 분

① 먼저 동기의 측면에서 종교는 세계를 조종하는 어떤 신성한 힘, 즉 절대자의 의지에 귀의하려는 충동에 기인한다면, 형이상학은 아리스

14) M. Scheler, “Probleme einer Soziologie des Wissens”, S. 68 참조. P. Hamilton, *Knowledge and Social Structure, An Introduction to the Classical Argument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London: R.K.p., 1974, p. 86.

토텔레스가 말했듯이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경이”에 기인하며, 실증과학은 직업적으로 노동하는 인간의 목표와 목적에 따라 자연과 사회를 조종하려는 욕구에 기인한다.

② 인식행동의 측면에서 종교는 인간정신의 수용적 특수한 행동(신과의 접촉을 통한 구원 행동: 예를 들어 소망, 공포, 사랑, 의지, 인식 등)에 기초하고, 형이상학은 본질인식(“본질직관”), 실증과학은 관찰과 실험, 귀납, 연역에 기초한다.

③ 종교의 목표는 인간과 집단의 구원이고, 형이상학의 목표는 지혜를 통한 최고의 인간 형성이며, 실증과학의 목표는 수학적 상징 속에 세계상을 수립하는 것이다.

④ 종교는 자신의 지도적 유형을 “종교인”(homo religious)에서 찾는 데, 이런 인간유형은 그의 배타적인 카리스마로 인해 믿음, 추종, 신뢰를 요구한다. 형이상학에서 지도자 유형은 “현자”(der Weise)인데, 현자는 세계의 본질구조에 대한 지식체계를 제공해 준다. 실증과학에서 지도자 유형은 “연구자”(Forscher), 즉 학자이다. 학자는 세계의 전체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한 부분이나 한 측면을 연구한다.

⑤ 종교인에 상응하는 사회적 범위는 교회, 종파, 교단이고, 현자에 상응하는 것은 고대적 의미의 학교(즉 학파: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학과 등)이며, 연구자에 상응하는 것은 연구조직(예를 들어 대학, 연구소, 아카데미, 학회 등)을 갖고 있는 국제적 과학공화국(wissenschaftlichen Republik)이다.

⑥ 종교로부터 사회적 “계급”이 유래하고, 형이상학으로부터 “직업”이, 실증과학으로부터 “신분”이 유래한다.

셀러는 지식의 유형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의 고삐를 놓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당시 유럽학문의 위기와 관련하여 그의 지식사회학에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모든 지식의 최고 규범으로서 통용되고 있는 실증주의의 지배적 지위를 타파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셸러는 실증주의적 방법과 현대과학에 대해 단지 서구사회가 취득한 극히 중요한 획득물임을 인정할 따름이다.¹⁵⁾ 다시 말하면 셸러에게 과학이란 기술합리적인(실증적) 방법에 의해 자연과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을 창조하는데 관심을 가진 근대 자본주의사회에서 부르주아지 계층의 계급적 산물인 것이다.¹⁶⁾

나. 사고유형론

셸러는 지식의 유형에 따른 사회적 기원을 계급, 직업, 신분으로 정리한다. 다시 말하면 이들 계급, 직업, 신분은 다시금 역사적-사회적으로 형성된 무의식적인 집단 편견적 프리즘을 통해 세계를 지각하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때 편견 그 자체는 정당화 이데올로기로서 의식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정당화 이데올로기에 의해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집단은 필연적으로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라는 두 계급으로 분화된다.¹⁷⁾ 물론 이 구분은 맑스가 처음 한 것이지만, 셸러는 이 두계급—즉 상층계급과 하층계급—의 “이해관심의 전망”(Interest sperspektive)을 그 법칙성의 측면에서 파악함으로써 지식사회학이 각

15) 이런 셸러의 생각은 자연지배를 향해 정위된 서구의 실증과학적 사고에 대항하여 “영혼기술”(Seelentechnik)을 지향하는 동양의 형이상학과 종교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서양의 실증과학과 동양의 영혼기술 사이의 조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런 유럽과 아시아의 조화는 근본적으로 유럽 중심의 편협한 실증주의 지식을 지양시켜 장엄한 하나의 문화적 종합(예를 들어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아폴론적인 것의 종합)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바로 이 거대한 문화적 종합에서 셸러는 명실상부한 본질적으로 가능한 “전인”(全人, Allmensch)이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M. Scheler, 위의 책, S. 146, M. Scheler, “Erkenntnis und Arbeit”, *Die Wissensformen und die Gesellschaft*, 3판, 전집 8권, Bern, 1980, S. 210 참조

16) P. Hamilton, 위의 책, p. 75 참조.

17) 이 구분은 셸러에 의하면 방법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것이다. M. Scheler, “Probleme einer Soziologie des Wissens”, S. 20.

계급 성원에게 편견에 경도된 이해관심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교육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층계급과 하층계급의 전형적인 사고경향을 셀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¹⁸⁾

- ① 시간의식의 가치전망주의=하층계급, 가치회고주의=상층계급
- ② 형성고찰=하층계급, 존재고찰=상층계급
- ③ 기계론적 세계관=하층계급, 목적론적 세계관=상층계급
- ④ 실재론(현저한 “저항”으로서 세계)=하층계급, 관념론(현저한 “이념의 왕국”으로서 세계)=상층계급
- ⑤ 유물론=하층계급, 유심론=상층계급
- ⑥ 귀납, 경험론=하층계급, 아프리오리한 지식, 합리론=상층계급
- ⑦ 실용주의=하층계급, 주지주의=상층계급
- ⑧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 과거에 대한 비관적 회고주의=하층계급, 미래에 대한 비관주의, 과거에 대한 낙관적 회고주의(“고대의 황금시기”)=상층계급
- ⑨ 모순을 발견하는 “변증법적” 사고양식=하층계급, 동일성을 추구하는 사고양식=상층계급
- ⑩ 환경결정론=하층계급, 생득주의적 사고=상층계급

이 구별은 셀러에 의하면 계급적으로 제약된 잠재의식적인 경향을 나타낸 것이고, 한 계급이 지닌 “편견”이 아니라 편견을 형성하는 작용의 형식적 법칙을 나타낸 것인데, 이 점이 중요하다. 이를 셀러는 “사회학적 이상론”이라 불렀다.¹⁹⁾ 그것은 —외부지각에 관한 베이컨의 이상론과 달리— 사고와 직관, 가치평가를 그 대상으로 삼는 내부지각에 관한 이상론을 말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규정된 이상은 그 성원에게

18) M. Scheler, 위의 책, S. 171.

19) 같은 책, S. 172.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대상에 관한 형식으로 계급 내부에서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것이며, 그런 한에서 세계 그 자체를 제공하는 각종 형식의 신념들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상층계급과 하층계급이 모두 대립적인 방향에서 세계를 관조하고 사고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를 셸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하층계급은 언제나 과거의 역사를 탄핵하고 비난하는 경향을 띠는데, 그 이유는 역사야말로 그들을 지금 위치에 처하게 해 준 장본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상층계급은 늘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과거를 조망한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결코 인류역사가 유죄인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하층계급은 “문화”에 대해 그 기원을 자연주의적인 충동요인에 귀착시켜 버리고, 최고선을 미래의 영역으로 이행시켜버린다. 예를 들어 신앙심 깊은 시대에는 신의 기적에 따라 생겨나는 것을 간절하게 기다려온 것이 최고선이며(종말론), 이상적 사회주의자들(utopischen Sozialisten)은 최고선을 “당위”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맑스주의 사회주의자들은 계급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자유에의 비약”이 곧 최고선이라고 직관한다.²⁰⁾ 이에 반해 상층계급은 미래에 대해 항상 불안에 가득 찬 시선을 보낸다. 왜냐하면 상층계급은 현실 속에서 늘 하층계급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2. 역사를 보는 시각에서도 하층계급과 상층계급은 차이를 보이는데, 하층계급이 생성을 고찰하는 반면에, 상층계급은 존재를 고찰하는 경향이 있다. 즉 하층계급은 언제나 새롭게 생성되는 것을 쫓아가고, 상층계급은 역사상의 모든 시점에서 비교적 안정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의 차이는 하층계급이 역사과정을 활발한 힘의 상호 “변

20) 맑스주의는 바로 고대 유대교의 메시아주의를 합리화한 형태이고, 신의 영역에 대한 희망을 세속화시킨 것에 불과하고, 이 점에서 맑스주의는 하층계급에 전형적인 이데올로기라고 하겠다. 같은 책, S. 171.

증법적인” 반발관계에서 이끌어냄으로써 “끊임없는 생성의 흐름” 속에 다시금 침전된 것을 역사로 보는 반면에, 상층계급에게 역사과정은 고정된 “과거의 왕국”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들은 역사를 마치 “위인과 영웅의 기념관”처럼 생각한다.

3. 기계적으로 “왜”라고 묻는 것은 사물을 적극적으로 분해하고 작동시켜 재합성하려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이유를 구하려는 욕구는 변화 그 자체를 문제삼는 경우에 “추론”의 직접적-부정적인 평가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목적론적 고찰과 “의미 충만한” 세계의 인상은 모두 “좋다”고 판단되는 변화를 통해 생겨난다고 보고, 이런 변화에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도 없고, 그 운동인(運動因)에 대해서도 “왜”라고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기계론과 목적론의 두 범주는 모두 인간행위를 통해 체험된 것이고, 다음으로 자연으로 전용(轉用)된 것인데, 이것을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명령하는 사람[상층계급]에게 범주는 모든 행위 속에 들어있는 목표이념으로서 나타나지만, 명령에 따르는 사람[하층계급]에게 범주는 같은 행위 속에 담겨있더라도 본능적 충격충동(또는 “추진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층계급은 언제나 소여된 사회 상태를 안정되고 유의미하며 목적론적이고 객관적인 세계질서의 소산으로서 체험한다. 이에 대해 하층계급이 실재론적인 사고양식에 애착을 느낀다. 왜냐하면 모든 실재성의 체험은 의욕과 관심의 활동에 대한 저항의 체험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런 하층계급과 상층계급의 차이는 다른 대립 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논증할 수 있을 것이지만, 셀러는 이것만으로도 “이해관심의 전망주의”를 확립하는데 충분하다고 본다. 이로써 셀러는 더 이상 에토스의 각 대립 항을 언급하는 대신, 맑스의 경제주의가 봉착하는 물신화와 유물론에 대한 비판으로 눈을 돌린다. 즉 셀러는 이해관심의 전망주의가 물신화될 때 과학도 계급 상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본다. 그리

하여 맑스의 경우에 “부르주아지”과학과 “프롤레타리아”과학을 각기 특수한 논리를 가지고 정초하려는 난센스가 생겨난 것이다.²¹⁾ 이 난센스로부터 맑스는 “사회적 존재가 필연적으로 의식의 형태를 규정한다.”는 근본적인 오류에 빠지고 만 것이지만, 셸러에 의하면 이런 계급적으로 제약된 사고양식은 근대 (독점) 자본주의의 “이익사회”라는 상황에서 취해진 것이지, 결코 맑스가 생각한 것처럼 역사의 발전단계에 따라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니다.

이를 발판으로 하여 셸러는 유물론 비판으로 나아간다. 즉 근대 (독점) 자본주의적 상황에서 맑스의 경제주의는 옳다. 그러나 맑스의 경제주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오류를 범하고 만다. 즉 첫째로 계급적으로 제약된 우상의 체계들을 사물의 존재 형식 및 생성 형식과 동일시할 때, 둘째로 사상적으로 타당한 사고와 직관, 평가의 형식과 동치시키고, 계급적 이해관심이라는 범주적 전망주의와의 유추를 통해 평가할 때, 셋째로 경제주의를 “필연적인” 사고경향과 직관의 동인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계급에 속하는 모든 개인의 인식적 정신활동이 반드시 이런 경향과 동인에 따라야만 한다는 주장을 인과적 필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오류가 생겨난다. 이런 사고양식은 셸러에 의하면 원리적으로 극복 가능한 것이다. 즉 그것은 사회학적 이상론에 의해 그 사회학적 법칙성이 인식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인데, 바로 이 점에서 셸러는 이른바 지식사회학의 실천적-교육적 가치를 찾는다.²²⁾

다. 이데올로기와 진리

셸러의 지식사회학은 우리의 사고가 계급적으로 구속되어 있음을 간

21) 같은 책, S. 175

22) 이 점에서 셸러는 지식사회학을 특히 “계급의 지식사회학”(Wissenssoziologie der Klassen)이라 부른다. 같은 책, S. 173.

파하고, 이런 계급편견과 계급이데올로기는 원칙적으로 극복될 수 있음을 역설한다. 그렇다고 하여 이데올로기적으로 드러나는 계급 구속적 사고를 우리는 “비진리”라고 선불리 속단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비진리란 일종의 “허위의식”을 말하는데, 이런 허위의식은 셸러에 의하면 거대한 형이상학적 도식을 간과함으로써 생겨난 것이다. 이에 반해 셸러에 있어서 진리란 구체적인 역사 속에 나타난 인간의 실천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집단들과 계급들이 몫을 나누어 가지는 영원한 객관적 “로고스”(Logos)를 말하는데, 이 로고스는 하나의 역사 초월적 원리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 그 자체는 상이한 계급—상층계급과 하층계급—에게 “상이한 종류의 형식적 각인”을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 준다. 따라서 각 계급의 보편적 이해관심의 전망주의는 다양한 전망들이 다만 부분적인 진리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셸러에 있어서 영원한 객관적 로고스와 계급 전망적 사고, 진리와 이데올로기의 관계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 진리인 이데올로기를 실체화할 때, 여기서 사고는 필연적으로 “허위”의 사고, 즉 허위의식으로 나아가게 된다. 셸러는 맑스주의를 피억압자이데올로기의 한 형태로 파악한다.²³⁾ 그렇다고 하여 맑스주의가 “허위”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셸러는 맑스주의가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고의 계급적 피제약성”에 대한 탁월한 통찰을 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 다만 맑스의 교리가 허위로 되는 것은 계급의 이해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하나의 세계관 지식으로 실체화되고, 이 실체화가 “본질지식”을 대신할 때 생겨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이데올로기 비판으로서 지식사회학의 의의가 있는 것이

23) 하층계급에 전형적인 이데올로기로서 맑스주의는 셸러에 의하면 바로 고대 유대교의 메시아주의를 합리화한 형태이고, 신의 영역에 대한 희망을 세속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같은 책, S. 171.

다. 그런데 지식사회학은 특정한 이념의 진리 또는 허위에 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이념요인”(Idealfaktoren)과 “실질요인”(Realfaktoren)이다. 이념요인이란 역사적-사회학적인 실질요인으로부터 독립적인 가치영역과 정신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또한 실질요인으로서 셸러는 혈연, 권력, 경제 등 세 개의 “충동”을 든다.²⁴⁾ 이와 같이 셸러가 이념요인과 실질요인이라는 두 영역의 존재론적 이원론에 지식사회학을 정위한 것은 맑스의 상부구조-하부구조의 도식에다 존재론적 위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서로 독립적이고 이질적인 이념요인과 실질요인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느냐” 하는 물음이다. 이 물음에 대한 전통적인 철학적 대답은 관념론과 유물론이다. 그러나 순수 정신적인 것으로부터 물질적인 것을 추론(연역)하는 관념론이나, 순수 물질적-경제적인 것으로부터 정신적인 것을 추론(귀납)하는 유물론은 그 자체 편협적인 대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셸러의 생각이다. 셸러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은 “정신적인 동시에 본능적이다.” 그런 만큼 셸러의 지식사회학은 맑스의 상부구조-하부구조의 도식에 출발하지만, 경제적 결정론의 입장에 서 있는 맑스의 “경제주의”에 대항하여 정신과 자연(충동)의 관계에 대한 엄밀한 재규정을 역설한다. 즉 인간에 있어서 정신과 자연은 셸러에 의하면 원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으로 환원되어도 안 되고, 다른 쪽의 표현이나 유출로 간주되어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셸러의 입장은 전통적인 관념론과 유물론의 견해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의식과 존재의 관계에 대

24) 같은 책, S. 17. 이에 따르면 위에서 말한 계급 구속적 사고의 일면적 실체화란 실질요인에 의해 제약되고 있는 사고를 보편적인 이념요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명하려 할 때 생겨나는 것이며, 또한 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고를 가치평가의 형태와 동일시할 때 생겨나는 것이다.

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셸러는 “실질요인의 의미맹목적인 운명의 작용에 대해 정신은 무력하다”는 공리를 제시한다.²⁵⁾ 이 공리는 실제로 독일 지식사회학의 중심적 모티브가 되었지만, 동시에 셸러 “철학적 인간학”의 핵심이기도 하다.

4. 지식사회학의 종착지로서 철학적 인간학

지식의 사회적 피제약성 분석에서 출발한 셸러의 지식사회학은 존재론적으로 구분된 두 영역—이념요인과 실질요인—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협동을 인과적으로 분석하는데 이르러 마침내 완성된다. 셸러에 의하면 인간의 역사는 영원한 정신(즉 이념요인)과 의미맹목적인 생물학적으로 구조화된 충동(즉 실질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이 상호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먼저 셸러는 실질요인(즉 혈연, 권력, 경제)이 정신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 분석은 문화발전을 설명하는 종래의 지배적인 시각, 즉 인종생득주의, 정치주의, 경제주의를 상대화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왜냐하면 이들 각 입장은 모두 위에서 언급했듯이 하나의 충동을 유일한 결정요인으로 삼는 실체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셸러는 세 요인이 역사적으로 불변한 것이 아니라 발전의 도식 위에서 서로 상이한 작용적 우위를 나타낸다고 본다. 이로써 문명성장의 세 단계가 확정된다.²⁶⁾

① 혈연관계가 사건의 독립변수를 이루고 집단의 조직형태를 결정하는 단계

25) 같은 책, 21-22.

26) 같은 책, S. 44-45.

- ② 정치적 권력의 요인들이 국가의 효력에 관련된 활동을 지향하는 단계
- ③ 경제가 인과적으로 우월성을 갖고 있으며, 경제적 요인이 “정신의 수문”을 열고 닫는다는 의미에서 실제적인 사건을 결정하는 단계

이 단계들은 맑스의 경제주의적 분석이 —경제적 충동이 봉건사회의 권력의지를 대신한 근대적 특성에 비취볼 때— 정당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역사적 유물론의 경제주의적 역사해석은 셸러에 의하면 오직 근대 독점자본주의 상황에서만 통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유물론이 역사적 일반성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역사적 유물론이 잘못이라 하여 셸러는 사회적 존재에 대한 정신적인 것의 자율성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는 종래의 관념론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역사적 유물론은 이미 “이성의 간지”를 주장하는 헤겔의 관념 변증법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오늘날 인간의 문화적 성취는 또한 그때마다 주어진 역사적 상황에 연원하며, 이때 진리란 특정한 시간의 진리라고 보는 역사적 사고가 사회학적 분석의 공리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이를 셸러는 이념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회적 기초를 필요로 하는 동시에 사회집단은 자신들의 성격과 열망을 표현해 주는 적합한 이념을 찾는다는 말로 해석한다. 이와 같이 인간의 역사를 구성하는 두 요인을 이념과 존재로 구분한 것은 맑스의 상부구조-하부구조 도식을 차용한 것이지만, 맑스가 하부구조를 나타내는 집단들이 자신에게 유용한 이념들을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성을 지닌 존재로서 전제한 것과 달리, 셸러는 “실질적인 역사의 흐름은 정신적 생산의 의미논리적 요구에 대해 전혀 무관하다”는 말로서 이념과 존재 사이의 선택적 친화성을 배격한다. 실질적인 역사와 정신의 역사가 서로에 대해 전혀 상관이 없고, 이념요인과 실질요인이 내용상으로 서로 하등의 형성력을 가

지고 있지 않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영역이 특정한 역사단계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 물음과 관련하여 셸러는 실질요인에는 이념과 관련한 사실연관성만을 인정하고, 그 타당성연관은 이념 그 자체에 부여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1592년에 발발한 임진왜란이 그 사실연관에서 보자면 일본이 조선을 침공한 것이지만, 그 타당성연관에서 보자면 임진왜란의 성격을 “도자기전쟁”으로 규정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셸러에 따르면 여기서 이념요인은 사실의 인과관계로서 설명될 수 없는 “엘리트”의 자유의지와 자유행동으로 환원된다.²⁷⁾ 위에서 우리가 특정한 이념과 가치라고 부른 것도 결국 엘리트의 자유의지와 행동을 가리키는 말인데, 인간의 역사에서 실질요인은 이런 엘리트의 특정한 이념과 가치가 구체적-역사적 상황에서 어떻게 활성화되는가를 결정한다. 이 점에서 엘리트는 인간역사의 “적극적인 실현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들 엘리트는 역사에서 활성화된 이념들의 효과적인 문화보급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 역사에서 엘리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한 실질요인의 의미 맹목적 작용에 대한 정신의 무력함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셸러에 의하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 즉 이념의 구체적-역사적 운명은 실질요인에 의해 규정되지만, 실질요인 그 자체는 완전히 의미 맹목적으로 발전한다. 정신은 이런 실질사(實質史)에 대해 지체시키거나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 다만 소극적으로 관여할 따름이다. 그리하여 이념요인과 실질요인은 각기 존재론적으로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고, 각기 자신의 법칙에만 복종하며, 서로에 대해 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 그러나 이 두 요인이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을 때 정신과 충동은 상호작용이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정신은 스스로 자신의 내용에 생명을 불어넣을 힘을 가지고 있

27) 같은 책, S. 39.

지 않다. 바로 이 점에서 정신은 무력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정신의 무력함은 —관념론과 달리— 실질요인의 가치 맹목적 작용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형성적 또는 변화적 간섭을 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렇다고 하여 유물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실질사의 변화 가능한 운명이 정신작용의 지적 내용을 결정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구체적 역사 속에서 실질요인은 정신이 현실화되어 출현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정신의) 갑문(閘門)을 열거나 닫는다는 측면에서 규제할 따름이다.²⁸⁾ 여기서 정신과 충동(즉 자연의 충동구조)이 관계하는 고도의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메커니즘이 실제로 일어나는 장소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셸러의 지식사회학은 마침내 그의 “철학적 인간학”으로 이행한다. 철학적 인간학이란 지식의 산출자인 “인간” 그 자체에 대한 근원적 통찰을 말하며, 이런 인간학적 문제제기는 셸러 철학 전반을 관통하는 일관된 생각이다. “어떤 의미에서 철학의 모든 중심문제들은 인간이 무엇이며, 인간이 존재 전체와 세계, 신 가운데서 어떤 형이상학적 지위와 위치를 차지하는가라는 물음에 귀착된다.”²⁹⁾ 철학적 인간학의 문제란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존재 전체 속에서 인간이라는 생물학적 종(種)이 차지하는 형이상학적 위상에 관한 것이고,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정신”과 (생물학적) “충동”의 관계에 관한 물음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식사회학의 “이념요인”과 “실질요인”의 개념을 정신과 충동의 개념으로 바꾼 것에 다름 아니다.

셸러의 철학적 인간학은 먼저 “정신”과 “충동”의 개념을 해명하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구조적으로 볼 때 데카르트(R. Descartes)의 “심신이원론”의 구조와 유사한 이원론적 구조를 이룬다. 물론 데카르트와 셸러

28) 같은 책, S. 40 참조.

29) M. Scheler, “Zur Idee des Menschen”, *Vom Umsturz der Werte*, 전집 3권, Bern, 1972, S. 273

는 정신의 존재가 외연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로 일치하지만, 데카르트의 정신이 “자족적” 특징을 갖는 반면에, 셸러의 정신은 충동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한에서는 단지 가능성을 지닌 속성일 뿐이며 또한 충동과의 조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려는 어떤 적극적인 “힘”도 지니고 있지 않는 무력한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의 존재가 의의를 가지는 것은 삶의 충동과 더불어 인간존재의 완성(즉 인간됨)에 관계한다는 점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신의 존재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생명”(Leben)이라 불리는 모든 것의 바깥에 놓여있고, 정신이라는 말은 “아마도 이성이라는 개념도 포함하기는 하지만, 관념적인 사고와 동시에 또한 일종의 직관, 즉 근원적인 현상 또는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직관도 포함하고, 나아가 호의, 사랑, 후회, 외경, 정신적 경탄, 지복과 절망, 자유로운 결단과 같은 특정한 부류의 의지적이고 정서적인 작용도 포함하는 말이다.”³⁰⁾

이와 같이 정신을 생명과 분리시킴으로써 셸러는 “초월”과 “비약”이 가능하다고 말한다.³¹⁾ 즉 정신은 초월과 비약에의 “작용”(Akt)이고, 그 작용의 중심에 인격(Person)이 존재한다. 인격이란 셸러에 있어서 매우

30) M. Scheler, *Die Stellung des Menschen im Kosmos*, Bern, 1978, S. 38.

31) 여기서 말하는 초월과 비약이란 정신적 존재로서 인간이 그의 신체와 환경의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그것을 넘어서 전진적으로 비약할 수 있는 운동을 말한다. 이로써 인간은 자연과 신 사이에 놓여있는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두 영역간의 “다리”, “이행” 또는 “운동”임을 나타내게 된다. 초월과 비약에서 인간은 모든 자연과 본질적으로 구별되고 모든 삶을 능가하는 한편, 또한 대상을 파악하는 작용으로서 대상 존재의 “여기 지금”(hic et nunc)의 현존체로부터 독립하여 내용의 연관에 관계하는데, 이를 셸러는 “세계개방성”이라 부른다. 즉 세계개방성이란 —동물이 그의 환경 속에 몰아적으로 몰입해 있음에 반해— 인간의 정신은 동물과 반대로 환경을 저항의 중심체로 파악함으로써 세계를 소유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세계개방성은 환경을 세계로 확대시키는 능력이다. 이로부터 또한 인간 정신에 의한 이념화도 가능해진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이을상, “막스 셸러에 있어서 인간의 본질과 형이상학의 문제”, 『철학논총』, 제9집, 1993, 79-101쪽 참조.

특수하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인간성의 이념인 동시에 고대 그리스와 중세 그리스도교 신화(神化, Gottwerden)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런 인격의 개념이 정신의 작용 가운데 실존한다는 것은 정신이 인간의 생명과정을 이념화한다는 것을 말하고, 이런 의미에서 이념화는 하나의 영원한 과제이고, 영원히 빛나는 목표이다. 그런데 이념화는 위에서 말한 정신의 “무능력”과 관련하여 하나의 문화적 내용을 실행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셸러에게 이념은 하나의 “결정요인”(Determinationsfaktor)이지 결코 “실행요인”(Realisationfaktor)이 아니다. 여기서 셸러의 입장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정신이란 일종의 소극적 능력으로서 오직 “제지(hemmen)하거나 또는 제지하지 않는(enthemmen)” 능력이다. 따라서 실제적인 행동에서 정신의 능력은 셸러에 의하면 언제나 “소극적”(negativ)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정신은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사회와 역사에 대해 “힘없이” 작용한다.

그렇다면 문화의 결정요인으로서 정신에 대응하는 실행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충동이다. 충동이란 —정신이 우주(또는 가능한 모든 세계)의 관념, 근원현상, 가치, 목표들이라면— 일종의 (근원적) 물질, 에너지, 적극적 능력, 힘 등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충동 그 자체는 정신과 함께 지고(至高)한 존재, 즉 신의 두 속성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기원을 지닌 충동은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이고 어떤 목표도 갖고 있지 않지만, 정신에 실질적인 힘을 실어주어 정신이 의도하는 바를 활성화시킨다. 이와 같이 정신이 의도한 바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본다면, 충동은 또한 정신에 의해 제지(non fiat)당하거나 제지당하지 않거나(non non fiat) 하는데, 충동은 실행력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결정력은 정신에게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정신이 부재한 충동 그 자체를 상정할 수 있는데, 셸러에 의하면 정신이 충동을 제지하지 않을 때 그 실재성(Realität)은 최대에 이른다. 이와 같이 충동으로부터 형성되는 실재성에 “생명 그 자체”가 포함됨으로써 생명은 정신에 대비

된다. 그리하여 인간에 있어서 정신과 생명이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정신과 생명의 이원론이야말로 셸러가 철학적 인간학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핵심이다.³²⁾

정신과 생명의 상호작용에 관해 셸러가 제기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즉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력한 정신이 한 특정한 문화적 시기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점이고, 또한 “충동이 맹목적이라면 무력한 정신과의 조화도 순조롭지 않을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사실 이런 문제제기는 이원론이 봉착하는 공통된 문제의식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셸러도 또한 정신과 충동이 서로 활발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종의 매개적 역할을 해주는 “사랑”(Liebe)을 요청하게 되고, 이로써 사랑은 인간의 가장 심층적 부분에 놓이게 된다.³³⁾ 이런 사랑의 활동에 대해 셸러는 가치를 발견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이 말의 의미는 셸러의 인식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셸러는 인간의 “앎”(Wissen)을 단순히 새로운 개념의 취득이라 보지 않고, 모든 (가능한) 사물의 본성에 관계하는 일종의 “존재관계”라고 이해한다.³⁴⁾ 바로 이런 존재관계를 일깨워주는 것이 사랑의 역할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어떤 사물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이 의미를 지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정신의 이념화 작용과 관련하여— 지고한 존재인 신에게까지 확대된다. 그리하여 어떤 지고한 앎의 목표가 (사랑

32) 생명과 정신을 존재론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셸러는 정신의 정체성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셸러는 인격의 개념을 제시하는데, 셸러에 의하면 인격은 첫째로 어떤 대상화할 수 없고, 둘째로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본질적 징표가 되며, 셋째로 이로 인해 인간은 전 우주와 본성적으로 동일하고 (소우주), 넷째로 인간이 인격으로 나아가는 그 지점에 정신의 핵심적인 측면, 즉 “삶의 정신화”가 놓여있다는 것이다. 셸러의 인격론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이을상, 『가치와 인격』, 서울: 서광사, 1996, 149쪽 이하 참조.

33) 셸러의 사랑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이을상, “막스 셸러의 사랑의 本質巧”, 『철학논총』 제6집, 1990, 159-185쪽 참조.

34) M. Scheler, “Erkenntnis und Arbeit”, S. 204.

에)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체 스스로가 다른 존재인 신과 역동적으로 관계하는 일종의 “됨”(Werden)인 것이다. 이로써 인간의 정신은 신과의 수동적 관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 속에서 사랑하고 관조하며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구체적 세계인 대우주와 결합하게 된다.³⁵⁾ 이로부터 그리스도교의 철저한 “자기희생”에 기초한 아가페적 사랑도 의미를 갖게 된다. 이때 신적인 일에 관여하는 것은 오직 정신 혼자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충동과의 합일이 있어야만 하는데, 문제는 정신의 활동이 (사랑에 있어서) 신적인 것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충동이 이에 동의해 주리라는 보장이 있겠느냐는 점이다. 더욱이 무력한 정신이 충동을 강요할 수도 없지 않은가? 이에 셸러는 다시금 사랑이 어떻게 충동을 정신과의 조화로 유도해 갈 것인가의 문제에 천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은 사랑을 통해 정신과 충동을 매개하려 한 셸러의 철학적 인간학이 봉착하는 새로운 문제인 셈이고, 이에 대한 대답은 결국 그의 종교철학에서 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셸러의 철학적 인간학이 새로운 문제에 봉착한다고 하여 그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새로운 문제제기는 셸러의 거대한 철학체계가 지닌 유기적 생명력과 역동성을 말해준다. 셸러의 철학은 영원한 “생성” 속에 있다. 즉 셸러는 현상학적 방법론과 가치론에의 관심으로부터 지식사회학의 핵심적 물음에 도달했고, 지식사회학적 물음은 철학적 인간학을 정초하는 토대가 되지만, 철학적 인간학은 다시금 “신생성”이라는 새로운 종교철학의 물음에의 길을 열어준다.

35) M. Scheler, *Der Formalismus in der Ethik und die Materiale Wertethik*, S. 396.

5. 맺는 말

지식사회학에 관한 셸러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그는 지식 형성의 인식론적 전제에서 불변적인 이성의 절대적 원칙을 부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칸트 식의 형식주의는 모든 인간에게 타당한 인식범주라기보다 유럽적인 사고체계의 기반이라는 점을 규명하려 했다. 둘째로 그는 지식의 이데올로기적, 주지주의적, 자연주의적 개념의 특수성을 극복하고 역사에서 지식이 평가되는 과정과 그 다양한 지식의 형태를 찾아내고, 이로써 20세기 초 근대 유럽적 사고의 편협성에 기초한 실증주의에 의해 왜곡되어 온 종교와 형이상학적 지식의 존재 의의를 재평가하려 했다. 셋째로 종래의 세계를 인식하는 범주적 형식과 대상을 위한 이론적이고 관조적인 정신적 태도와 대조적인 실질적-기술적인 태도가 지식 형성에 미친 영향과 유의성을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형이상학적 지식과 공리주의적 지식 간의 중합을 이루고자 했다.

이런 셸러의 노력이 가능했던 것은 원천적으로 현상학이 있었기 때문인데, 현상학은 세계를 “감각적 소여”(sense-data)로 환원시켜 파악하려는 실증주의에 대항하여 현상 속에서 직접적으로 본질을 직관하는 방식이다. 이런 연유로 셸러의 지식사회학은 처음부터 반실증주의적 태도를 취한다. 더욱이 셸러는 칸트의 형식주의 비판을 통해 현상학에 접근했고, 현상학을 다시금 가치파악에 적용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현상학적 가치론은 자명한 가치기준을 상실한 역사주의와 같은 가치 상대주의적 지향을 공격하고,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가치존재 그 자체의 내용적 파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치절대주의에 기초하는 셸러의 지식사회학은 나아가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경제결정론”에 의해 설명하려는 맑스의 경제주의를 그 근원에서 비판한다. 이로써 셸러는 역사적으로 제약된 우리 사고를 유형화하는데 —쿤트의 지식발전의 3단계설 비판을 통해 지식의 형태를 유형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공했다.

이런 그의 방법론적 논리는 “지식과 사회의 관계”, “인식의 주관적-정신적 과정들”, “지식 범주들의 성격 규명”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 적용된다.

그렇다고 하여 셸러의 지식사회학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만하임이 셸러의 지식사회학을 “정태적”이라고 비판한 것이 라든지, 아도르노가 셸러의 상층계급과 하층계급의 도식이 너무 조잡하고 역사의식을 결여한 것이라고³⁶⁾ 비난한 것은 그 만큼 셸러 지식사회학의 현실사회에의 적용 가능성이 낮음을 말해준다. 이런 비판과 비난은 셸러의 학문적 의도가 지식과 사회 간의 경험적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인간”에 관한 탐구인 철학적 인간학을 개진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셸러의 철학은 방법론으로서 현상학과 가치론, 지식사회학, 철학적 인간학, 종교철학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이런 관심의 다양성을 간파한 머턴(R. Merton)은 “항상 마지막 통찰력을 위해 지적 영감을 발휘해 온 (셸러의) 논리전개의 독특성은 그의 지식사회학적 인식체계 전반에 대한 성격 규명에 어려움을 더해 준다”고 평가한다.³⁷⁾

이런 저간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셸러 지식사회학의 의의를 찾는다면, 역사적 사회와 이념적 문화세계를 창조적인 현실 인간 의식의 지평에서 탐구하여 지식의 사회적 속성을 근원적으로 밝혔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이런 셸러의 지식사회학은 1960년대 이후 “현상학적 사회학”의 대두에 기여했는데, 현상학적 사회학은 사회학에서 계량적 방법이 지닌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36) Th. W. Adorno, "Beitrag zur Ideologienlehre", S.173.

37) R. Merto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Free Press, 1968, p. 534.

참고문헌

- 송호근, 『지식사회학』, 서울: 나남, 1990.
- 오명근, “장래 지식사회학의 과제”, 『사회학연구』, 제2집, 1984.
- 이을상, 『가치와 인격』, 서울: 서광사, 1996.
- , “막스 셸러의 사랑의 本質巧”, 『철학논총』 제6집, 1990.
- , “막스 셸러에 있어서 인간의 본질과 형이상학의 문제”, 『철학논총』, 제9집, 1993.
- 전태국, 『지식사회학』,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2001.
- , “지식사회학의 방법론적 지향”, 『한국사회학』 제11집, 1977.
- 차인석, 『사회인식론』, 서울: 민음사, 1987.
- 허재윤, 『인간이란 무엇인가』, 대구: 이문출판사, 1986.
- Th. W. Adorno, "Beitrag zur Ideologienlehre", *Köl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Jahrg. 6, Heft 3/4, 1954/5.
- P. Hamilton, *Knowledge and Social Structure, An Introduction to the Classical Argument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London: R.K.P., 1974.
- Ed. Husserl,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e Phänomenologie*, 전집, Husserliana VI, Haag, 1962.
- K. Lenk, *Ideologie*, Berlin, 1970.
- K. Mannheim,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London: R.K.P., 1952).
- , *Ideologie und Utopie*(5 판), Frankfurt/Main, 1969.
- R. Merto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Free

- Press, 1968.
- G. Remmling(ed.), *Towards the Sociology of Knowledge*, London: R.K.P., 1974.
- M. Scheler, *Die Stellung des Menschen im Kosmos*, Bern, 1978.
- , *Der Formalismus in der Ethik und die Materiale Wertethik*(이을상 외 옮김, 『윤리학에 있어서 형식주의와 실질적 가치윤리학』, 서울: 서광사, 1998).
- , “Zur Idee des Menschen”, *Vom Umsturz der Werte*, 전집 3권, Bern, 1972.
- , “Probleme einer Soziologie des Wissens”, *Die Wissensformen und die Gesellschaft*, 3판, 전집 8권, Bern, 1980.
- , “Erkenntnis und Arbeit”, *Die Wissensformen und die Gesellschaft*, 3판, 전집 8권, Bern, 1980.
- , “Die Formen des Wissens und die Bildung” *Philosophische Weltanschauung*, in *Späte Schriften*, 전집 제9권, Bern, 1976.
- , “Phänomenologie und Erkenntnistheorie”, *Schriften aus dem Nachlaß* Bd. 1, 전집 10권, Bonn, 1986.
- , “Lehre von den Drei Tatsachen”, *Schriften aus dem Nachlaß* Bd. 1, 전집 10권, Bonn, 1986.
- H. Spiegelberg, *The Phenomenological Movement* 1권, the Hague: M. Nijhoff, 1960.
- W. Stark, *The Sociology of Knowledge*(이면석 옮김, 『지식사회학』, 서울: 범한서적주식회사, 1976.

음악감상자의 사회적 역할

정두환*

1. 들어가는 말

“예술은 인간이 도달한 최고, 최선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레프 톨스토이(Lev N. Tolstoi)¹⁾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 들어가는山野는 한겨울을 지내기 위하여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푸르기만 할 것 같은 잎들은 아름다운 색으로 산야를 물들인 후에 그 푸르던 잎들을 모두 내려놓는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자연의 흐름에 순응한 표현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이의 마음은 그 아름다움에 그저 감탄할 뿐이다. 무엇이 이토록 감동을 주는 것일까? 또한, 같은 광경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등 같은 현상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런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다양한 반응은 보는 것은 눈이지만, 느끼고 반응하는 것의 궁극적인 것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때 마음은

* 부산외국어대학교 만오문화연구소

1) 신금선 옮김(매클리스), 『음악의 즐거움』, 10쪽 재인용.

사물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을 뜻하며, “인간이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고, 이해하는가?” 하는 이러한 반응을 연구하는 것이 심리학자의 영역이다. 하지만, 본 글에서는 이러한 반응의 구조적인 접근을 위함이 아니라 어떤 사물, 음악을 듣는 신체적 과정, 그리고 무엇을 들을 것이며, 어떤 것을 느껴야 하는지 그리고 감상자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음악은 소리를 재료로 한다. 이 소리는 물리적으로 보면 단순한 진동일 뿐이다. 이 단순한 진동을 처음으로 느끼게 해주는 사람의 기관이 귀(耳)다. 그러면 귀만 있으면 들음을 위한 감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인가? 들음의 준비는 두뇌 주변 환경에서 이끌어내는 일종의 경험을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이 들음은 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소리의 현상이 아니라, 그 소리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찾을 준비를 들음의 준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음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심리학자가 관심을 갖는 소리가 가져다주는 감흥(sensation)이다.²⁾

음악을 소리가 가져다주는 감흥이라면 이 감흥은 소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보를 이해 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음악은 단순히 우리 삶의 치장효과를 위함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는 우리 삶의 투쟁과 갈등, 성취 등을 리듬과 멜로디 및 음악적 양식을 통하여 표현한 결과물이기에 음악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녹아있는 긴장과 이완, 기대와 만족, 투쟁과 쟁취 등을 음악을 통하여 만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음악 속에 녹아있는 많은 삶의 정보들을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통하여 조화로운 균형을 맞춘다면 이러한 음악의 정보들은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사회활동에 많은 이익을 공유하게 해 줄 것이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감상의 과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2) 채현경, 최재천 옮김(주르탱), 『음악은 왜 우리를 사로 잡는가』, 29쪽

2. 감상의 과정 I

우리에게 있어 음악 감상은 무엇이며,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감상의 과정은 이루어지는가?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실제적인 예를 찾아 음악회장으로 발길을 옮겨보겠다. 많은 관객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음악회장으로 분주히 찾아든다. 건축의 규모나 아름다움에서 그 어떤 건축물보다도 뛰어난 음악회장은 건축물 자체만으로도 관객에게 감동을 준다. 공연장 안은 오크 무늬목 나무로 따스함과 함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홀의 울림이 좋을 것만 같은 분위기의 높은 천장과 기둥 하나 없는 공간의 아름다움은 관객을 감동 시킨다. 이윽고 주위가 어둡워지며 무대 위에는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아름다운 모습을 한 연주자의 모습이 등장하고 곧이어 연주에 혼신을 다하여 연주하는 연주모습과 연주자가 연주하는 음악을 이해하기 위하여 진지한 모습으로 감상하는 감상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여기서 감상자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감상자에게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은 감상자는 음악을 듣기 위함이다. 무대 위의 아름다운 연주모습을 구경하는 것은 일부일 수는 있지만 연주자가 표현하고 있는 음악 즉 소리의 전달을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소리의 전달은 연주자의 호흡을 통하여 자신의 악기를 진동시키며, 악기의 진동은 주위의 공기를 진동시켜 감상자의 귀까지 전달하여 고막을 진동시키게 된다.

감상의 영역은 무대에서 울려진 음악의 자연공기 전달과정에 속하는 자연 음향학적인 것과 고막의 진동으로부터 다양한 청각신경계의 과정을 거쳐 뇌에 전달되어진 뒤 감상자가 음악을 이해하는 모든 과정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자연 음향학적인 과

정보다는 고막의 진동으로부터 다양한 청각신경계의 과정을 거쳐 뇌에 전달되어진 뒤 감상자가 음악을 이해하는 모든 과정을 이해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겠다.

2-1. 들음을 위한 감각.(귀 구조)

음악 감상을 위하여 일어나는 처음 단계는 공기의 진동을 타고 전해 온 에너지 즉, 소리를 청각기관이 받아들이는 단계이다. 이는 감상자가 소리를 최초로 접하는 부분이므로 이 소리를 청각기관이 받아들이는 단계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람이 듣는 소리는 외이, 중이, 내이로 구분되는 청각기관인 귀에 의하여 소리를 듣게 된다. 이 소리는 외이(이개)에 의하여 소리가 모아지게 되고 외이도가 모여진 모든 음파를 고막에 전달하게 되며, 이소골(추골, 침골, 등골)을 통하여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되어, 내이 (달팽이관) 안에서 파동을 일으키는 음파를 코르티기의 유모세포에서 전기적 에너지로 바꿔주어 뇌로 전달하게 된다.

공기의 진동으로 일어난 소리의 전달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사람 귀의 구조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사람의 청각기는 크게 외이, 중이, 내이 등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각 부분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외이(外耳. External ear)의 기능

외이는 귓바퀴와 외이도로 구성되어있다. 귓바퀴는 음파를 모으는 역할을 하며, 외이도에 있는 털과 약4000개의 피지선이 먼지나 세균 등을 막아주는 역할과 함께 음파를 고막까지 이동시키는 길의 역할을 한

다.

㉠ 귓바퀴

탄력연골인 귓바퀴연골을 피부가 감싸있으며, 이것을 움직이는 귓바퀴근이 있으나, 사람의 경우에는 퇴화해서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또한 사람에서는 귓바퀴의 주변부분은 귀둘레를 만들어 동물의 귀와는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 귓바퀴아래부분인 귓볼도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구조로서 연골이 없다.

㉡ 외이도

귓바퀴의 앞 중앙부분에 있는 외이도구멍과 고막사이에 있는 관으로서, 외측 1/3은 연골, 내측 2/3는 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얇은 피부로 덮여 있다. 외이도의 피부에는 솜털이 많고, 땀샘의 일종인 많은 귀지샘이 열려있다. 귀지샘의 분비물은 탈락된 상피와 함께 귀지를 만든다.

② 중이(中耳. Middle ear)의 기능

중이는 외이와 내이 사이의 부분으로, 측두골 속에 있는 불규칙하고 긴 6면체형의 빈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실이라고 한다. 고실의 윗벽은 두개강과 경계하고 있고, 아래벽은 측두골에 있는 목정맥오목의 위쪽에 해당된다. 내측벽은 내이를 수용하고 있으며, 중앙에는 내이의 달팽이관이 원형모양으로 융기되어 생긴 무위인 고실곶이 있다. 고실곶의 위아래에는 전정창(난원창)과 달팽이창(정원창)이 뚫려있다.

외측벽의 주체는 고막이며, 앞벽은 속목동맥이 지나는 목동맥관과 인접하고 있으며, 그 아래 부분에는 인두와 이어지는 중이관이 열려있다. 고실 속에는 3개의 고실뼈가 있는데 고막에 붙어있는 망치골, 이어서 중간위쪽에 있는 모루골, 그리고 가장 내측에 있는 등자골이 서로 관절에 의해 연결된다. 고실뼈는 고막에 전해진 음파의 진동을 내이에 전하

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곳에 고막긴장근과 등자골근이라는 작은 근육이 있다.

㉠ 고막

외이도의 깊은 곳에서 중이와의 경계에 있는 타원형(긴지름이 1cm, 짧은 지름이 9mm)의 얇은 막(두께 약 0.1mm)으로서 외측은 피부에, 내측은 점막으로 덮여있다. 생체에서는 반투명한 진주색으로 보이며, 망치골의 외측돌기가 고막속부분에 붙는 것이 줄무늬로서 투시된다. 그 아래끝은 고막의 중심부분에 해당하는데, 이곳이 앞쪽으로 약간 오목한 부위를 만들어 고막배꼽을 형성한다. 또한 고막배꼽에서 앞 아래쪽을 향하여 긴 피라밋모양을 한 광추가 자리잡고 있다. 광추는 그 방향의 변화에 따라 고막의 함입, 돌출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중이관

고실과 인두를 잇는 길이가 약 4cm의 납작한 관으로서, 고실의 앞 아래부분의 중이관고실구멍에서 시작하여, 코인두부분의 옆벽에 있는 중이관인 두구멍으로 열려 위치하고 있다. 고실에 가까운 부분은 뾰로, 인두에 가까운 부분은 연골로 둘러싸여 있으며, 속면은 코인두부분과 같은 점막으로 덮여 있다. 중이관은 고실내의 압력을 조절하는 공기의 통로가 된다.

③ 내이(內耳 Inner ear)의 기능

내이는 측두골의 암석부위 속에 있는 전정달팽이기관의 주요부분으로서, 연조직에서 만들어진 막미로와, 이것을 담고 있는 뼈의 빈공간인 뼈미로로 구성되어있다. 막미로 속에는 속림프가 들어 있으며, 뼈미로와 막미로 사이의 공간에는 바깥림프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속림프와 바깥림프 사이의 연락은 없다.)

- ㉠ 뽕미로는 진정, 뽕반고리관 및 달팽이로 구성되어 있다.
 - ㉡ 전정 - 뽕미로의 중앙에 있는 주머니모양의 빈공간으로, 막미로의 타원주머니와 원형주머니를 수용하고 있으며, 고실과의 사이에는 등자골에 의해 닫혀진 전정창이라는 작은구멍이 있다.
 - ㉢ 뽕반고리관 - 전정의 후상부에 있는 3개의 반원형의 고리관으로, 이것들은 서로 직각으로 위치하고 있다.
 - ㉣ 달팽이 - 달팽이껍질 모양을 하고있는 뽕속의 빈공간으로서, 달팽이축 주위를 달팽이나선관이 3회 정도 회전하고 있다. 이 관의 기초부분에는 고실과의사이에 달팽이창이라는 작은 구멍이 있으며, 이곳에 둘쨌고막이 붙어 있다.

㉡ 막미로는 뽕미로 속에 들어있는 복잡한 막성인 관으로서, 뽕미로와 비슷한 모양을 하며, 그내부에 속립프가 들어 있다. 뒤부분은 평형청각기관인, 타원주머니와 본고리관이 있으며, 앞부분은 청각기관인 달팽이관 속에 나선기관이 수용되어 있다.

- ㉡ 전정속에 있는 타원주머니와 원형주머니는 림프를 담고 있는 주머니로서, 원형 타원주머니관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원형, 타원주머니관의 후방이 외측상방에 속립프관이라는 작은 관이 나와, 뽕의 작은관을 통해 두개바닥으로 나오며, 측두골암석부위의 뒷면에서 속립프주머니를 만든다. 원형주머니는 결합관으로 달팽이관에 연락하고, 타원주머니는 막반고리관에 연결된다. 타원주머니는 원형주머니보다 크며 5~6mm의 긴 지름을 가졌고, 속부분에 타원주머니평형반이 있으며, 원형주머니에는 원형주머니평형반이 있다. 이들 평형반은 감각상피로서 위치감각에 작용한다. 평형반은 원주상인 털감각세포가 지지세포에 보호되어 속립프속으로 돌출하고, 속립프는 털감각세포의 길다런 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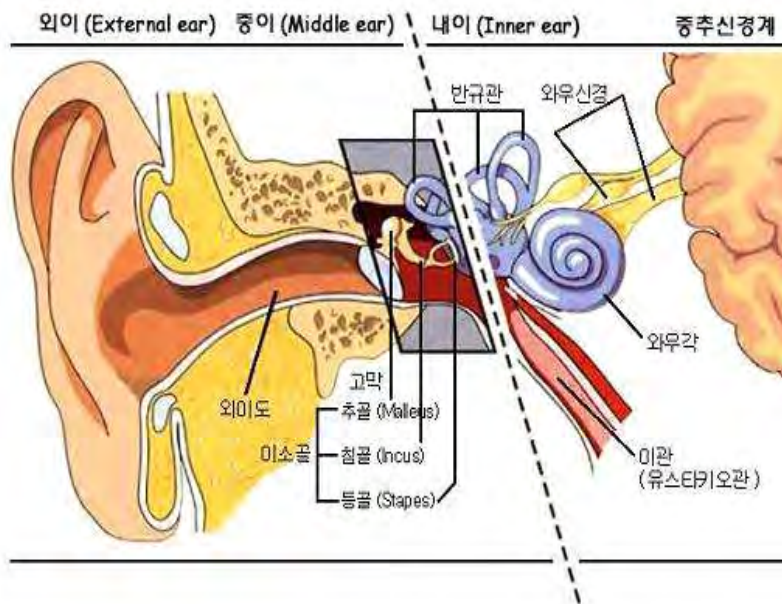
부근에서 조밀해지며, 평형모래를 만들고 있다. 속림프의 이동으로 평형모래가 털감각세포의 털에 접촉함으로써 감각이 일어난다.

- ③ 반고리관의 막반고리관은 뼈반고리관 속에 있는 막모양의 관으로서, 앞반고리관, 뒤반고리관 및 외측반고리관 등 3개가 있으며, 각각 서로 직각으로 위치해 있다. 반고리관의 한개 다리의 뿌리부분은 불룩한 팽대부분을 만들고, 그속에는 팽대능선이라는 가느다란 융기가 있다. 각 반고리관의 3개 팽대능선은 전정신경과 이어지며, 이곳에서 인체의 회전을 감수한다.
- ④ 달팽이관은 달팽이나선관의 전정계단과 고실계단 사이에 있는 나선형의 작은 관으로 그 양끝은 막혀있다. 달팽이관의 가로단면은 삼각형 모양으로 윗벽은 전정막, 아래벽은 뼈나선관과 바닥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선기관은 달팽이관의 아래벽인 바닥막의 위에 있는 복잡한 상피로서 일명 코르티기관이라고도 한다. 나선기관의 감각세포는 털감각세포(청각세포)로서 지지세포에 의해 받쳐져 있다. 고실뼈를 통해서 음파의진동은 달팽이관의 속림프진동을 일으키고 털감각세포의 털을 흔들어서 감수하며, 이 세포에 연락하는 달팽이신경에 전해진다. 청각기관의 달팽이신경은 내이도에 도달한후 평형청각기관에서 오는 전정신경과 합쳐져, 내이 신경이 된후 뇌로 들어간다.

이를 요약하면 외이는 귓바퀴와 외이도로 구성되어있으며, 귓바퀴는 음파를 모으는 역할을 하고, 외이도에 있는 털과 약4000개의 피지선이 먼지나 세균 등을 막아주는 역할과 함께 음파를 고막까지 이동시키는 길의 역할을 한다. 또한 중이는 고막과 이소골이 위치한 공간을 말하며 이 공간은 물을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가득 찰 정도로 매우 좁다. 특히, 고막은 소리에 의해 진동하게 된다. 내이는 청각신경이 들어 있으

며, 와우각과 평형감각신경이 들어있는 반규관으로 구성되며, 와우신경은 와우각에서 감지된 소리를 받아 뇌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결국 귀의 역할은 우리에게 소리를 듣게 해주는 기관이다.³⁾

(그림1.) 귀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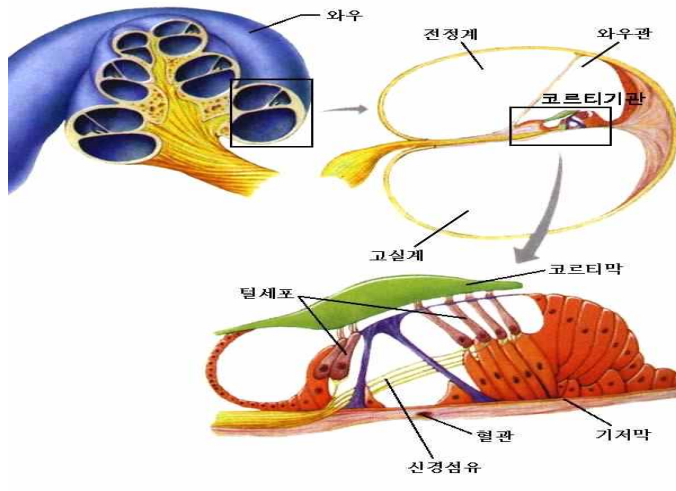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귀의 역할을 통하여 전달되는 소리의 과정을 살펴보면 소리파가 외이도를 통해 들어오면 이 소리파가 고막을 진동시키게 되며 고막과 연결되어 있는 중이내에 세개의 작은 뼈를 차례로 진동시키면서 이 소리파를 증폭시키게 된다. 증폭된 소리파가 내이의 와우각에 차있는 림프액을 진동시키게 되고, 이것이 와우관내에 있는 코르티

3) 이석원, 『음악감상의 길 I』, 낭만음악 제4권, 1992년 봄, 127쪽 이후 참고

기의 털세포를 자극 하여 와우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하게 된다. 이러한 전달과정을 그림2.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림2.) 소리의 전달과정



2-2 들음을 위한 감각.(진동을 소리로)

앞에서 우리는 신체에서의 소리전달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소리는 진동을 소리로 변화된 것을 감지하고 느끼게 되는데 어떻게 진동을 소리로 받아들이는가? 또한 그 진동의 발생 빈도를 알아 소리의 높낮이를 구별하는가? 하는 의문이 남게 된다.

여기서 진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영화를 본다고 가정할 때 영화는 필름을 우리가 눈으로 꿰어진 느낌을 감지 할 수 없는 일정한 속도 이상으로 돌리면 우리에게 사물은 연속된 것으로 보

여준다. 하지만, 필름을 천천히 돌리면 영화는 필름이 단락, 단락으로 끊어져 다음 장면의 변환 과정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귀 또한 같은 원리이다. 가령 녹음기에 녹음된 소리를 재생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에게 가청 가능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돌아가면 다음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아듣는데 지장이 없지만, 갑자기 전원이 약해진다던지 하면 소리의 높낮이가 알아듣기 힘든 경험을 하였을 것이다. 이는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가 있는데 즉, 진동의 빈도를 주파수라고 한다. 또한 이를 측정하는 단위는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단위인 헤르츠(Hertz)를 사용한다. 이는 1초동안에 움직이는 진동수를 뜻한다. 인간은 일정한 주파수 이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만 음(소리)로 듣는다. 개인에 따라 소리를 느끼거나 듣는 것은 개인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청 진동수의 범위는 10옥타브 정도로, 약20Hz에서 20,000 Hz (20KHz)라고 한다. 동물의 경우에 고양이나 개, 그리고 박쥐의 가청 주파수 범위는 우리(인간)의 가청 주파수 보다 더 높다.⁴⁾

우리가 소리의 높음과 낮음을 식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와우각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 기저막(bassilar membrane)이다. 길이가 3.5cm 가량 되는 기저막 속에는 약 30,000개 정도의 털세포로 된 말초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진동을 감지하여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전달 과정은 앞에서 살펴본바 있다.

2-3. 소리(음)의 종류

우리가 실제로 소리의 현상을 접할 때에는 순음의 경우가 아주 적다. 음의 특성을 살펴보면 크기, 높이, 음색(timbre)⁵⁾으로 정의 된다. 이는 같은 특성을 가진 음의 크기와 높이일 지라도 서로 다르게 들리는 경우

4) 강성훈 저, 『방송 음향』, 12쪽

5) 음색을 tone-color라고도 한다.

를 말한다. 예를 들면 사람의 소리와 바이올린의 소리, 피아노 소리 등은 각각 다르게 들린다. 이는 각각의 소리가 다른 비율로 고주파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악에서의 음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파수 스펙트럼과 그 시간적 변화의 상태로 정해지는 것이다.

① 순음(Pure tone)

오직 한 개의 주파수를 갖는 진폭이 일정한 음으로 한 개의 선 스펙트럼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그 압의 파형은 정현파이다. 실제로 자연계에는 순음이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소리는 여러 가지 주파수의 순음으로 분해하여 고찰 할 수 있다. 이는 이론적으로 다루기가 간단하며, 이론 연구나 음향 측정에 주로 사용된다.

② 복합음(Complex tone)

주파수가 서로 다른 많은 순음이 합하여진 소리로 많은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이는 일정한 주기를 갖는 복합음을 순음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복합음을 구성하는 순음을 부분음(partial tone)⁶⁾라고 하며, 부분음 중에서 최소 주파수를 기본음(fundamental)이라고 하며, 이것을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주파수가 제일 낮은 순서부터 제1 상음, 제2 상음...이라 한다. 복합음이 주기적인 경우에는 부분음은 기본음의 정수배(n배)의 주파수를 가지고, 이러한 부분음을 배음(倍音)이라고 한다. 즉, 제n 배음은 기본음의 n배의 주파수를 갖는 것을 말한다. 복합음의 성분 중에서 그 주파수가 배수 관계가 있는 것을 조화 성분(harmonic component)이라고 하며, 조화성분으로 주로 구성된 음을 음악 음(musical tone)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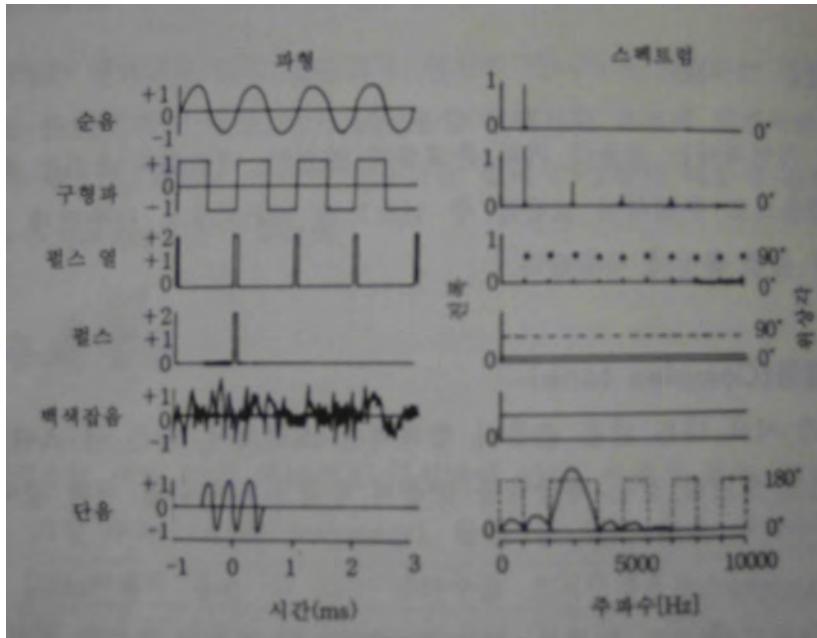
③ 주기적 파형을 가진 복합음

복합음의 파형은 순음의 파형보다 복잡하지만, 주기적으로 안정된 파

6) 다른 말로는 harmonics(倍音)라고도 한다.

형이 반복되는 소리이다. 음악에서의 음성 및 악기의 소리 등은 순음의 성질과 비슷하며, 이것을 주기적 파형을 가진 복합음이라 한다.

(그림 3.) 여러 가지 파형과 스펙트럼⁷⁾



④ 비주기적 파형을 가진 잡음.

소리의 파형이 주기적으로 반복 되지 않으며, 그 변화가 불규칙적인 소리를 일반적으로 비주기적 파형을 가진 잡음이라고 한다. 잡음은 일정한 파형이 없으며, 일정한 소리의 높이에 대한 감각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잡음에 사람들이 노출되면 심리적으로 산란해져 사고력 및 기억력이 저하되고 생리적으로는 소음(잡음) 중에 필요한 소리를 듣고자 노

7) 앞의 책 14쪽

력하기 때문에 신경이 피로해지고, 맥박이 빨라져 혈압이 오르며, 소화 불량을 초래하기도 한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손실은 소음은 청각 기관을 손상시킨다.

이러한 음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음의 분류⁸⁾

분 류	종 류	내 용
내용에 의한 분류	자연음	자연계에서 발생한 음
	음악음	악기에서 발생한 음
	음성	인간이 발생한 음
	소음	상기 이외의 시끄러운 음
주파수 스펙트럼에 의한 분류	순음	단일 주파수의 음
	복합음	주파수가 다른 많은 순음으로 구성된 음
	단음	하나의 기본음과 그 정수배의 배음으로 구성된 음
주파수 영역에 의한 분류	초저주파	귀에 들리지 않는 20Hz이하의 낮은음
	가청파	귀에 들리는 20~20KHz의 음
	초음파	귀에 들리지 않는 20KHz이상의 음
시간 영역에 의한 분류	주기성의 음	음악이나 음성과 같은 주기성의 음
	비주기성의 음	소음과 같이 주기성이 없는 음
	펄스성의 음	지속 시간이 짧은 음

8) 앞의 책 16쪽

2-4. 소리의 세기

우리는 귀에 들어오는 모든 소리가 음악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음악에 사용되는 소리들은 대부분 배음을 갖는 복합음이다. 음악에 사용되는 소리의 세기 역시 우리의 가청범위 전체에 비하면 극히 제한된 것이다. 4관편성의 대편성 오케스트라와 대규모 합창단이 동시에 연주를 한다고 하여도 기계화된 소리 즉, 젯트엔진 소리에 비하면 매우 작은 소리이다. 다른 한편 플루트 소리가 모기 소리 보다는 훨씬 큰 소리이다. 그럼 여기서 주요 악기들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알아보겠다. (표2.)

표 2. 주요 악기들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⁹⁾

악기	음향학적 힘 (Acoustic Power<P>) 단위는 W/m ²
대편성 관현악단의 합주	67
큰북	25
작은북	12
심벌즈	9.5
트럼본	6.4
피아노	0.44
트럼펫	0.31
튜바	0.2
콘트라베이스	0.16
플룻	0.055

9) 이석원 저, 『음악심리학』, 80쪽

호른	0.53
클라리넷	0.05

여기에서 하나 주의 하여야 할 것은 소리 속에 들어 있는 힘, 즉 음향학적 에너지는 주파수와는 달리 거리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큰 소리라도 먼 거리를 두고 난다면 우리가 듣기 전에 그 에너지의 대부분이 소멸되므로 매우 작은 소리로 밖에는 들리지 않거나 아예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소리의 에너지들은 감상과 연관이 있을 때에는 소리의 발원지와 감상자가 있는 곳의 거리개념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관계하게 된다.

2-5. 들음과 느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리의 크기에서부터 전달과정까지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물리학적으로 규명된 것들을 듣는 것은 결국 마음의 잣대이다.¹⁰⁾ 마음이 소리를 듣는 기본적인 잣대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방앗간에서 떡을 찌는 소리의 기계음은 매우 큰 소리이다. 일반인들이 방앗간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소음으로 인하여 대화가 힘들어지며,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방앗간 주인은 아주 편안하게 생활을 한다. 심지어는 방앗간의 기계소리를 자장가 삼아 열심히 잠을 청하는 경우도 있다. 왜 이러한 일어날 수 있을까?,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지속된 기계음에 구가 노출되면서 난청으로 인한 소음장애를 겪는 경우일 것이고, 또 다른 면은 들리는 물리적 소리보다 마음의 소리에 더 큰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음을 지각하는 물리적인 것보다 들리는 느낌 마음의

10) 앞의 책, 85쪽

소리가 훨씬 강하므로 인하여 물리적인 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에 대하여서는 집중하여 듣지만 듣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는 마음의 귀를 닫음으로 인하여 그냥 흘러가는, 떠도는 소리와 다름이 없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소리의 높이나 세기를 축소하는 기능은 음, 또는 음악이라는 개념이 개입되기 이전의 생리학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귀를 통하여 수용된 소리들이 음악적인 개념으로 다시 변환되는 것은 <느낌>의 단계라 할 수 있다.

3. 감상의 과정 II

앞의 장에서 감상을 하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서 <들음>을 위한 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음악 감상을 위하여서는 <들음>에서 <느낌>으로 전이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음의 지각>이 필요하게 된다.

3-1. 감각과 지각 그리고 경험

서로 길이가 다른 길고 짧은 크기의 야구방망이와 골프채가 있다고 가정할 때 정상적인 시각 기능을 가진 사람은 두 채의 길고 짧음을 판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판단은 오직 감각에 의존하는 것인데, 만약 골프채가 무엇에 사용되는 도구인지를 몰라도 단순 비교 기능의 길고 짧음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럴 때 이 기능을 <감각>이라고 한다.

하지만, 골프에 대하여 선행경험이 있는 사람, 즉 골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야구방망이와 골프채 중에서 야구방망이가 너무 짧고 둥글며,

무게가 무거우므로 골프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단순한 감각의 단계를 지나 야구방망이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야구방망이를 골프채라고 판명을 내리지 않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는 <감각>의 단계를 넘어 사물을 <지각>하고 있는 것이다.

지각(perception)이란?

들어오는 감각적 데이터를 축적된 우리의 경험에 빚대어 연관짓는 과정을 가리키며, 따라서 이미 학습되어진 요소, 그리고 감각기관(귀, 코, 피부 등)이나 신경계통의 구조와 기능에 크게 의존한다.¹¹⁾

위의 글에서 우리가 유념하여야 될 부분은 “우리의 경험에 빚대어 연관짓는 과정”이라는 부분이다. 결국 감각과 지각의 구분되는 점은 경험이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3-2 음악적 지각

음악의 지각을 앞의 글 속에서 찾아보면 “감각기관을 통하여 수용된 <소리>를 어떠한 음악적 선행경험에 근거하여 연관짓는가?” 하는 문제가 음악적인 지각이 될 것이다. 이는 곧 “인간의 음악적 지각능력이 얼마만큼 선천적인 생물학적 구조에 의존하고, 얼마만큼 후천적으로 얻게 된 경험과 학습(즉, 음악적 선행경험)에 의존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시작된다.

음악의 지각에 대한 문제는 결국 인간으로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과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처해 있는 사회의 시대와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서 얻어지는 산물이 무엇인지? 에 대한 궁극적인

11)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제 15권, 397쪽, 앞의 책 88쪽에서 재인용

문제로 자연스럽게 귀결된다.

사람이 음악에 대하여 가지는 선천적 감각능력과 후천적 학습에 의한 개발된 지각 능력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실험자에게 아주 5~10Hz 정도의 작은 차이의 소리를 짧은 시차를 두고 들려주었다고 할 때 두 소리의 차이를 느끼는 것은 사회적 문화권과 별 관련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시골에서 태어나 비행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에게 비행기 소리를 들려주고는 아이에게 무슨 소리인지를 물어보면 맞추기가 쉽지 않다. 또한 반대로 보리타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도시의 아이에게 보리타작 소리를 들려주면 역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단순히 비교되는 음의 높낮이와는 다르게 같은 시대와 사회의 문화권이 먼저 인지 되고 습득되어진 환경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는 삶의 문화권을 먼저 인식하였을 때 소리에 대한 반응이 바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과는 또 다른 예를 한번 찾아보자.

지금 현재 무대 위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있는데 오보에 연주자와 플루트 연주자의 음정이 서로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어느 한 쪽으로 맞출 것을 요구하였다면 서로 다른 음정의 높이를 감각기관에 의존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막연히 음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갖고 그 기준에 의하면 음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므로 이는 악기의 선행적 경험이 없다면 불가능 한 것이다. 결국은 음악적 지각은 감각적 기관에 의지하지만, 인간의 감각기관은 문화 속에서 학습되어진 음악적 경험에 이미 길들여져 있는 것이다. 음악의 지각은 문화의 선행적 경험에 의하여 길들여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지각은 후천적이고 문화종속적(culture-dependent)¹²⁾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음악적 지각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선천적으로 어느 정도 지각할 수

12) 앞의 책 90쪽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와 “어느 정도 후천적으로 경험되어 학습되어진 것인가?”하는 문제에 귀결하게 되며, 이는 음악 감상을 비롯한 음악 교육에 직접적인 문제로 까지 연결될 수 있다.

4. 음악으로의 의사소통하기

모든 문화권의 작곡가나 연주자들, 다양한 학파의 각종 이론가들, 또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미학자들이나 평론가들, 이들 모두가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음악에는 의미가 있으며 그 의미는 어떻게든 (somehow) 연주자와 청중 양편 모두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적어도 이 점 만큼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¹³⁾

“음악에는 의미가 있고, 그 의미는 전달된다.”는 것은 가장 근본적 가설이다. 이는 음악이 의미를 전달한다는 전제에서 의사전달의 매체로서의 음악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부호체계 (符號體系)로 되어 있어 송신자는 부호화(encoding)하고 수신자는 해독(decoding)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음악 의미의 전달 과정에서 음악은 “어떻게든 전달된다”는 표현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 언어학자 브라이트는

... 음악이 언어와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something) 전달한다는 것은 흔히 느낄 수 있는 바이다. 또 말로 된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음악 연주 역시 각개 소리로 조합된 물리적 고유성 이상의 그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¹⁴⁾

심리학자 도이치는 음악의 언어학적 유추에 대하여서는 회의적이지

13) L. B. Meyer, *Emotion and Meaning in Music*, 1쪽, 앞의 책. 145쪽

14) Bright, "Languages and music : Areas for co-operation," 28쪽, 앞의 책 147쪽 재인용

만, 의사소통의 매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 음악이 의사소통의 한 형식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 그것으로부터 「소리 그 자체 이외의」 무엇인가를 (something) 얻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사소통의 형식치고는 참으로 묘한 형식이다.¹⁵⁾

앞의 인용된 글들은 모두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미의 전달이라는 점에서는 부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을 다음과 같이 고치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 ▶ 음악적 의미는 어떻게 전달되는가 ? (마이어)
- ▶ 음악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전달하는가 ? (브라아트)
- ▶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 무엇을 얻는가 ? (도이치)

이러한 물음에는 다양한 답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음악을 통하여 “무엇인가가” “어떻게든” 전달된다는 <의미전달의 존재>에서 만큼은 분명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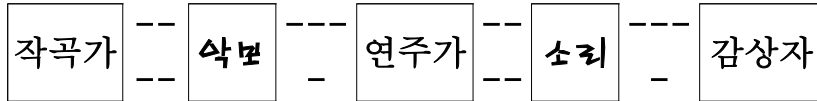
그러한 만큼 음악의 의미전달을 위하여서는 음악적 의미의 전달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4-1 음악적 의미 전달 과정

음악적 의미 전달 과정의 경로에서 보면 여러 사람들의 집합체 또는 한사람으로 전달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의미전달 과정의 경로를 살펴

15) "Languages and music as communication : A discussion," 70쪽, 앞의 책 147쪽 재인용

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있다.



캠블과 헬러는 작곡자, 연주자 감상자의 세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작곡가 : 악보라는 규약을 통해 연주자의 자율적 행동 영역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

연주자 : 연주가는 악보를 해석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폭을 가질 뿐 아니라 감상자가들을 음향을 만드는데 있어 악보에 쓰여 있는 것 뿐 아니라 그의 문화적, 개인적 특성까지를 종합화 하는 사람이다.

감상자 : 음악을 만드는 것은 결국 감상자이다. 음악적 메시지는 감상자에게 내재하는 고유한 인습의 바탕 위에 지각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¹⁶⁾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곡자는 연주자와의 관계를 <악보>라는 물리적 존재를 통하고, 연주자와 감상자의 관계는 연주자의 의사를 공기의 진동, 즉 소리라는 물리적 현상을 통하여 만나게 된다. 이를 종합하여보면 작곡가와 연주자의 관계에서는 외연적/내연적 규칙이 성립하며, 연주자와 감상자의 관계에서는 내연적 규칙이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작곡자 보다는 연주자와 감상자가 더욱 두드러져 보이기도

16) Campbell & Heller, "Psychomusicology and psycholinguistics : Parallel path or separate ways" 7쪽, 앞의 책 149쪽 재인용

하지만, 이것은 연주자와 감상자의 위치를 무시하여 작곡가 중심에 위치한 일종의 반작용일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음악의 주체들인 작곡가의 열화와 연주자의 역할, 감상자의 역할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하여 각자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2 작곡가

작곡가들은 소리를 마치 작가들이 단어를 다루듯 다룰 수 있다. 이는 작곡가의 음악적 심상에서 울려퍼지는 소리를 청각적 심상으로 마음의 귀에 들리는 소리를 자유롭게 다룬다.

미국의 작곡가 헨리 코웰 (Henry Cowell)은 음악적 심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악기는 작곡가의 마음이다. 훈련이 잘된 작곡가라면 모든 가능한 음질, 화성, 비화성은 물론 수많은 멜로디들을 마음속에서 자유자재로 듣는다. 더욱이 어떤 악기나 합주뿐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는 소리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¹⁷⁾

코웰은 자신이 음악적 심상을 너무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연주보다 그것을 더 좋아 한다고 했다.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베토벤 역시 청력을 잃었을 때 그의 최고 걸작인 교향곡 제9번 <합창>을 작곡할 수 있었다. 역설적으로 그가 청력을 잃음으로 인하여 마음의 심상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듣고 그것을 악보위에 옮겨 놓았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 당시로서는 너무도 대규모적이고, 소리가 큰 편성의 곡으로 인하여 초연 당시에는 일부 평론가들로부터 시끄럽다는 평까지 받기도 하였다. 이는 작곡가의 음악 들음은 자신의 음

17) 채현경. 최재천 옮김 『음악은 왜 우리를 사로잡는가』, 262쪽

악 심상에서 출발함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작곡가의 영감, 음악심상이 내면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기억으로부터 떠오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억이라는 것은 너무도 복잡하고 모호한 개념이기에 여기서는 이 기억의 부분을 생략하기로 하겠다. 하지만, 작곡가에게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영감이다. 작곡가에게서 영감은 일순간 떠오르는 것을 이야기 한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어떤 생각이 마음속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뜻한다. 작곡자들은 영감 즉,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악상의 경이로움을 이야기 하지만, 이는 많은 부분이 학습되어진 것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작곡자도 많았다. 스트라빈스키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영감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악상은 보통 내가 작곡을 하고 있을 때에 생깁니다.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영감이 떠올라야 창작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감 같은 것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영감이란 모든 인간 행동의 원동력이고 예술가들에게는 그리 특별한 현상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노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라는 것은 자신의 작업입니다. 음악적 감각이란 노력 없이는 얻어지지 않고 발전도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음악 활동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 기능을 잃고 결국은 퇴화해버리는 것이죠.¹⁸⁾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작곡자의 영감은 그의 창작 작업을 통하여 영감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작곡가들은 왜 작곡을 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하여 슈만은 다음과 같이 쓴 적이 있다.

18) 앞의 책, 277쪽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작곡을 한다. 후대에 길이 남고 싶어서, 피아노가 그냥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백만장자가 되기 위하여, 친구들로부터 찬사를 듣고 싶어서,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등등.¹⁹⁾

이런 저런 이유로 작곡을 하지만, 슈만이 한 가지 간과한 이유는 구조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그냥 감상자들이 음악이 좋아서 듣는 것과 다른 것이다. 작곡가들은 리듬, 호모니, 멜로디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구조 더 나아가서 음색까지 음악을 만들어 가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요소들 간 구조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에 의하면 작곡가들은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해(decomposing)하면서 작곡가의 길로 접어든다. 다른 것보다도 연주자로부터 작곡가 자신을 분해시켜나간다는 의미일 것이다. 작곡가는 이렇게 복잡한 작업의 과정을 즐기지 않으면 작업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럼 무엇이 이들을 작곡가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일까? 위대한 작곡가들의 많은 수가 전문 음악가를 부모로 두고 있다. 대표적인 작곡가의 경우가 7세대 동안 64명의 직업 음악인을 배출한 바흐의 가족이다. 그의 가족계보 속에서 나타나는 직업 음악가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1세대 1명, 2세대 3명, 3세대 3명, 4세대 10명, 5세대 18명, 6세대 23명, 7세대 6명 도합 64명에 이른다. 이것을 예로 음악에서의 음악성과 유전적 요인을 살펴보면 음악성이란 여러 재능들의 결합이라 한꺼번에 그 모든 재능을 물려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음악성과 유전적 요인의 개연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음의 고저를 잘 구별하는 등의 개별적인 능력은 물려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뛰어난 작곡가의 타고난 음악적 역량도 결과적으로는 개별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능력 개발 역시 지속적인 훈련의 산

19) 앞의 책, 310쪽

물이기에 그러하다.

훈련이 잘된 작곡가라야 훌륭한 작곡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 작곡가 헨리 코웰의 견해에서도 잘 나타난다.

4-3 연주자

연주자의 임무는 연주 작품의 예술성을 올바르게 재현(再現)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서 연주자는 우선 악보를 소리(음)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단순히 소리(음)을 만들어내기 위한 단순히 손가락 등의 훈련을 포함한 우수한 음악성과 빈틈없는 주의력, 표현의 통제 및 절제력이 요구된다. 또한 연주 작품의 정신성이나 예술성을 바르게 이해하며 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연주자는 작곡자의 제한된 지시력을 바탕으로 하여 작곡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악보위의 기호를 음향화(音響化)하여야 한다. 그리고 악보화 된 작곡자의 음악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악보 배후에 숨어 있는 의미를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인하여 연주자에 따라 같은 곡을 연주하여도 곡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연주곡이 달라지는 것이다. 연주자는 작곡자의 기호화 된 악보를 현실화시키므로 인하여 창작에 따르는 체험이 없이는 그 연주는 참다운 생명을 지닐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하여 연주자의 연주에도 창조성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에 와서는 연주 작품에 대한 충실도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연주 작품의 시대나 작곡자 개인의 양식에 상응하는 연주를 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 연주 기법을 재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실이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음향화(音響化)되는 현상에 대한 반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연주자의 음악성 역시 타고난 음악적 감각위에 문화적 현상위에 학습되어지는 것이 훨씬 많다.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뷰캐넌(James Buchanan)

대통령의 초대로 백악관에서 피아노 연주를 한 한 맹인 소년의 기사를 보면서 살펴보겠다.

그는 피아노에서 반 미터는 족히 되는 거리에 떨어져 앉아 유인원이 먹을 것에 손을 뻗치듯 두 팔을 쭉 뻗는다. 발이 페달위에 놓여 있지 않을 때에는 다리가 계속 틀어지고 꼬인다. 어떤 주제에 대한 즉흥 연주를 해달라는 청을 받으면 무언가를 듣는 것같이 기묘한 자세를 취하다가 곧 상체를 곧세우고 한 발을 들어올린다. ... 마치 발레에서 회전하는 것처럼 즉흥곡의 주제 위에서 현란한 솜씨를 끊임없이 발휘한다. 연주를 끝낸 후에는 스스로에게 찬사라도 보내듯 발을 구르고 두 손으로 피아노를 두드리다가 칭찬을 받기 위해 자기 주인에게로 가곤 한다.²⁰⁾

이는 단 한 번도 악보를 본 적이 없는 맹인 피아니스트의 이야기이다. 그에게 있어 음악성은 선천적으로 타고 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선천적 음악성을 지속시킨 유일한 것은 그가 피아노를 지속적으로 연주할 수 있게 주위의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 더욱 큰 요인이기에 피아니스트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었다.

연주자에게도 일관되게 회자되는 것은 훈련이 잘된 작곡가라야 훌륭한 작곡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 작곡가 헨리 코웰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 즉, “훈련이 잘된 연주자라야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다고”

4-4 감상자

음악 작품을 음미하고 그 미적(美的) 내용을 즐기며 이해하는 체험을 감상이라고 한다면, 감상자는 음악의 미적 내용을 이해하고 즐기는

20) 앞의 책, 319쪽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 감상자의 태도에는 음악을 배경으로 듣는 수동적인 감상자와 적극적으로 듣는 감상자가 있다. 그럼 음악을 듣는 것과 감상하는 것의 차이를 어디에 있을까?

4-4-1 수동적 감상(듣는 것)

음악을 들음에 있어 수동적 감상을 다르게 이야기 하면 듣는 것으로 이해 할 수가 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있어온 신경계로 하여금 소리의 진동수와 크기, 그리고 소리의 발원지등을 알 수 있게 하여주는 것들을 의미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의 듣는 것을 대부분의 인지 과학자들은 청각 활동이 저절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무관하게 분리되어 일어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다른 한 예를 보면 두뇌를 다쳐 의식적인 시각 활동을 할 수 없는 화자가 아직은 뇌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신경의 도움으로 사물의 기본적인 외형은 구분할 수 있는 일종의 ‘맹시’ 현상을 예로 들어 이야기 한다²¹⁾ 이러한 현상은 음악을 환경의 일부로 제공되는 음고와 장단이 있는 소리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현대에 와서는 배경음악 ·환경음악 ·산업음악이라고 부르며 이를 BGM(background music)이라는 명칭으로 이야기 한다.

4-4-2 적극적 감상(감상)

감상은 음악을 이해한다는 개념과 연결 될 수 있다. 이는 작품을 자아(自我) 속에 받아들여서 맛보는 것이다. 악곡을 중심으로 이루는 독특한 음악적인 것 (형식과 화성, 멜로디 등의 일련의 음악양식과 관련된 것)을 느낄 수 있는 음악 감상을 적극적인 감상이라 할 수 있다. 이

21) 앞의 책 , 390쪽

러한 감상 능력은 복잡한 형식의 음악이 귀를 통하여 들어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소리들을 찾아 분석하여 그 특징을 찾으려 한다. 들리는 음악의 선율적 정점과 변화하는 화성의 의미, 변화되어 흘러가는 박자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음악의 흐름을 찾아 음악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두뇌는 쉬지 않고 움직인다. 이러한 감상 능력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소리(음)의 구별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음)의 의미를 찾아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동적인 활동과 같아서 감상에 의하여 음악을 듣는 힘을 개발하고, 훈련에 의해 감상 능력을 늘리는 것은 음악성을 기르는 기초가 된다. 음악의 아름다운 미적 체험은 단편적이라기보다는 종합적이므로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행위가 적극적인 감상이라 할 수 있다.

5. 음악 감상자의 사회적 참여

우리가 어느 위대한 음악작품을 완전히 이해했을 때 우리는 그 작품을 탄생하게 한 “진실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라파엘로(Sanzio di Urbino Raffaello)는 “이해한다는 것은 동등해짐을 뜻한다.”라고 이야기 했다.²²⁾ 이는 그 작품을 작곡한 작곡가와 동등하지는 못할 지라도 그의 메시지를 받으며 그의 의향을 이해함으로 인하여 그 순간만은 작곡가와 동등한 자리 동석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음악은 우리들의 삶과 구별되어 독립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가 소리 형태로 나타난 음악의 행위일 뿐이다. 중세 성악의 다성음악(polyphony)이 18세기의 계몽주의 시대에는 화성음악(homophony)으로 바뀌어 졌으며, 20세기 이후에는 무조음악의 경향을 보이는 일련의 과정은 이론적으로

22) 신금선 옮김 『음악의 즐거움(상)』, 6쪽

엄격한 체계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음악의 역사적 흐름의 변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음악은 그 시대까지 존재 했던 모든 음악을 바탕으로 이루어 진 변용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용의 한 중앙에는 인간의 인식구조라는 테두리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만일 인간의 인식구조라는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 곧 뒤따르는 것이 음악의 수용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의 음악계에서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구조를 형성하는 뿌리는 인간들의 삶이 쌓여서 이루어 놓은 경험의 세계이다.

음악 감상자들의 사회적 역할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들 음악 감상자들이 음악에 미치는 영향의 한 단면을 살펴보겠다.

음악의 신동인 모차르트가 1778년 5월 1일 파리에서 그의 아버지께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다.

... 마침내 드 샤보트 공작부인이 들어오더니 깍듯이 인사를 하고는 대뜸 한쪽에 놓인 피아노를 조율해 달라고 정중히 부탁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바로 연주를 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 뒤 그녀는 이내 앉아서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꼬박 한 시간여 동안, 커다란 테이블에 둘러앉은 신사들과 함께 말입니다. ... (중략) ... 저는 의지와 탁자, 벽을 향해 연주를 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²³⁾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감상자의 태도가 작곡자 또는 연주자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또한, 예술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감상자에게 강요된 감상은 매우 수동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들에게는 공연의 끝남이 고통의 끝났음을 알리는 박수와도 같은 것이다. 네로 황제의 연주를 듣고

23) 박은영 옮김, 『모차르트, 천 번의 입맞춤』, 77쪽

수에토니우스(Suetonius)가 했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황제의 연주가 끝날 때 까지는 누구 하나 자리를 뜨지 못했고, 출입구에는 경비병마저 있었다. 연주를 듣는 도중에 출산을 한 여인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곳에서 들리는 연주와 환호 소리가 너무도 지겨운 나머지 죽은 척하여 밖으로 시려 나오기도 하였다.²⁴⁾

자신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음악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과장된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음악적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는 우스운 꼴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이다. 현대 음악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무조건 나의 음악을 강요하는 현대 작곡자들과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한 곡을 무조건 듣기를 강요하는 예술의 형태에 이제는 감상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여야 한다.

‘좀 더 나은 상태’ 로의 음악은 음악을 생산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원하고 사는 사람들의 관계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예술의 질적 향상도 가능 할 것이다. 물론 장인(음악가)이 관객(감상자)의 취향이나 재정적 수입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즐거움에서 또는 격심한 고통의 압력에 못 이겨 창조한 작품들이 후세에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사회에서 예술의 역할이 보다 순 작용하게 하는 한 측면에는 감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차지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감상자간의 일방적인 요구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 감상자의 전반적인 분위기 및 감상의 수준이 사회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한 측면이기에 더욱 감상자의 이해와 노력이 요구 되는 것이다.

24) 채현경, 최재천 옮김 『음악은 왜 우리를 사로잡는가』, 423쪽

6. 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음악을 감상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인체의 청각적인 문제에서부터 음악이 행하여지는 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음악을 만드는 것이 작곡자와 연주자처럼 보이지만, 실상 음악 작품을 만들어 내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감상자들이다. 이는 곧 감상자가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는 것이다.

그저 듣기 좋은 배경음악²⁵⁾으로 좋은 소리를 추구한다면 모르지만, 자신이 감상한다는 이해의 측면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최소한 조건은 지켜 주어야 감상자로서 사회적 역할은 감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첫째, 음악을 ‘**좋아한다**’는 개념과 음악을 ‘**이해한다**’는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음악은 1994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과학자 고든 쇼 박사와 프랜시스 로서 박사가 공간 추리력과 음악 간에 존재하는 뜻밖의 관계를 밝혀주는 실험에서 모차르트 음악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음악요소의 특별한 구조가 시공간 추리력의 향상을 끌어낸다고 믿게 했던 일종의 ‘모차르트 효과’ 이후 모차르트의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다 최근에는 또 다른 형태의 생태음악과 건강음악으로 세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추종하며 따라가는 감상자가 많은 사회에서는 음악이 사회의 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진정 ‘좋아한다’와 ‘이해한다’의 개념 구분부터 출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음악 흐름의 유형에 편승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음악 감상자들은 만들어 가야 한다. 음악이 한 사회를 이루는 부류의 한 측면인 ‘**사회속의 음악**’인지, 아니면 음악을 통해서만 사회를 바라보는 ‘**음악안의 사회**’인지를 바르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음악작품이 탄생하

25) 여기에서도 좋은 음악이 되는 조건은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화음과 음악적 양식은 필수적이므로 결코 배경음악이라고 예외일 수는 별로 없을 것이다.

게 되는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여야 진정한 음악의 이해를 의미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음악을 통하여 사회를 바라보더라도 바르게 음악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음악 작품의 탄생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작품은 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셋째, 행동하는 감상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회의 형서에 절대 다수가 일반 시민들이다. 일반 시민들의 문화 수준이 결국 사회의 문화 수준으로 귀결된다. 여행자들이 해외에 갔을 때 그 도시의 여유로움과 아름다움에 빠져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되길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 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순간 여행지의 감흥은 향수로 남겨두고 우리나라가 변하길 기대한다. 여기에는 여행객이 아니라 생활속 삶의 현장이라는 것과, 자동차를 지금 내가 소유하므로 별로 걸을 일이 없다는 것 등 많은 변화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서 막연한 여행지의 동경을 갖는다. 하지만 여행지의 입장에서 보면 그곳 시민들은 생활속에서 여유로움을 행동하였고, 사회의 기반 움직임에 스스로 동참하였다.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길은 정상적인 음반 구매, 음악회장의 참석, 음악인들을 비롯한 예술인과의 대화를 비롯하여 진심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의 환경은 더욱 좋아 질 것으로 믿는다.

“음악은 내게 있어서 사물을 정당화하는 힘이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²⁶⁾

주제어 : 들음, 느낌, 작곡자, 연주자, 감상자
수동적감상, 적극적 감상, 음악감상

26) 신금선 옮김(매클리스), 『음악의 즐거움』, 3쪽 재인용.

참고문헌

- 권혁민 옮김(thodor w. adorno). 『음악사회학입문』, (서울. 문학
과 비평사. 1989),
- 홍정수. 『미학적 음악론』. (서울. 정음문화사.1993)
- 신금선 옮김(조셉 매클리스). 『음악의 즐거움(상)』. (서울. 이화
여자대학교 출판부. 1992)
- 『낭만음악』 (서울. 낭만음악사. 1992.봄)
- 백대웅 『인간과 음악』.(서울. 이론과 실천.1989)
- 이강숙. 『음악의 방법』.(서울. 민음사. 1986)
- 박은영 옮김(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모차르트, 천 번의 입
맞춤』 (서울. 예담. 2001)
- 채현경. 최재천 옮김(로베르 주르댕). 『음악은 왜 우리를 사로잡
는가』 (서울. 궁리. 2002)
- 박관우, 안정모 옮김. 『음악인을 위한 음향학』.(서울. 삼호출판
사.1990)
- 강성훈. 『방송음향』.(서울. 기전연구사.1997)

Karl Gutzkow의 “영혼의 기사”에 나타난 인물들의 애국주의

김태재*

I. 서문

독일 문학사에서 1830년대는 새로운 문학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기였다. 특히 정치적으로 독일에서는 자유와 평등 박애정신의 햇살이 비쳐지는 시대의 여명이 밝아지고 있었다. 사회적으로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 독일은 36개의 지역국가(Territorial-Staaten)로 다시 분리되었고, 그들은 정치경제적으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입장만 고수하고 있었다. 그 당시 유럽은 산업혁명의 물결로 인하여 시민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윤만 추구하였고 그들만의 새로운 계급계층을 만들려고 하였다.

7월혁명(Julirevolution)이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을 때 독일은 특히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반동 보수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국가에 대항하는 목소리가 이웃나라에서 들려오는 혁명의 물결로 인해 점점 더 거세지게 되었다.¹⁾ 그 혁명은 독일 작가들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강사

1) 특히 2000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1832년 5월 27일에 함바흐(Hambach)에 모여 독일통일과 이웃나라인 폴란드와의 관계개선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은 다른 지

었고, 소위 청년 독일파(Jungdeutschen)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에 혁명의 목적을 반영함으로서 독일에도 유사한 사회개혁이 이루어지길 원하였다. 청년 독일파 작가들, 특히 비인 바르크(Ludwig Wienbarg), 하인리히 라우베(Heinrich Laube), 테오도르 문트(Theodor Mundt), 카알 구츠코(Karl Gutzkow), 하인리히 하이네(Heinrich Heine), 루드비히 뵘르네(Ludwig Börne)등은 7월 혁명에 매우 공감을 하였고, 당시 이들이 추구하였던 문학과 사회적인 이상을 위한 모범으로 표현하려고까지 하였다.

카알 구츠코는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였던 문학방향을 1832년에 개최된 함바흐 축제(Hambacher Fest)의 주제인 “독일 통일과 민족의식고취”에 맞추려고 하였다: “문학에서 민족의 필요성을 걱정하는 것은 매우 미미한 힘 일 것이다. 하지만 젊은 청년들에게 문학의 상상력을 교육시키는 사람보다도 더 의미 있는 인간은 없다”²⁾ 그러나 이러한 민족적인 이상과 민족의식을 위한 자신의 작품들은 정부에 의해 탄압되었고 1835년 의회의 결정에 따라 출판 및 판매가 금지되었다.

그의 작품이 탄압 당함으로서 구츠코는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작품들을 쓸 수가 없었다. 즉 그가 추구하는 사회개혁적인 이상으로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 혹은 정신적인 압박과 상이한 이데올로기와 의 화해 등과 같이 도저히 그와는 맞지 않는 기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그는 2가지의 탈출구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데 하나는 외국으로 망명을 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정부의 의도에 따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당면한 경

역까지 알려지게 되어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된다.

비교: Karl Gutzkow. Berliner Erinnerung und Erlebnisse. v. Paul Friedländer, 1.Aufl.1960. Berlin. S.17ff.

2) Ebd. S.324ff.

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구츠코는 1864년에 기록한 한 일기장에 문학자로서 자신의 지난 과거에 관해서 회상하였다: “한 인격체로서 현상의 다양성, 사실성으로 그해에는 인간이 변해간다.... 그 해에 인간은 언제나 한 개인인 것을 포기 한다³⁾” 구츠코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통해서 문학적인 동질성을 다양한 이상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잣대로만 세웠다.⁴⁾

구츠코는 정치적인 의견에는 매우 소극적 이었지만 그 당시 긴장감이 도는 국내 정치적인 문제에도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 그러나 처해진 상황이 그를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시대의 이단아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작품 속에서는 단지 자신만이 내세울 수 있는 정치적인 의식이 부족 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 대신에 정치적인 슬로건이나 소위 “무기로서의 삶”⁵⁾과 같은 기능적인 개념들이 직접적인 논쟁을 위해서 이용되어졌다.

II. 시대개념과 역사이해

1830년 7월 혁명 이후로 카알 구츠코는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그의 자선전인 “소년시대에서부터

3) Peter Müller. Beiträge zur Würdigung Karl Gutzkows als Lustspieldichter. Marburg 1910.

teilt Ausschnitte aus Gutzkows Tagesbuch 1848-1878 mit; hier S.15

4) 구츠코는 멘첼(Wolfgang Menzel)과의 논쟁 이후 1835년 11월 30일에 체포되어 4주 동안 만하임(Mannheim)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러한 체포와 구금은 시민적인 공명심에 대한 시각과 사회로부터의 추방에 동기를 부여하였다. 비교: Rainer Funke. Beharrung und Umbruch 1830 bis 1860. Frankfurt a.M. 1984. S.194ff.

Karl Gutzkow. Die Ritter von Geiste. Materialien von A.Hummel. T,Neumann. Frankfurt. a.M. 1998. S.459ff.

5) 인용: K. Gutzkow. Aus der Knabenzeit. Frankfurt a.M. 1852. S.325

(Aus der Knabenzeit)"⁶⁾를 읽어보면 그의 관심사는 표면적으로는 골동품보다 더 진귀한 것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이 자서전은 그가 문학의 범위에서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학문적인 범위에서 새로운 관심과 관찰 범위를 언급하였다. 사회와 문학을 위해 그가 밝힌 기본적인 사상은 단지 혁명의 정신뿐만 아니라 헤겔(Hegel)⁷⁾의 철학을 근본으로 삼았다.

7월 혁명은 따라서 구츠코의 삶에 큰 상처를 주었던 결정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독일의 젊은이들이 정신적인 방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결정적인 방향키를 제시 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 정치 사회적인 변화는 인생과 혹은 특히 문학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7월 혁명은 군인의 숙소로, 학교로, 강단으로 파고들었다. 결코 어떠한 사람도, 예를 들어 메테르니히(Metternich)뿐만 아니라, 웰링턴(Wellington)도 그 사실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었다”⁸⁾라는 사실을 밝히려는 노력, 현실에 고뇌하는 그의 이상은 그가 자신의 삶과 현실을 지배하거나 표현하려고 하는 시대의 중심적인 관심사였다.

낭만주의의 중심과제인 이상주의와 감각주의 등에 반대하여 구츠코는 명백한 사실성(die Wirklichkeit)을 인정하려는 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는 따라서 사실성의 주장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역사를 강조하였다: “학문은 뒤에 남겨져있다, 그러나 역사는 나의 전면에 놓여있다.”⁹⁾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구츠코는 “평범하고 텅 빈 관습에 얽매어져 있는 이상주의”¹⁰⁾를 배척했고 “직접적으로 일상적인 자극을 위한 장”¹¹⁾에

6) 인용: Ebd.

7) 특히 구츠코는 “역사철학을 위해서(Zur Philosophie der Geschichte(1836))”에서 헤겔 철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8) 인용: K. Gutzkow, ausgewählte Werke in 12 Bd. Jena. 1872-1875. hier Bd. VIII. S.80.

9) 인용: Rainer Gensel, Gutzkows ausgewählte Werke mit Einleitung und Anmerkungen in 12 Bde. Berlin 1912. Bd.VIII. S.89f.

10) 인용: Ebd. S.90.

의지하였다. 시대는 이제 낡아버린 폐품처럼 되었고 지금까지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이끌었던 절대적으로 규정된 도덕적인 가치규정은 이제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었다. 시대의 사실성(die Zeitwirklichkeit)에 대한 새롭게 암시적인 경험은 이미 과거의 시대적인 사조와 강력한 대립의 날을 세웠고, 또한 구츠코는 이러한 시대정신에 의거하여 처음부터 시대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서전적인 입장에서조차 정확히 그의 시대정신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표현은 실질적으로 인간과 주위환경을 바꾸는 새로운 사실이였으며 그리고 18세기와 그 다음세기의 의식변화의 큰 이유가 되었다: “이전에 우리는 시대를 짓밟는 것을 독창적인 것으로 간주할 때가 있었다. 또한 시대의 모래시계에서 나온 모래를 이 시대에게 잘못 부었던 때도 있었다. 그리고 이 시대를 가장 미미한 존재로서 무시하던 때도 있었다; 그에 반해서 지금은 시대의 젊은이, 신뢰자, 전령사, 사도 등과 친구관계를 맺는 천재들의 봉헌의 시대라고 해야 한다”¹²⁾

이러한 변화는 괴테(Johann Wolfgang Goethe)와 같은 천재의 운명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간의 운명과도 관련을 갖게 된다. 이러한 시대 개념은 구츠코에게는 새로운 가치개념이고 인간존재에 관한 모든 영역의 척도가 되고 사실성에 내재된 총체적인 현실적 요소가 된다. 이 시대개념에 관하여 페터 하주백(Peter Hasubek)은 총체적 개념(der Kollektivbegriff)으로 규정하였다: “시대는 내용적으로 보면 정치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힘의 총체성이다. 그리고 인간이 존재하는 현재의 사건이다, (...) 그리고 외면적으로 보면 이는 ‘현재(die Gegenwart)’라는 운명으로 한 시대의 시간적 경계를 설정하는 시대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다”¹³⁾

11) 인용: Ebd. S.90.

12) 인용: Über Goethe im Wendepunkte zweier Jahrhunderte, Berlin 1836. S.204

18세기가 개인(das Individuum)을 강조하는 반면에 19세기는 나아가 인간의 개성(die Individualität)조차도 부정하게 된다. 나폴레옹의 침략, 7월 혁명 그리고 3월 혁명의 실패 등 일련의 역사적인 사실 등은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으로 여태까지 내려온 인간의 특징을 붕괴시켜버렸다. 그 대신에 당파정신(die Parteigeist)에 관한 이상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다. 이점에 관해서 하주백(P. Hasubek)은 “초인간적인 총체성은 의미가 부여되고 지도적인 기능에서 개인성을 부가하게 된다”¹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치적인 일상적 삶에서 구츠코의 역사적인 인식은 실질적인 정치적 상황에 계급적인 사고방식을 연관시킨다. 계급적인 원칙은 특히 국가와 교회에서 현실화 되어진다.

구츠코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체계적인 계급주의를 반대해왔다. 특히 그는 다시금 구성과주의(der Konstruktivismus)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해석한 도덕적인 가치체계에는 대단한 반감을 가지게 된다. 특히 1837년과 38년에 발생하였던 교회간의 다툼을 경험한 이후로 그는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는 집단체제를 구상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현세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지배자적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또 하나의 새로운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의 역사관은 따라서 계급적으로 구성된 세계관에 반대적 입장을 취하였고 역사관찰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나는 아담과 이브의 역사에서부터 너와 나의 그것까지 서술된 모든 세계사적인 관점을 재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¹⁵⁾ 그래서 그는 세계사 연구를 위하여 수립하려는 발전계획의 새로운 점을 확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증명은 구츠

13) 인용: Peter Hasubek, Karl Gutzkows Romane 'Die Ritter vom Geiste' und 'Der Zauberer von Rom'. Hamburg. 1964. Diss. S.23

14) 인용: Ebd. S.31

15) 인용: K.Gutzkow, Briefe eines Narren an eine Närrin. Hamburg. S.213. 1832. 이 책은 사전검열 때문에 익명으로 출간 되었다.

코의 역사철학의 원리중심에 서있고 또한 이는 구성주의와 계급주의에 대한 모든 형식을 거부하는 입장으로 나타났다.

미래에는 어떠한 이상과 신에 대한 상상도 세계사적인 면에서 하위적 세계질서를 근원으로 하는 그러한 우선권을 가질 수 없었다. 그 대신에 역사적 사고는 모든 정신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범위를 균등하게 권리를 인정하는 공존성(das Nebeneinander)을 의미하고 모든 대상은 그 스스로 가치를 인식한다. 이질적인 시스템 하에 역사적인 사실을 예측 시킨다는 점은 이러한 정신사적인 체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국민들을 몰락케 하고 숭배토록 만드는 사상이 최고의 위치에 놓여져 있지 않을 때, 생각은 그의 유용성에 대한 사실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¹⁶⁾ 궁극적으로 개별의 사건들, 행위와 그것을 실행하는 인간들 등은 헤겔의 관점에 의해서 사상의 발전이 표명되는 것이 아니라 구츠코 자신의 독립적인 역사적 사상의 정점에 놓여있다. 인간은 즉 역사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통일로서 현재(das Jetzt)를 인간과 연결하는 그러한 점을 믿게 된다. 이러한 방향전환은 직접적으로 목적론적으로 구성되는 역사관과 19세기 자유주의를 포기하는 의미와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

III. 공존성(das Nebeneinander)과 인간적인 평등권리

“새로운 소설은 공존성(das Nebeneinander)의 소설이다. 이것은 모든 세계에 놓여있다! 이것은 이미 당겨서 뿔혀진 수건과 같은 시간이다! 이것은 왕과 거지를 만난다; 서술된 이야기에 속하는 인간들 그리고 이들에게 반향되는 빛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 소설은 구성되어 있다”¹⁷⁾ ‘공존성’의 개념은 구츠코의 새로운 소설이론이다. 그는 이 이

16) 인용: Ebd. S.5

17) 인용: K. Gutzkow, die Ritter vom Geiste. a.a.O. S.10f.

론을 특히 그의 대표적인 역사소설인 ‘영혼의 기사들(die Ritter vom Geiste)’에서 설명하였다. 소설의 서문을 보면 “옛 이론을 고집하는 소설은 놀랍게도 ‘공존성’을 예술적으로 엮어져 있는 사건을 표현하였다. 고전적인 불신임적인 면을 가진 이러한 현란한 소설들을 언제 보았겠는가! 잘못되고, 불가능하고 임의적인 전제조건을 가진 현혹적인 형태(.....). 옛 소설은 임의적인 동기 사이에서 놓여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은 모든 시대, 모든 사실성, 반향,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에 있을 것이다”¹⁸⁾ 옛 소설에 대한 그의 비판은 따라서 그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구즈코는 ‘임의적인(willkürlich)와 예술적인(kunstvoll)’이라는 개념을 자주 강조하였는데, 이는 옛 소설작가들의 우월성을 묘사하였기 때문에 공존성의 개념에 의해서 이러한 의미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또한 진실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비난하기 위해서 허구성과 사실성과 동떨어져 있는 점들을 부가하여 주장하였는데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된다. 즉 구즈코의 견해에 의하면 옛 소설은 자신의 존재권리(die Daseinsberechtigung)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는 그 소설은 표현방식을 통하여 인간 존재를 위한 확실한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즈코는 새로운 소설이론이 필요하였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점들 외에 세 번째로서 ‘청자들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품안에서 영면할 수 있는 점’들이 중심에 서있게 된다.¹⁹⁾

구즈코는 결론적으로 새로운 소설 이론을 통해 문학에서 의거한 인간을 다시 믿음과 신뢰로 재창조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도덕적으로 변형된 정신적인 지면을 신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한다.”²⁰⁾

18) 인용: Ebd. S.9

19) 인용:Ebd. S.10

“인간존재의 진실한 근원은 따라서 이들을 운반하는 모든 사람들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작용하는 모든 상호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면한다고 믿는다.”²¹⁾ 즉 하나님의 개념은 구츠코의 소설이론에 의하면 총체성(die Totalität)의 개념과 일치한다. 이는 사실성과 동떨어진 것 대신에 진실성과 숭고하고 정신적인 사실성을 나타내게 하는 완전함(die Ganzheit)으로 표시될 수 있다. 따라서 문학에서 인간에게 믿음과 신뢰감을 반복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변형된 지면을 신의 영혼을 통해서 지배 될 수 있다.

구츠코는 이 총체성(die Totalität)의 개념을 헤겔²²⁾의 역사이론에서 가져와서 점차적으로 자신의 소설 이론에서 일생동안 그의 민족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삼았던 카테고리로서 여겼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정치적인 참여에 기여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작품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시민들을 정치적으로 의식화 시켰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구츠코는 귀족들의 특권 의식, 다시 말하면 단지 귀족만을 위한 사회를 붕괴시키려고 하였으며 세계는 하나님 아래에서만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는 그러한 곳이기를 희망하였다: “작가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사실성의 조명과 대립된다. 그는 대기 속에서 떠다니는 귀족의 전망을 경멸하였다. 이는 끝없는 양탄자를 펼쳐 놓는 것과 같고, 새롭고 독특한 세계관이지만 아쉽게도 논쟁적이다”²³⁾ 궁극적으로 그는 귀족적인 사회의 철폐, 독일 통일과 독일인의 자유를 꿈꾸었고 독일 국민들이 결

20) 인용: Ebd, S.10

21) 인용: Ebd. S.10

22) 헤겔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표현에 관련되는 것을 소설은 마치 서사시처럼 세계와 삶의 관점을 위한 총체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총체성에 대한 다양한 소재와 형태는 개인적인 사건을 포함해서 나타나는데 이는 전체(das Ganze)를 위한 중심점을 부여한다.

인용: Hegel. Werke in zwanzig Bänden von E.Moldenhauer und K.M.Michel Frankfurt a.M. 1968ff. Bd.15. S.330

23) 인용: K.Gutzkow. Die Ritter vom Geiste. a.a.O. S.19

코 소유하지 못하였던 믿음의 가치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바로 이러한 희망들이 그에게는 애국주의를 위한 핵심사항이 되었다. 구츠코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려고 노력을 했을 때, 3월 혁명은 실패로 끝이 났고 따라서 그는 정신적인 내면으로 되돌아가야만 하였다. 구츠코가 테마로 정한 것들은 이런 연유로 정의로운 미래사회를 꿈꾸었던 ‘비밀조직(das Geheimbund)’의 설립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IV. 소설 속 주요 인물들의 애국적 사상

영혼의 기사들(die Ritter vom Geiste)라는 소설은 근본적으로 1848년 3월 혁명 이후에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불화와 같이 독일의 정치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 구츠코는 여기에서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 최우선적으로 파악 되어져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인간의 행동은 사회적인 협력자로서 행동에 대한 반응에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사회적 위치의 성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었다. 그의 사회적인 생각, 즉 단순하고 왜곡된 절대왕권주의 국가의 신분적이고 계급적인 원칙을 비난하고 혁명의 실패를 매우 아쉽게 생각함으로써 그는 소설에서 민주적으로 통일된 사회, 그 속에서 모든 특권계층이 몰락하고 각각의 개인만이 그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며 그의 위치를 한 사회 안에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그리려고 노력 하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분사회의 몰락은 귀족 사회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층은 다른 계층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루트하르트(Rudhard)는 전직 목사이며 왕자의 교육을 담당하였는데 지그베르트 빌통겐(Siegfried Wildungen)에게 다음과 같이 언급함으로써 구츠코의 의도가 잘 나타난다 : “저를 믿어 보세요, 우리가 이 사회를 명명하는 것은 단지 생각만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불손한 독재자입니다. 독재자는 인간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체포하지만 우리는 그러나 독재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이사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²⁴⁾ 이데올로기 면에서 ‘영혼의 기사들’은 반동적이고 보수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자적 의미로 둔다면 프로이센의 많은 지배계층, 특권층들이 등장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변화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후자의 측면에서 보면 이 소설에서 비밀결사대로서 묘사되는 내일을 위한 정부 여당이 주목되어진다. 영혼의 기사라는 이 단체는 궁극적으로 3월 혁명 이후에 구츠코가 꿈꾸어 왔던 미래사회를 위한 이상향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를 통하여 반동력의 심화와 절대주의적인 사회체계를 재탄생시킴으로서 혁명의 실패에 대한 유일한 출구를 찾으려고 하였다.

이 소설에서 만약에 애국적인 사상이 두개의 극점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면 우리는 우선 다음과 같은 인물을 설정할 수가 있다: ‘파울리네 폰 하르더(Pauline von Harder)’는 보수적이고 낭만주의적 성격을 띤 애국주의자로 간주할 수 있다. 그녀의 이런 사상은 종교적인 낭만주의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고 군주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절대주의적인 사회를 그리워하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추밀 고문관이고 ‘아마란타(Amarantha)’와 ‘나다스디(Nadasdi)’라는 작품을 쓴 여류작가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는 그녀가 전형적인 특권계층에 속해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녀에게는 시민적이고 역사적 낭만주의를 거부하였으며, 낭만주의를 뛰어넘어 영적인 신천지를 발견하고 들어가려는 영혼적 조건들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옛 군주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의 핵심인물이 된다: “파울리네는 마침내 자신의 온몸을 새로운 환경에 던졌고 절대왕가의 체제와 보수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활동한다(...). 그녀는 반혁

24) 인용: Ebd. S.1061

명적 투쟁을 일으키는 주요 선동가라는 입장에서 로이분트(Reubund)라는 조직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다. 이를 위하여 상인과 수공업자들의 대규모 실업을 조장하였다(...)"²⁵⁾ 그녀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내적관계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반동적 보수주의를 위한 생각에서도 어떠한 관련성도 보여주지 못하였다. 단지 이 두 가지 점을 그녀 자신의 주관적인 세계관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실질적인 정부정책을 실행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주도하는 ‘소모임(kleine Cirkel)’이라는 살롱을 통해서 장관, 군 장교, 귀족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다. 여기에서 이들은 실질적인 정부정책에 대해서 논하였고 몇 부분은 정부정책에 직접 반영되었기에 이곳을 ‘작은 정부’라고 까지 불리어졌다.²⁶⁾ 그녀가 정치적인 광기를 함께 만들었던 ‘작은 소모임’은 따라서 낡은 애국주의적 사상을 그리는 중심적인 이야기가 된다는 점을 증명하게 된다. 구츠코는 이 살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 애국적인 모임에서 소리 높여 외치고, 고문하며 행동하는 경찰들을 보호하려는 공통된 마음을 통하여 특정 지워지는 궁정용달상인 옆에서, 혹은 애국적인 분노의 불길의 혼란에서 모든 지혜가 소리 내며 타오르는 듯한 집무실과 병영지의 작지만 열정적인 정신 옆에서 타오르는 것 같다”²⁷⁾ 그녀는 옛 규정을 지키고 민주주의적인 원칙에 반대하여 투쟁하려고 하는 보수적인 정치체제에는 매우 열정적

25) 인용: Ebd. S.694 1849년 베를린에서 소위 특권계층을 위한 단체로서 나타난 왕과 조국을 위한 단체가 만들어졌다. 믿음협회(der Treubund)라 불리어졌던 이 단체는 구츠코가 작품에서 후회협회(der Reubund)로 패러디화하여 등장하게 된다. 이 협회는 비밀조직의 모델이 되었으며, 또한 정치 사회적인 힘과 정치참여의 합법적인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비교: K.Gutzkow, die Ritter vom Geiste Bd.4. Materialien Frankfurt a.M. 1998. S.21

26) 구츠코는 이 작은 소모임(der kleine Zirkel)은 더 이상 궁정의 위대한 표상이 아니라, 친밀한 믿음의 증명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단지 왕의가족들에게 그 시대의 가장 심오한 시민적 지식을 부여한 사람만 나타난다. 비교: Ebd. S.699

27) 인용: Ebd. S.698

이었다. 옛 규정을 고수하고 도덕과 전통적인 사회체제를 이어나가기 위해 그녀는 폭행과 같은 무력적인 행동도 서슴치 않았으며 특히 폭력 조직인 농민협회(Bauverein)을 찬양하기에 이르렀다.²⁸⁾ “시종인 리트(von Ried)는 농민협회를 조직하였는데 이 단체는 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시민들을 적당한 기회에 습격하여 모든 사람들을 반쯤 죽도록 때렸으며 더 이상 어떤 지역송가(Landes hymne)도 부르지 못하도록 하였다”²⁹⁾ 새로운 사회의 요구에 대한 거부, 과거의 군주제와 시민을 억압하는 귀족적인 정부시스템, 이러한 구시대적인 유물을 청산하려고 하는 요구 등을 이들은 철저하게 다스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보건데 혁명이 실패한 후에 사회가 꼭 필요하였던 연대 책임감 등을 볼 수가 없었다. 구츠코는 처음 ‘파울리네’의 인물을 풍자적으로 묘사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궁극적으로 그가 소설 속에서 사회적인 동등한 권리와 시민의 자유를 통해 획득하려고 하였던 혁명적인 민주주의의 반대자였던 것만은 분명하다.

에곤 폰 호헨베르크(Egon von Hohenberg)는 로데발트 호헨베르크(Rodewald Hohenberg)와 아만다 호헨베르크(Amanda Hohenberg)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작품 속에서는 에피쿠로스적이고 유물론적인 계몽주의 사상을 가진 장군인 아버지와 종교적인 낭만주의의 특징을 가진 어머니 사이에서 유복하게 성장하였다. 어린시절을 보면 그는 루하르트(Ruhard)목사에게로부터 이성을 중시하고, 믿음이 강하며, 도덕적으로

28) 인용: Ebd. S.1138. 파울리네의 조카인 시종의 직책을 가진 리트(von Ried)는 매우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농민협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토지소유자들과 양곡리그(Korn-Ligue)라는 단체를 이끌었다. 이 단체는 1848년 뷔로프-쿰러로프(G.G.v.Bülrow-Kummerow)가 토지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하였던 특별한 농업카르텔과 연관성이 있다. 비교: K.Gutzkow. Materialien. S.118.

29) 인용: Ebd. S.1138

매우 엄격한 방향으로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에는 계몽주의의 유물론을 통해서 허구적으로 되어버린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친 실베스터 교수(Prof. Sylvester)의 강의를 듣고 큰 감명을 받는다. 그는 대학에서 어느 귀족의 자제들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는 소위 속물 근성을 가진 소인들만 살고 있는 겐프(Genf)의 기숙학교에서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버리고 부르쿤트 지역에 있는 수공업 마을을 여행하기 위해 리옹(Lyon)으로 떠났다. 거기에서 그는 수공업자가 되고 시민 출신인 아만드(Armand Louison)라는 여자와 열정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에곤은 더 이상 자신의 내면세계를 떨쳐버리지 않고 이후에 그의 인생에 전환점을 맞이하는 기회가 찾아온다. 공산주의자인 아만다를 만나고 난 후에 그는 그녀와 함께 독일로 돌아와 호헨베르크 가문의 정례모임에서 당크마르(Dankmar), 지그베르트 빌통겐(Siegbert Wildungen)과 교우관계를 맺는다. 도입부분에서는 이방인으로 등장하는 에곤(Egon)은 이미 프랑스에서 경험한 시민의식의 관점에서 독일은 국가가 아닌 시민만이 이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국가는 결코 권력기관에 의해서 유지되거나 국민들에게 우상숭배와 같은 국가를 강요하는 그러한 미래를 가져서는 안된다.”³⁰⁾

애국주의를 위하여 개인적 특징은 파괴되어야 하고 국민 개개인이 한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에곤의 주장은 ‘영혼의 기사들’의 소설에서 애국적인 이상의 근본이 된다: “개인은 인간성을 부수지 않고 파괴되어야 한다”³¹⁾

그는 또한 국민사회에서는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노동이 한 사회에서 관습과 도덕이 되어야한다는 인간의 의무법칙을 강조하였다. 구츠코는 ‘노동을 위한 인간의 의무’라는 개념을 단지 주관적인 환상만을 추

30) 인용: K. Gutzkow. a.a.O. S.204

31) 인용: Ebd. S.206

구하는 낭만주의자들에 반대하는 대상체로서 제시하였다: “이 사회의 가장 위험한 적은 거짓말과 게으름이다..... 나는 모든 방면에서 노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무를 다하는 국가를 건설하려고 한다.”³²⁾ 에곤은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주지사로 임명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한다. 그는 부자들이 증가하는 이유를 그의 국민들에게 산업보호라는 측면에서 증명하였다: “산업보호는 단지 자유롭고 강력한 국가에서만 꽃을 피울 수 있다. 독일에서 우리의 군주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면 영국과의 경쟁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본다.... 노동과 노동의 무혈전쟁에서 처럼.....”³³⁾

노동에 대한 애정, 사회적인 인간의 의무, 그에 따른 국민들의 사랑 등은 그의 통치이념의 근본이고 이러한 사실의 목적성은 돌을 빵으로 만드는 그러한 성경적인 신화만을 가르치는 기독교에 대항한다는 점이다. 에곤이 사실적인 객관성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특히 비극적인 그의 가족의 운명에 기인하고 있다. 그는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귀족대접을 받지 못하였고 그의 시민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파울리네가 그의 출생을 비밀을 가지고 간계를 통하여 그녀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녀와의 현실적인 대결에서 이겨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가 스스로 계급의 편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은 반대로 그가 주지사라는 그의 신분 때문에 점점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왕정정치에 승인과 ‘소모임회’의 힘을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그가 자신이 걸어왔던 인생의 궤도에서 벗어나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왕을 보호하고 전통적인 국가체제를 확립하는게 그의 목적처럼 보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는 경찰력과 정보기관의 힘을 강화하였고, 법률을 강력히 정비하였으며 거의 테러에 맞먹는 압박으로 국민을 복종시켰다.

32) 인용: Ebd. S.1734

33) 인용: Ebd. S.2036

에곤의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행위에 반대하여 자유적 성향을 가진 ‘지그베르트’와 ‘당크마르’, 그리고 ‘루이스 아만드’는 ‘영혼의 기사들’이라는 비밀 조직 단체를 결성한다. 에곤은 이제 그의 친구들은 우정어린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체제에 속하지 않는 적으로 간주해 버린다. 특히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자유에 대한 이상을 포기 해야만 하였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당화 한다: “나의세대를 위해서 세웠던 모든 이상적 의도는 갑자기 사라졌다. 내 자신에게 과해진 근검절약의 모든 경고를 나는 무시하였다. 나를 경멸하지 않고,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인간을 이제부터 받아들이겠다”³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곤은 자유 보수적인 이상을 가지고 다양한 권력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권력만이 존재하는 그런 국가를 세우기를 원하였다 이는 그 자신의 보편타당성한 이상과 국민, 국가 그리고 사회를 더욱 더 강하게 하는 근원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개의 힘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국가가 세워질 수 없다. 권력은 하나로 모아져야한다(...), 두개의 똑같은 힘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결국 기계는 멈추고야 만다(...)”³⁵⁾ 그러나 그의 군주적인 이상은 절대주의적인 군주제도와는 달리 해석된다. 왜냐하면 그의 이상에는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나는 국가라는 틀 안에서 국민의 안녕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인정치 않는다. 따라서 군주는 나의 체제 안에서는 국민의 안녕을 위한 봉사자이다. 그는 자연발생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척도와 야심 있는 노력의 한계를 보여 준다”³⁶⁾ 민주적인 군주는 그러나 가면을 쓴 절대주의적인 군주일 뿐이다. 궁극적으로 에곤은 국민의 안녕이라는 구호아래 자신의 지역을 독재정치로 지배하였으며 응집된 국민의 힘, 비밀 조직체, 군대의 반란, 무정부주의로 흐르는 언론 등을 인정치 않았다. 소설의 끝 부분에서 그는 결국 정

34) 인용: Ebd. S.2128

35) 인용: Ebd. S.2579

36) 인용: Ebd. S.2579

치적인 몰락을 맞이하게 된다.

그는 이후에 옛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고 궁극적으로 국가권력으로부터 벗어나 명망있는 ‘영혼의 기사’가 된다. 구츠코는 이러한 예곤의 인물을 통해서 그가 진실로 프로이센을 위해서 자유의지대로 이루어야 하는 정치적인 체제에서 모든 국민들을 일치단결 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상황을 강요받는다라는 책임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당크마르 빌통겐(Dankmar Wildungen)은 법학자이며 변호사이고 그가 자신의 부모님 집에서 발견한 4장으로 만들어진 요한기사 수도회의 법칙의 계승자이다. 구츠코는 그를 비밀 조직체인 ‘영혼의 기사’를 설립하여 극단적 이상형을 꿈꾸는 혁명가로 묘사 하였다. 당크마르의 특징은 이성적이고 냉정하지만 결코 마음이 차갑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험과, 불행, 그리고 우울함에 대해서는 매우 차갑도록 거부하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의 근원적인 인간적 특징은 모험적이고, 때때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함으로써 주위의 훌륭한 사람들은 당크마르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하는 능력 때문에 그에 대한 신뢰를 보낸다. 그는 인간을 성별을 통해서 구분 짓는 행위를 반대하였으며 남성다움의 결실을 위해서는 우선 여성의 수태가 절대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영혼은 어떠한 성별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³⁷⁾ 이러한 성별의 극복과 사회적 평등에 대한 생각은 당크마르를 비밀조직을 만드는데 일조 하였다. 군주에 의해서 지배받는 전통적인 국가 형태는 인간의 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태이다. 그러나 그는 현재의 군주제가 아니라 자신이 꿈꾸고 있는 미래의 군주제를 희망하고 있다. 그는 현재의 군주제를 중세시대, 군인과 귀족, 혹은 국가기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인물들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라 여겼고 이것은 결코 치유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고 간주하였다. 현재의

37) 인용: Ebd, S,583

군주제가 군사력과 관습적인 기형의 형태 때문에 잘못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독일의 민족성에 기인한다고 믿었다. 현재 국가형태의 상황에서 모든 자유가 무한적으로 제한을 받고 “이러한 순환이 새로운 선거를 통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고 혹은 큰 정치적인 사건이 그 사이에 나타나다 할지라도”³⁸⁾ 우리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권력에 예속 될 것이다. 이러한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당크마르는 전혀 다른 국가형태, 미래의 군주제도, 즉 다수에 의해 다스려지는 민주공화정을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형태로 이루어진 정부는 모든 국민, 즉 장교, 직업군인, 회사 사장, 은행가, 목사 등 인간의 사회적인 계급을 무시하고 인간 본연의 참 모습을 존중해야한다고 믿었다. 당크마르는 따라서 이러한 인간들이 서로 관련을 맺고, 인간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종교, 도덕성, 양심,과 유쾌한 기질의 토대위에서 만들어진 조직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삶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인간들이 화합하고, 서로 약속을 하며, 공동의 힘을 통해서 개개인의 힘이 강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위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호되어지는가?”³⁹⁾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인간을 위한 조직체를 가리켰다: “개별적 인간은 우리들 시대에는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다. 이상은 구원자이고 예언자로 나타나는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메시아 이루어야한다. 인간으로서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조직체를 통하여 다시 구원되게 된다”⁴⁰⁾ 이 조직체의 이상은 종교의 정신세계를 초월하는 것이고 이런 연유로 당크마르는 예수회(Jesuiten)와 프리메이슨 비밀 결사단(Freimauer)를 거세게 비판하였다. 기독교의 시대, 중세시대, 개혁시대들은 인간을 혼란 속으로 이끌었고, 비밀 조직체의 정신은 따라서 이러한 종교들에 대항하는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

38) 인용: Ebd. S.1591

39) 인용: Ebd. S.1723

40) 인용: Ebd. S.1723

조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기로 함께 일반적으로 독재자, 무식함의 혼란, 교양을 증오하는 군주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⁴¹⁾ 당크마르는 ‘프리메이슨 결사단’에는 도덕적인 사고력이 부족하여 그에 걸맞는 이기주의를 능가할 수 없다고 믿었다. 그가 스스로 비밀 조직체에서 강조 하였던 민주적인 이상은 예수회와 프리메이슨 결사단에서는 결코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비밀 조직체의 이상에서는 국가, 교회, 사회적인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를 동등하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드는 새로운 국가건설을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고, “영혼의 기사는 새로운 인간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개조하는 사원을 지키는 사자이어야 한다.”⁴²⁾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비밀조직의 이상에는 모반적이고 선동적이지 않고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이론적인 사고만이 존재하였다: “가르침으로서 영혼은 학문에 지나지 않는다. 믿음으로서 영혼은 지조이다. 이성에서 출발하는 영혼을 어느 누구도 사로잡지 못하며, 어느 누구도 통일된 사고를 위하여 비밀조직을 만들지는 못한다.”⁴³⁾ 만약에 도덕적인 의무, 즉 한 국가에게 정치적인 의무가 중요하다면 “영혼의 기사에서는 자유, 영혼, 그리고 동등한 지조에 대한 믿음”⁴⁴⁾도 중요하다. 여기에서 이 비밀조직의 이상적인 목적이 나타나는데 “영혼의 기사는 직 간접적으로 지조를 위하여 투쟁을 하지 긍정적인 피조물을 생성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다”⁴⁵⁾ 그리고 이러한 지조가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여 진다면, 즉 지조의 주체성이 공화주적이거나, 자유사상적이고 군주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진다면 그에게는 어떠한 사회적인 체제가 만들어지든지 개의치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 지조가 공화정을 택할 수 있는 조건을 군주정치에게

41) 인용: Ebd. S.1726

42) 인용: Ebd. S.2217

43) 인용: Ebd. S.2217

44) 인용: Ebd. S.2218

45) 인용: Ebd. S.2219

제시하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맹세하는 것이다”⁴⁶⁾ 당크마르의 생각은 하지만 첫째로 현재의 국가와 교회에 대항하려는 개인주의에서 보여지는 것만은 아니다. 그는 기사수도회규정(Johanittsordnen)의 상속은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라고 단언하였다: “상속은 우리들(당크마르 형제와 지그베르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래된 방법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원과 기사수도회규정을 위한 것이다”⁴⁷⁾ 그리고 그는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권리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었다: “(...) 그러나 우리는 수공업자, 농부, 시인과 사상가들에게도 행동과 믿음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너는 인식해야만 해”⁴⁸⁾

당크마르가 비밀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따라서 국민성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의 기본권리는 영혼의 기사들에게는 근본적인 의무이다”⁴⁹⁾

이것을 통해서 그는 사회의 모든 부분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영혼의 기사는 피우스협회(Piusverein), 내적 미션협회(innere Mission sverein), 3월협회, 평화협회 등의 새로운 시대에서 경험하는 것의 경계점을 뛰어넘어야 한다”⁵⁰⁾

V. 결론

46) 인용: Ebd. S.2219

47) 인용: Ebd. S.2146

48) 인용: Ebd. S.2146

49) 인용: Ebd. S.2221

50) 인용: Ebd. S.3460 피우스 협회는 1848년 3월에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이다. 이는 교회의 자유와 국민들의 종교적인 교육등을 목적으로 세워졌다. 비교: K.Gutzkow. Bd.IV. S.235

영혼의 기사에서 구츠코는 귀족과 시민 및 프롤레타리아 계급사이에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동등한 권리를 의미하는 공존성(das Nebeneinander)이라는 소설이론을 표현하였다. 그의 서술 초안에서 전체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은 소설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거기에 모든 세계가 있다! 거기에 펼쳐진 수천과 같은 시간이 있다! 거기에서 왕과 거지가 함께 만난다!”⁵¹⁾ 왕과 거지는 물론 잡다한 사회에서 극단적인 계급적 대립상황에 놓여있다. 구츠코는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사회적인 계급을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였다. 이러한 극복을 위한 결과는 사회적인 계급성을 무너뜨리는 의미에서 찾을 수 있다. “경찰-과 특권 계급을 위한 체제”⁵²⁾를 통해 국민들을 감시하는 군주적인 국가조직은 구츠코에게 자유와 정치적 행동을 허락하지 않았다. 구츠코는 소설 “영혼의 기사”를 통해 비록 국가조직에 의해 감시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의 그러한 애국적인 사상을 넓혀갈 수 있었다. 사회적인 상황을 지속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영혼에 근간을 둔 성찰 단계에 다다른 것이 급선무였다. 또한 영혼의 기사들의 회원들은 모든 폭력적인 행동을 금하였고 개개인의 사회적인 관심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공통적인 목적을 위해 무혈투쟁을 하였다. 따라서 이 비밀조직은 그 사회의 이상적인 형상이었고 이러한 환상적인 조직 활동을 통해 구츠코는 그 시대의 개개인의 이기적인 관심사를 극복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였다.

51) 인용: Ebd. S.10

52) 이소설의 등장인물인 팩스(Pax)는 경찰국장인데 그는 모든 정치적인 변화를 감시하고 감독하였다.

비교: über das Verbrechen der Staatsorganisation. 8.Kap. in 4.Buch. 12.Kap. 5.Buch.

Zusammenfassung

Am Ende des in dieser Arbeit zurückgelegten Wegs soll eine Zusammenfassung stehen, die die Entwicklung des deutschen Patriotismus und die patriotische Idee in K.Gutzkows historischen Roman Ritter vom Geiste behandelt. Der Patriotismus in Deutschland bildete sich nach der Französischen Revolution eine neue Orientierung. Dieser Begriff wurde im Zeitverlaufe gemäß der innere-oder äußerer Situation in Deutschland weiter umgebildet. Im Rahmen des Romans "Die Ritter vom Geiste" will Gutzkow seiner Romantheorie "das Nebeneinander" gesellschaftlicher, politischer Gleichberechtigung zwischen den Ständischen und dem Bürgertum, und zwar dem Proletariat, darstellen. Aber seine idealistische Zweckmäßigkeit ist nicht so radikal, die gesellschaftliche Struktur völlig zu zerstören, und neu zu konstruieren. Er will nur durch Geheimbund "Die Ritter vom Geiste" die alle Probleme, gesellschaftliche, politische, wirtschaftliche Konflikte zu lösen. Bemerkenswert ist, daß er keine gesellschaftlichen Schichten von der Schilderung im Roman ausschließen, sondern diese Schichten überwinden will. Und er fördert den Abbau der Hierarchie in der Gesellschaft auf. Aber gegen Ablösung der Probleme behauptet er keine

Gewalttätigkeit, sondern Kompromiß miteinander.

Der Geheimbund ist deshalb das ideale Bild der Gesellschaft, und durch diese traumhafte Begründung des Geheimbundes wollte er die egoistischen Einzelinteressen der Gesellschaft überwinden.

Karl Gutzkow의 “영혼의 기사”에 나타난 인물들의 애국주의 225

Stichwort: der Patriotismus. der Nationalismus. das Nebeneinander,
die Gleichberechtigung. die Freiheit.

참고문헌(Literaturverzeichnis)

- Gutukow, Karl : Die Ritter von Geiste. 13-15 Teile in: Gutzkows Werke v. R. Gensel. Stuttgart. 1912.
- Ders. : Ausgewählte Werke in 12 Teilen mit Einteilung und Anmerkung v. H. H. Houben. Leipzig 1908.
- Ders. : Die Ritter von Geiste. Frankfurt a. M. 1988
- Ders. : Berliner Erinnerung und Erlebnisse v. P. Friedländer (Hg). Berlin
- Ders. : Deutschland am Vorabend seines Falles oder seiner Größe v. W. Boelich (Hg). Frankfurt a. M. 1969
- Ders. : Der deutsche Roman 1835. in: Phönix. 12. Blatt. 1835. S. 285-287
- Abbt Thomas : Vom Tode fürs Vaterland. Berlin 1770.
- 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 Vorlesungen über die Philosophie der Geschichte. Frankfurt a. M. 1970.
- Moser Karl Friedrich von : Von dem Deutschen national Geist. Frankfurt a. M. 1765
- Mundt Theodor : Geschichte der Literatur der Gegenwart. Berlin. 1842.
- Wedekind Christoph : Der Patriot. Mainz. 1792-1793.
- Alter Peter : Nationalismus. Frankfurt a. M. 1984.
- Aust Hugo : Der historische Roman. Stuttgart. 1994
- Conze Werner : Die deutsche Nation. Göttingen. 1963
- Dann Otto : Nationalismus und sozialer Wandel in Deutschland. 1806-1850. München. 1984.
- Dobert Eitel W : Karl Gutzkow und seine Zeit. München. 1968.

- Eggert Hartmut : Geschichte als Literatur. Stuttgart. 1990.
- Fell Allo : Gutzkows Ritter vom Geiste. Diss. Aachen.1927.
- Hasubek Peter : Karl Gutzkows Roman 'Die Ritter vom Geiste'
und der Zauberer von Rom. Diss. Hamburg 1984.
- Ders. : Vom Biedermeier zum Vormärz. Frankfurt a.M. 1996.

한국인의 죽음관과 장묘문화 개선 방안

박문현*

1. 머리말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5년 화장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망자 중 53%가 화장을 택해 화장비율이 처음으로 매장을 넘어섰다고 한다. 화장률은 1955년에 5.3%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이후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2010년쯤엔 7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산은 75%로 전국에서 화장비율이 가장 높다. 묘지 공급이 한계에 도달한 부산으로서는 멀지 않아 화장률이 100%에 육박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리고 평균수명의 증가로 지체되어온 사망자 수가 고령화 진행 속도가 완만해짐에 따라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그간 증가한 인구가 사망연령대에 도달하면 장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사망자수의 증가와 화장률의 상승으로 인한 장묘수급환경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은 어떠한가. 부산시는 2007년 10월이면 영락공원

*동의대 철학윤리문화학과 교수

의 납골시설이 만장이 될 것이기에 기장군 정관면에 제2의 영락공원이
라 할 수 있는 추모공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부산도시공사
에서 설계하여 2007년 1월 착공할 예정으로 있는 이 추모공원은 7만
8천 평 규모에 납골당 10만위, 벽식납골묘 3만위, 가족납골묘 1만위를
안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또 공원 내에는 피크닉장과 조각공원 등
자연친화적 부대시설이 마련된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자연장에 대한
시설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

장묘문화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관 및 내세관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종교나 사상에 따라 죽음을 처리하
는 양식이 다르게 변화해 온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떤 한 종교
나 사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우리의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유교와 불교 그리고 자연주의적인 도가 사상
등이 우리의 전통 문화 속에 녹아 흘러 한국인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을 처리하는 장묘의 문화도 이러한 전통 사상에 따
라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인의 죽음관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전통적인 유
교, 불교, 도가의 죽음관을 살펴본 후 오늘날 장묘문화의 현황과 문제
점을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부산시
및 보건복지부의 장묘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전통사상에서의 죽음관

공자는 돌아가신 사람을 보내는 일은 반드시 禮에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즉 『논어』 爲政편에서 “살아서 섬기기를 禮로써 하며 죽어서
장사를 禮로써 하며 제사를 禮로 하는 것이다.”고 말한다. 또 林放이 예
의 근본을 물었더니 공자는 “禮는 그 사치함보다는 차라리 검소할 것이
요, 喪事에는 그 형식이 정연함보다는 차라리 슬픔의 심정이 소중하

다.”¹⁾라고 말했다. 공자는 喪葬事에 있어서는 그 슬픔의 감정을 중시할 뿐 의식에 중점을 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 공자는魯나라 귀족인 李孫이 親喪을 당하여 문상하러 갔을 때 喪主가 임금이라야 찰 수 있는 값진 보석을 죽은 자에게 채우려는 것을 보고 황급히 뛰어가 禮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린 적이 있다.²⁾

厚葬·久喪의 禮는 周代의 산물이다. 周代는 중국 예교의 전성시기로서 일체의 制度와 典章이 크게 갖추어진 예교 발전이 최고봉에 이르렀던 시대이다. 그래서 공자도 “周代의 문물제도는 夏·殷 二代를 본받았으니 빛나고 또 빛나는지라 나는 周代를 따르겠다.”³⁾고 한 것이다. 그러나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러서 腐儒들의 사치와 낭비는 극심해서 심지어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과 함께 순장한 사실도 있다. 물론 이것은 공자의 節儉思想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사실 공자에 있어서의 厚葬·久喪의 의의는 전적으로 인간의 親親과 尊尊이라는 仁義의 마음에 있다. 그것은 공자가 宰我的 물음에 답하는 다음 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재아가 물었다. “삼년상은 기한이 너무 오래입니다. 군자가 3년이나 禮를 지키지 못하면 禮가 망쳐질 것이고 3년이나 음악을 못하면 음악이 쇠퇴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목은 곡식이 없어지고 햇곡식이 낫으며 불씨를 일으키는 수나무를 바꾸어 뚫어 새 불씨를 일으킨 바에야 服喪도 1년으로 끝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공자께서 재아에게 되물었다. “1년 만에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는 것이 네 마음에 편하냐?” “편합니다.” “네 마음이 편하거든 그렇게 하라. 원래 군자란 喪중에 있을 때는 맛있는 것을 먹어도 달지 않고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고 편히 처해 있어도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네 마음이 편하다면 그렇게 하라.” 재아가 나가자 공자께서 말했다. “재아는 참으로

1) 『논어』, 八佾篇.

2) 『여씨춘추』, 安死篇.

3) 『논어』, 八佾篇.

仁愛롭지 못하다. 자식은 나서 3년이 되어야 비로소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듯 부모의 땀을 3년 모시는 것은 천하의 공통인 상례법이다. 제아도 자기 부모로부터 3년 동안 사랑을 받았을 터인데.”⁴⁾

이와 같이 공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삼년상을 긍정하는 것이다. 공자의 사상을 이어 받은 맹자는 인애의 바탕 위에서 厚葬의 의의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한다. 즉 맹자가 모친상을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에 그의 제자인 充虞가 부친상 때보다 모친상의 棺材가 너무 두껍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맹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上古 때에는 내관이나 외곽에 일정한 척도가 없었고 中古때에 周公이 정한 바로 내관의 두께를 七寸으로 하고 외곽을 그에 맞게 했다. 천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다 같았으며 그것은 오직 외관상으로 좋게 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고 부모 장사지내는 자식된 자의 마음이 그 정도의 棺材를 써야 흡족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예법으로 금해져 있다면 별 수 없이 두꺼운 관재를 쓸 수 없고 따라서 마음의 만족도 못 얻을 것이다. 또한 재력이 없는 경우에도 별 수 없이 흡족하게 모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으로도 허용되었고 또 재력도 있고 또 옛적부터 모든 사람이 다 해왔거늘 어찌 나만 그렇게 모시지 않겠느냐? 한편 흙으로 화할 죽은 자로 하여금 피부를 직접 흙에 닿지 않게 해주어야 자식된 사람의 마음도 좋지 않겠느냐? 나는 들은 바가 있다. 군자는 천하가 재물을 아끼기 위해 자기 부모의 장사를 인색하게 하지 않는 법이다. ⁵⁾

이것은 맹자의 친상에 있어서의 신중한 도리를 말한다. 맹자는 후장을 하고 하지 않고는 자기의 경제능력에 따라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보다는 인도적인 입장에서의 도덕적 가치에 비중을 더 두고 있다.

유가의 경전인 『禮記』의 檀弓篇에는 공자와 그 제자들이 喪葬에

4) 『논어』, 陽貨篇.

5) 『맹자』, 公孫丑下篇.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어 전국중기 이후의 儒家의 喪葬觀을 살펴볼 수 있다. 國子高는 “葬이란 감추는 것이다. 감춘다는 것은 사람들이 볼 수 없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成子高는 “내가 듣기로는 살아서는 남을 이롭게 한 것은 없지만 죽어서는 남을 해롭게 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죽으면 不毛의 땅을 골라 장사지내길 바란다.”고 했다.

이상으로 보아 본래의 유가는 사치와 낭비를 모두 반대하고 오히려 儉朴과 節約을 주장하면서도 이것보다는 도덕적 가치를 더욱 강조하는 입장에서 厚葬·久喪의 원칙을 긍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

유교에서의 ‘죽음’이란 결국 함께 하였던 그 ‘魂’과 ‘魄’의 흠어짐으로 설명된다. 『禮記』에서의 “혼은 하늘로 돌아가고 백은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돌아가다’는 표현을 주목해 볼 때에 인간의 혼·백은 바로 저 하늘과 땅에서 받은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일상적인 용어로서 죽음을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것 또한 이와 다를 바 아니다.

사람이 태어날 수 있음은 精氣가 모여서이다. 사람은 다만 이 氣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그것이 다할 때가 있게 되는데, 다하면 魂氣는 하늘로 올라가고 形魄은 땅으로 내려가서 죽는 것이다. 사람이 죽어갈 때에 따듯한 기운은 위로 나아가는데 이는 魂이 올라가는 것이요, 하체는 점점 차지는데 이는 魄이 내려가는 것이다.

유교에서의 인간 생명이란, 육신과 정신의 두 측면으로서 魂과 魄이 하나의 ‘넋’을 이루어 가능한 것으로 보는 동시에, 그 죽음이란 바로 그 양자의 흠어짐에 의한 것으로 여긴다. 죽은 자의 魂과 魄은 죽음에 의하여 분리되지만 양쪽 모두가 죽은 자의 생명의 부분으로서 존중되어 屍身인 魄을 매장하고 魂을 봉안하는 절차가 죽은 자의 생명에 불편함

6) 박문현, “목자의 절장사상과 그 현대적의의”, 『국민윤리학논집』 제13집, 2003, 54-56쪽 참조.

이 없도록 배려되어 있다. 7)

삼국 초에 이미 유교의 상례가 喪葬儀禮 속에 수용되어 있었으나 엄격한 절차를 그대로 준수한 것은 아니며, 여기에 불교의 장속이 혼입되었고, 고유의 풍속도 강하게 혼용되어 왔던 것이다. 고려 말까지 공식적인 상례로서도 100일, 1년, 3년 등의 服喪法이 시대에 따라 변천되었다. 그러나 고려 말에 주자학의 영향과 유학자들의 주장으로 공양왕 3년에 明律에 따른 五服制度가 제정될 때까지는 百日喪이 통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에 유교의 상례를 확립해가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은 정몽주에 의하여 도입되었던 『朱子家禮』였다. 麗末鮮初의 排佛揚儒 운동과 더불어 불교에 대한 비판은 화장법이 성행하는 것을 통렬하게 규탄하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공양왕 때 憲司의 상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과 사, 人과 鬼는 하나의 氣이며, 지하의 부모가 평안하면 지상의 자손도 평안한 것은 마치 나무의 뿌리와 枝葉 사이의 관계와 같다고 하는 논리에서 화장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처벌하자는 주장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8)

죽음에 대한 붓다의 정의는 누구나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평이한 것이다. 죽음은 수명, 온기, 의식이 사라지고 감각기능이 멈춘 상태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법우여, 수명, 온기, 그리고 의식 이 세 가지가 없어지면, 이 몸은 버려지고 내던져져서 무감각한 통나무와 같이 됩니다.” 덧붙여서 붓다는 수명과 온기의 관계를 설명하여 상호의존한다고 말한다. 등불과 불꽃의 관계에서처럼 수명은 온기에 의존하고 온기는 수명에 의존한다고 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는 ‘죽음은 감각기능이 멈춘 상태’라는 설명을 추가한다. 살아있다는 것은 수명을 조

7) 유교의 귀신과 魂魄의 문제에 대해서는 유인희의 『주자철학과 중국철학』 부록, ‘중국인의 영혼관’을 참조바람.

8) 금장태, 『한국유교의 재조명』, 전망사, 1982, 139쪽.

건으로 하여 각각 고유의 활동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오감각과 이들 오감각이 의지처로 하는 마음이 있음을 의미하지만, 죽음은 이러한 감각 능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죽어서 자신의 때를 다한 사람의 경우에는 신업이 지멸되어 그 각 기능이 완전히 부서진다”고 한다. 요컨대 죽음은 수명, 온기, 의식이 떠나 감각기능이 멈춘 것이다.

다른 한편 죽음은 감각기능의 멈춤과 함께 五蘊의 흠어짐을 의미한다. 오온 중에서 몸에 국한시켜서 말하자면, 죽음은 地水火風의 흠어짐을 의미한다. 경전에서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수명이 끝날 때 사람의 몸은 지수화풍으로 흠어져, 흠은 흠의 성분으로, 물은 물의 성분으로, 불은 불의 성분으로, 바람은 바람의 성분으로 돌아가고 감각기관은 허공으로 돌아간다고 한다.⁹⁾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삼국의 문화적 주축을 이루었을 때에는 불교의 교리에 따른 葬俗이 승려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왕과 귀족 및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침투되었다. 불교의 장속이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火葬이다. 불교의 교리에 따르면, 현세가 고통과 번뇌의 세계요, 죽음은 육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죽음을 의미하는 涅槃은 곧 解脫을 뜻하고 있다. 죽음이라는 사실은 가장 큰 고통의 하나이지만, 이 죽음을 통하여 진정한 생명을 획득할 수 있다는 신념을 확립하고 있다. 따라서 修道의 방법으로서 죽음에 적극적으로 직면하여 명상하게 한다. 이것이 곧 念死요, 習死禪이다. 禪의 話頭로서 제시되어 죽음을 철저히 인식하여 그 번뇌로서 해탈하려는 것으로 枯骨觀이 있으며, 生死의 一如를 깨닫는 것이 곧 도통하는 것이다.

신라의 진흥왕이 임종할 때 머리를 깎고 僧衣를 입었던 사실은 불교의 상례가 왕족에게까지 실시되었음을 보여준다. 문무왕은 遺詔에 따라 火葬을 하고 그 뼈를 가루로 만들어 동해 가운데 뿌리게 함으로써 왕

9) 안옥선, “불교에서 보는 삶과 죽음”, 『철학연구회 2006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2006, 64쪽.

자신이 화장을 하는 시초가 되고 있다. 통일신라의 효성왕, 선덕왕, 진성여왕, 효공왕, 신덕왕, 경명왕 등 여러 왕이 화장을 했으리만큼 불교의 장속이 일찍부터 널리 보급되었다.

화장을 할 때 그 유골을 가루로 부수어 공중에 날리거나 물속에 뿌리기도 하며, 밥에 섞어서 새들이 먹게 하여 완전히 소멸하게 한다. 그러나 육신이 번뇌의 근원이라 하여 소멸시키려는 입장과는 달리 屍身이나 유골을舍利라 하여 尊奉하고 기념하기도 한다.

불타의 사리를 보존하는 탑이 세워지는 것처럼 승려의 유골을 상자에 담아 분묘에 매장하는 것도 유골을 보존하는 방법으로서 흔히 이용되어 왔다.

불교의 상례는 死生一如의 신념과 極樂往生의 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생과 사의 중간에 과도기를 이루는 죽음의 과정에서 죽은 자에게 成佛의 해탈을 선언하면서도, 西方極樂을 주재하는 아미타불과 지옥의 중생을 제도하는 地藏菩薩을 염송하며, 49일 齋를 올려 죽은 자의 명복을 빌고 있다. 이러한 불교의 장속은 화장을 한 후 유골의 散滅과 奉安이라는 두 방법이 중심이 되어 신라와 고려조에 성행하였고, 조선조에서도 승려들 사이에 유존되어 왔으며, 일제 이후 다시 대중 사이에 葬法의 한 가지로 이용되고 있다.¹⁰⁾

老子の 사상을 이어 받아 응용하고 있는 莊子は 죽음에 대하여 독특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장자는 生과 死 모두가 氣의 운행과정이라고 믿기에 그 자신이 세상과 이별하려 할 때 그의 제자들이 厚葬하려 했으나 이를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늘과 땅으로써 속관과 덧관을 삼고, 해와 달로써 한 쌍의 구슬을 삼으며, 별로써 장식의 옥으로 삼고, 만물로써 재물을 삼고 있으니, 나의 장례 도구 중에 무엇이 부족하겠는가?”고 하였다. 이에 제자들이 “독수리 떼가 선생님을 쫓아 먹을

10) 금장태, 앞의 책, 136-138쪽 참조.

까 염려하여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니 장자는 “땅 위에 두면 독수리 떼가 쪼아 먹고 땅 속에 묻으면 개미떼가 뜯어 먹을 것이다. 한 쪽을 빼앗아 다른 쪽에 준다면 공평하지 못한 처사이다.”¹¹⁾라고 하였다. 이것은 독수리 떼가 쪼아 먹거나 개미떼가 뜯어먹는 것은 모두 氣化하여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인간이 죽어서 氣가 흩어져 자연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厚葬은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장자는 ‘生死一如’로 생각하여 생사의 대립을 타파함으로써 생사에 대한 정신적 초월을 실현할 것을 주장한다.¹²⁾

3. 한국인의 죽음관

산다는 것은 죽음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다. 고대로부터 한국인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사회적 손실이였다. 전염병에 걸려 죽은 망자의 시신은 격리의 대상이였다. 육체적 활동이 정지된 시신을 흠이나 돌로 눌러 다시 환생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망자가 쓰던 물건은 없애버렸다. 망자의 옷을 불에 태워주면 망자가 저승에서 입을 다고 하였지만 실은 망자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조치였다. 망자를 이승으로부터 분리시키기를 원했고, 산자의 기억 속에서 빨리 잊혀지기를 기원하였다. 망자의 혼령이 저승을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시신을 처리하였다. 죽은 자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조차 꺼렸고 꿈 속에서라도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망자가 자식들의 꿈에 자주 나타나면 현재의 거처가 불편하다고 판단하여 편히 쉴 수 있도록 이장을 해주었다.¹³⁾

11) 『장자』, 列禦寇 篇.

12) 傅偉勳, 『죽음 그 마지막 성장』, 전병술 역, 창계, 2001, 211쪽 참조.

13) 문형진, “산자와 죽은 자의 離合의식”, 『세계의 장례문화』, 한국외국어대학교, 2006, 29쪽.

또한 죽음은 인간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었었다. 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 심리학적 개념은 인간의 무의식층에 도사리고 있는 ‘나에게는 죽음이라는 현상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완고한 생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현실로 죽음이 닥쳤을 때는 어떤 악한 靈이 개입하여 죽음이라는 파멸이 오게 되었다고 설명하게 된다. 너무도 큰 두려움, 어떤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 인식의 블랙홀에 빠져 버리는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들에게는 죽은 시체에 대한 신성한 숭배로 나타나는 현상도 있다. 시체에 대한 두려움 혹은 혐오의식과 시체에 대한 신성시는 정반대가 되는 양극감정이다. 인간에게는 이 모순되는 감정을 죽은 시체에 대해서 일찍부터 보여 왔다.

고대에는 죽은 시체를 묻는 무덤을 될 수 있는 대로 산자의 생활을 옮겨다 놓은 듯이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죽어서도 유감을 가지지 말고 이 세상에서 산 것처럼 생을 누리라고 하는 염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염원이기도 하지만 망자를 달래는 방법이기도 했다. 순장을 하던 고대인의 심리도 망자의 죽음을 영원한 죽음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고대인의 죽은 시체에 대한 존중이나 신성시는 이런 심리적 태도와 연결되었다. 절대로 죽은 시체에 어떤 해를 가해서는 안 되도록 잘 보존해야 한다는 것, 그 시체가 거하는 무덤을 집이나 궁전처럼 만드는 현상은 망자를 달래면서 두려움과 죄책감을 중화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시체를 신성시하는 이유는 이 밖에도 더 있다. 죽은 시체는 靈이 거하는 거처와 같은 곳이라는 관점이 그것이다. 고대인들 가운데도 요즈음 말하는 임사체험이 있었고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현상을 경험하기도 했다. 유교에서 행하는 복잡한 의례절차 가운데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죽은 영혼이 육체에 되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이 되돌아오고 싶어도 육체가 이

미 훼손되어 있다면 원혼이 되어 구천을 떠도는 억울한 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 공동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¹⁴⁾

또 죽음은 이승의 끝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무덤을 호화롭게 건축하기 시작하였고, 내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가지 생활도구를 부장품으로 넣어 주었다. 이승의 영화로움이 지속되기를 기원하였고, 보다 더 나은 삶이 지속되기를 원하였다. 짐차 저승과 이승을 연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망자의 혼령을 숭배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조상의 음덕으로 후손이 번창하길 기원하였고, 나의 출세는 가문의 영광으로 이어졌다. 육신은 떠났지만 영혼은 늘 더불어 있다고 판단하여 조상의 유품을 고이 간직하였다. 조상을 기리는 제사가 존중되었고 함자 또는 족보라는 형태로 지속되었다. 당사자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몇 대 손이며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중시하였다. 사당을 짓고 풍수를 동원하여 명당을 찾는 행위 등은 혈연을 강조하고 집단을 강조하는 사회적 이념으로 승화되었다. 후손의 출세는 가문의 영광이요, 조상의 음덕이라는 사고체계는 수직적이고 종적인 사회를 형성하였다. 윗사람의 말은 옳고 남자는 여자보다 우선하며 양반은 천민보다 대우 받는 관념체계를 형성하였다. 이상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상장제도는 두려움과 혐오에서 숭배의 대상으로 변천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⁵⁾

4. 장묘문화의 현황과 문제점

가. 납골제도

14) 이은봉, 『한국인의 죽음관』, 서울대출판부, 2000년, 238-240쪽 참조.

15) 문형진, “앞의 논문”, 29-30쪽.

화장물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매장 위주의 장묘 문화에서 납골 및 散骨로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이 바뀌고 있다. 납골이란 유골을 납골묘, 납골벽, 납골당 등의 납골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납골제도는 2001년 1월 13일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골분처리외 한 방법으로 도입되어 확산되기 시작했다. 화장으로 인해 비록 시신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유골을 일정한 공간에 안치함으로써 명절이나 기일에 성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추모의 정을 표현할 수 있어 유교적인 예의 실천이 가능하다.

더구나 납골시설은 대체로 별초 등의 묘지 관리의 어려움을 덜 수 있고 유족들의 주거지와 멀지 않은 곳에 설치된 곳이 많아 성묘 및 묘지 관리로 인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한 공간에 가족 모두 또는 문중의 많은 유골들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은 전통적인 매장에 비해 토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크게 호응을 받아왔다. 그런데 납골 문화가 보급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 와서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과도한 석물사용으로 인한 자연훼손이다. 납골시설은 대체로 석재를 사용하는데 특히 납골묘를 가족형이나 문중형으로 조성할 경우는 중국, 베트남 등에서 수입된 석재나 석물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자연 경관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산야에 매장으로 인한 묘가 많기는 하지만 잔디로 덮여있는 봉분은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땅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납골묘는 석조구조물이라 반영구적으로 지속되는데 관리가 부실할 경우나 그 수가 계속 증가할 경우 납골묘의 돌은 풍화에 부식된 채 흙물로 남게 될 것이다.

둘째, 납골당에 안치할 경우 골분보관 방법에 문제가 있다. 납골당의 건물구조상 결로 현상이나 악취를 없애기 어렵고 방습, 방충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설 납골당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

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셋째, 사설 납골시설의 지나친 이윤추구로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사설납골시설은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기에 부실공사와 사후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여도 감시,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현행 사설납골시설 설치주체에 종교단체를 예외로 하고 있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시설은 거의 없다. 따라서 사설납골시설은 종교단체가 90%이상이며, 그 외는 개인 또는 주식회사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설납골시설은 종교적 목적과 공익성보다는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인해 공설의 5-10배의 비싼 이용료로 이용자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부실 및 영속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넷째, 공설납골시설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납골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설납골시설 공급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시한부 매장제도로 인해 오래된 조상의 산소를 납골시설에 봉안하거나 매장유골을 처리할 경우 납골시설의 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이기에 공설납골시설의 부족현상은 심각한 것이다. 더욱이 공설의 경우 한번 안치하면 30년까지 시설의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건립이 불가피하다.

나. 자연장 제도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강이나 산, 바다 등에 뿌리는 산골장과 유골을 지정된 나무 아래 묻거나 땅에 묻은 후 나무를 심는 수목장과 같이 인간의 주검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환경 친화적 장례를 뜻한다. 그래서 자연장을 에코 다잉(eco-dying)형 장례라고도 한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자연장이 새로운 방법으로 유행하고 있다.

자연 그 자체가 하나의 장례방식이 되는 자연장에는 풍장, 조장, 수장 등이 있다. 風葬은 사체를 매장하지 않고 공기 중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도서지방을 중심으로 치러진 장례절차이다. 사체를 놓는 방식에 따라서 동굴에 안치하는 동굴장, 나무에 걸어두는 樹葬, 벼랑이나 산기슭에 두는 崖葬 등으로 나뉜다. 鳥葬은 사체의 처리를 새들에게 맡기는 자연장법이다. 이 장례법은 하늘을 신성시하고 육체는 새에 의해서 하늘로 운반된다는 티베트인의 생각에 근거를 둔 것이다. 水葬은 시신을 혹은 분골을 물에 떠나보내는 방식으로 전례되고 있으며, 강이나 물에 종교적 의미를 담는 지역, 특히 인도에서는 4대 장례법의 하나로 꼽히는 장법이다. 그 밖에도 현대에 와서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개발된 장법으로는 냉동장이 있다. 시신을 냉동시킨 후 진동기계로 1분만에 가루로 만든다. 이 가루를 땅에 묻는 방식이다. 장례방식이 화장과 달리 유해가스를 발생하지 않아 훨씬 환경친화적이며 분해과정도 빠르다.¹⁶⁾ 또 화장한 유골을 비행기로 공중에 뿌리는 스카이장도 있다. 중국의 등소평 등이 이런 장법으로 바다에 흩뿌린 적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장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현재 널리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풍장이나 조장은 사체를 유기한다는 의식에서 유교정신이 지배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기 어려운 장법이다. 그리고 화장한 유골을 강이나 바다에 뿌리는 수장은 경제적인 비용이 들지 않고 방법의 간편성으로 인해 지금까지 많이 이용되어 왔으나 오늘날은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유교적인 의례에 따라 추모의 기회를 가질 상징물이 없다는 점에서도 선호하지 않는 장법이다. 냉동장은 화장과 달리 유해가스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친환경적이나 최신기술이라 그 시설의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장 역시 비행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서민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될 것이므로 일반적인 장법

16) 변우혁, 『수목장』, 도솔, 2006, 125-127쪽 참조.

으로 보급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수장과 마찬가지로 추모의 상징물이 없다는 점도 유교적 정서를 지닌 우리 국민 대부분의 호응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될 것이다.

자연장도 환경문제, 경제적 부담, 종교적 정서에 맞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만 근년에 들어와 수목장이 새로운 대안적 장묘방법으로 주목되고 있다. 스위스나 독일에서는 수목장이 상당히 일반적인 장례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특히 독일에서는 유골의 40%가 나무에 뿌려지고 있으며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유골 위에 장미꽃을 심는 장미묘원과 같은 정원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년 전 고려대 김장수 교수의 수목장이 알려진 후 수목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005년 한국산림정책연구회가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2.5%가 수목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14.7%가 본인이 죽으면 수목장으로 장례를 치르겠다고 답했다. 올해 KBS의 조사에서는 수목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76.1%이고 본인의 장례를 수목장으로 치를 의향은 61.6%로 크게 증가하였다.

수목장법을 선호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 자연환경 및 국토를 훼손하는 매장 및 납골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유가 34.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적고 유지관리가 용이함이고 (26.4%), 나무를 통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생각은 14.1%였다. 주목을 끄는 것은 묘지란 느낌보다 아름다운 숲으로 여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 수목장을 선호하는 사람도 12.0%나 되었다.¹⁷⁾

수목장을 선호하는 이유를 그것이 묘지라기보다 숲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인들은 그 어떤 편리한 시설보다도 자연 그대로의 숲이 주는 혜택들에 공감하고 있다. 즉,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묘시설보다는 자

17)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산업경영연구소, “경기도 수목장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06.4. 10쪽 참조.

연스러운 산림 속에서 영원한 휴식을 취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인에게 숲은 친숙함의 대상이다. 산림이 전국토의 65%를 차지하는 환경에서 산과 들에 둘러싸여 살아온 우리에게 숲은 농경문화에 대한 향수를 담은 대상이자 휴식의 공간이다. 바다에 뿌러지는 것보다도 숲에 뿌러지길 원하는 사람이 배로 많다는 것도 이 점을 시사한다. 숲이 인간에게 주는 상쾌함, 깨끗함, 넉넉함, 그리고 자유로운 느낌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마음 속 본질이다.

셋째, 숲은 생명체의 자궁이자 생활의 터전이다. 태어난 곳을 찾아 회귀하는 연어처럼 한국인의 기원에 대한 회귀본능은 널리 알려져 있다. 고향의 모습을 보존한 숲을 삶 자체이자 회귀의 종착역으로 여기는 것은 회색 콘크리트 틀 안에 갇힌 현대사회 인간들로서는 당연한 마음일 것이다.¹⁸⁾

장례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중요한 부분이고 장례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데 있어 핵심이다. 따라서 장례법의 선택은 반드시 철학적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¹⁹⁾ 수목장은 앞에서 살펴본 도가의 죽음관에 부합된다. 장자는 인간의 삶과 죽음은 氣의 聚散이라고 했다. 죽음이란 氣가 흩어져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나무의 거름이 되어 物化하는 수목장은 한국인의 의식 속에 흐르고 있는 도가적 자연주의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자연장과는 달리 추모의 상징물이 자연 그대로 살아있다는 점에서 유교적 繼世 사상에 따른 孝의례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장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수목장 시행상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첫째, 수목장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불법시설이 난립하고 있다. 또 수목장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아 화장한 유골을 썩지 않는

18) 변우혁, 앞의 책, 135-136쪽 참조.

19) 같은 책, 144쪽.

용기에 넣어 안치하는 등 수목장을 유도하는 사설단체가 임의로 葬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 이용자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

둘째, 추모목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高價의 추모목이 거래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과시욕구를 부추기는 사설업자들에 의해 어떤 추모목은 수천 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고가로 분양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셋째, 수목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므로 수목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목장은 화장된 유골을 수목의 뿌리 주위에 묻어주는 방법 외에도 땅을 파서 유골을 먼저 땅에 묻고 그 위에 수목이나 장미와 같은 화목을 심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러한 정원장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꼭 수십년된 高價의 나무를 선택할 필요가 없고 작은 묘목으로도 가능하다는 수목장의 다양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풍수지리설에 따라 나무뿌리가 시체를 감싸고 있을 경우 자손들에게 화가 미친다는 생각에서 나무뿌리가 유골과 접촉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5. 장묘문화 개선방안

21세기에 들어와 과학기술문명의 발달과 함께 정보지식사회가 정착됨에 따라 우리의 생활양식도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전통적인 장묘문화 역시 변화하고 있는데 정책당국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먼저 죽음의 처리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간은 죽음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일정한 의식 속에서 죽음을 수용하고 애도하며 죽음을 자기의 세계관에 따라 처리하고 싶어 한다. 유물론적인 세계관이나 불교적 존재론에 따라 화장을 쉽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유교적 종교의식에 젖어있는 사람들은 선뜻 화

장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국토 이용의 비효율적인 요인이나 자연훼손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국민들의 종교적 신념이나 전통적인 의례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화장위주로만 정책의 방향을 잡아서 안 된다. 물론 좁은 국토에서 매장으로 인해 묘지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제 대도시에서는 70% 가까이가 화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화장률은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그래도 노령인구가 많은 농촌에서는 아직도 매장이 압도적이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죽음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농촌이나 산촌까지도 묘지를 구할 수 없다고 할 지 모르나 우리나라에는 불법 및 무연고 묘지가 전체 묘지의 40%나 된다. 이것들을 정비하여 묘지로 재활용한다면 농촌 거주 주민들의 묘지난은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매장을 할 경우는 묘지 설치의 기준을 엄수하도록 법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철저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 화장장려와 함께 권장하던 납골제도를 산골 내지 자연장으로 전환하려는 행정당국의 의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납골 묘지, 납골당, 납골탑 등의 납골시설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자연장, 그 중에서도 수목장 위주로 복지정책을 입안하여 앞장서 권장하거나 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납골 시설은 그 추모대상이 뚜렷이 존재하기에 추모의례를 통해 조상에 대한 報恩사상을 실천할 수 있고 가족, 친족, 혈족의 유대를 유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기에 유교적인 정서를 가진 많은 국민들에게서 호응을 받고 있는 장례방법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드러난 납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

납골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을 제도화하고 이에 대해 강력한 행정규제와 지도가 필요하다.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서는 조정기준도 설정해야 한다. 납골묘의 형태는 지상돌출형 보다는 평장형을 권장하며, 소형화를 통한 설치가 용이한 규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 납골묘의 재료는 화장한 유골을 안전하게 보존하며, 납골시설의 본체를 유지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재료를 통한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납골시설은 유형별, 종류별 규격기준을 마련하고, 장식용 석물 사용을 분묘설치 기준의 수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²⁰⁾

시설 납골시설의 지나친 영리위주 경영 및 신뢰도 저하로 경제적 부담과 사후관리 부실 및 영속성 확보가 어려워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기에 공설 납골시설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시설납골 시설의 공익성, 건전성,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설치허가권자의 준공 검사 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²¹⁾

산골 등의 자연장 중에서도 도가적 자연회귀의식과 유교적 추모의례를 실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적 윤회사상과도 부합될 수 있어 최근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수목장이 바람직한 장묘의 방법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제시하는 몇 가지를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수목장의 조성을 위한 법률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보면 ‘자연장’에 대한 정의는 있으나 ‘수목장’에 대한 정의가 없다. 개정안 제2조 제9항에는 “자연장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을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거나 또는 산이나 강 등에 뿌려 장사함을 말한다.”로 자연장을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수목장은 화장한 유골을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는 것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유교적 정서에 의하면 유골을 용기에 담는 것을 선호한다. 따라서 옥수수로 만든 용기 등 완전분해성 용기에 담는 것은 허용해야 할 것이다. 또 수목장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묘역에

20) 이삼식 외, “장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148쪽 참조.

21) 이삼식 외, 위의 논문, 150~152쪽 참조.

서 적용하는 수목장과 산림에서 적용하는 수목장의 방법이 다르다. 그러므로 수목장의 정의를 비롯하여 수목장립의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해 법률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수목장립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은 수목장립을 면적의 개념으로만 명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수목장립의 정의 및 지정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장사에 관한 법률’에 두고, 수목장립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규정은 수목장립에 대한 산림관계법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목장에 관한 시설은 먼저 공설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정서나 종교적 관습에 부합되는 수목장 모델을 개발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해야한다. 국유림이나 공유림을 이용한 공공성에 중점을 둔 수목장립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한 후 사설 수목장립을 승인해야 한다.

셋째,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다 종합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장사정책을 수립하여 정부의 주무부처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아직 법령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공설 수목장립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30억원을 들여 2008년까지 도유림에 15만평 규모의 수목장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수목장립 설치 조례제정안을 내놓았으며 2006년 4월에는 서울시립대학에 용역을 주어 ‘경기도 수목장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라는 수목장립 설치를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시도 자연경관이 좋은 경기도 용미리에 3만평 규모의 자연 수목장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또한 경북, 충남, 인천 등지에서는 사유림이나 수목원, 공원묘지 등을 수목장으로 재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화장을 전국 1위를 자랑하는 부산시의 경우는 수목장립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가 553억원을 들여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법령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목장에 대한 수요를 적극적으

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6. 맺음말

죽음의 문화가 오랜 시간에 걸쳐 전반적 변화를 겪게 되듯 한국의 전통적인 장묘문화 또한 시대적으로 변천되어 왔다. 석기시대에는 토장과 지석묘가, 삼국시대에는 토분 및 화장이, 고려시대에는 화장, 토분, 왕릉,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역불송유정책으로 화장을 금하고 매장제를 강력하게 시행하는 등 유교적 장묘문화가 극을 이루었다. 근대적인 장묘관련 법규의 시작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일제는 비효율적인 산지이용 및 미신을 타파한다는 명목으로 집단묘지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이때부터 공동묘지와 화장장제도가 도입되었다. 해방이후에는 1968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매장, 화장 및 개장과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등의 시설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묘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지금은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내세워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을 통한 납골 및 자연장 제도를 장려하고 있다. 그런데 장묘정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데는 국민들의 종교적 관습과 정서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경제적 이유와 시행의 효율성 위주로만 정책을 입안하게 되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사유방식은 유교, 불교, 도가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생활문화가 형성되었다. 장묘문화 역시 유교, 불교, 도가적인 사상에 따라 변천되어 온 것이다. 전통문화가 거의 사라져 박물관에서나 그 形骸를 찾아볼 수 있는 현대에도 죽음의 처리방식은 전통사상에 기대어 존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장묘문화를 창안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철학적인 세계관을 깊이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종교적 이유로 매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묘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의식의 다양함을 고려하여 어떤 한 가지 장묘법만을 권장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죄인취급해서는 안될 것이다. 화장이나 자연장 혹은 납골시설에의 봉안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나 이용자의 경제성, 공공성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이것을 적극 홍보하고 지도층 인사들로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장묘문화의 개선은 국민들의 종교적, 철학적 세계관이나 관습을 수용하는 바탕 위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강구해야만 웰 다잉의 국민복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논어』

『장자』

『맹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적사고의 원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傅偉勳, 『죽음 그 마지막 성장』, 전병술 역, 청계, 2001.

柳仁熙, 『주자철학과 중국철학』, 범학, 1980.

금장태, 『한국유교의 재조명』, 전망사, 1932.

이은봉, 『한국인의 죽음관』, 서울대출판부, 2000.

변우혁, 『수목장』, 도솔, 2006.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산업경영연구소, “경기도 수목장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06.

이삼식 외, “장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문형진, “산자와 죽은 자의 離合의식”, 『세계의 장례문화』, 한국외국어대학교, 2006.

박문현, “목자의 절장사상과 그 현대적의의”, 『국민윤리학논집』 제13집, 2003.

안옥선, “불교에서 보는 삶과 죽음”, 『철학연구회 2006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2006.6.17.

문화콘텐츠연구 제12집

인쇄 / 2006년 12월 15일

발행 / 2006년 12월 20일

운영위원 / 김유범	이철우	편집위원 / 김유범	조경섭
박옥숙	장성욱	안영식	정효운
박진	정효운	이철우	박옥숙
안영식	조경섭		
이영희			

발행인 / 문 중 대

발행처 / 동의대학교 문화콘텐츠연구소

우)614-7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995번지

전화 / 051) 890-1776

편집처 / 동의대학교 문화콘텐츠연구소

인쇄처 / 동의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전화 : 051/ 890-1135

이 책자는 비매품입니다.